the 1st IPAP

SEA OF PEACE

07.22 FRI
-
08.28 SUN

제 1 회 인천 평화 미술 프로젝트

분쟁의 바다
화해의 바다

제 1 회 인천 평화 미술 프로젝트

SEA OF PEACE

07.22 FRI - 08.28 SUN

분쟁의 바다
화해의 바다

분쟁의 바다 화해의 바다
2011.07.22-08.28
인천아트플랫폼 A동, B동, H동, 야외 및
한국근대문학관 건립 예정지

HOSTED BY INCHEON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ORGANISED BY INCHEON ART PLATFORM
SUPPORTED BY INCHEON TOURISM ORGANIZATION, ONJIN COUNTY, CAMF

DIRECTOR LEE SEUNG-MI
CURATOR LEE YOUNG-RI
ADVISORY KIM CHANG-SU, PARK YEEN-WOO, LEE JONG-GU,
JUNG JUNG-YEOB, CHA KI-YOUL, CHOI WON-SHIK, HONG SEON-WUNG
MANAGEMENT AND SUPPORT KIM MIN-KYUNG, O BYOUNG-SUK, OH HYE-MI,
PARK WOO-CHUL, BAAK JOO-HEE
PUBLIC RELATIONS JI YOUNG-CHEOL
EDUCATION PROGRAM CHO EUN-JOO, SHIN MIN-YOUNG, CAMILLE FABRE

PUBLISHER SONG YOUNG-GIL, MAYOR OF THE INCHEON METROPOLITAN CITY
EDITOR LEE SEUNGMI, DIRECTOR OF INCHEON ART PLATFORM
DATE OF PUBLICATION 2011. 08. 08
CONTACT INCHEON ART PLATFORM
218-3 JEMULRYANG-RO, JUNG-GU, INCHEON (400-021)
TEL. 032)760-1000 FAX. 032)760-1010
WWW.INARTPLATFORM.KR

DESIGN THAT'S DESIGN STUDIO LEE KWANG-YONG
TRANSLATION PARK JI-HAE

주관 인천문화재단
주최 인천아트플랫폼
후원 인천관광공사, 옹진군청, 주안영상미디어센터,경인일보

관장 이승미
큐레이터 이영리
전시자문 및 운영위원 김창수, 박인우, 이종구, 정정엽, 차기율, 최원식, 홍선웅
전시지원 김민경, 오병석, 오혜미, 박우철, 박주희
홍보 지영철
연계교육프로그램 조은주, 신민영, 카미유 파브르

발행인 송영길 인천광역시장
편집인 이승미 인천아트플랫폼 관장
발행일 2011. 08. 08
발행처 인천아트플랫폼
(우:400-021) 인천 중구 제물량로 218번길 3(400-021)
TEL. 032)760-1000 FAX. 032)760-1010
WWW.INARTPLATFORM.KR

디자인 데츠 디자인 스튜디오 이광용
번역 박지혜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INDIVIDUAL COPYRIGHT HOLDERS AND THE INCHEON ART PLATFORM.

THIS CATALOGUE IS PUBLISHED ON THE OCCASION OF THE 1ST INCHEON PEACE ART PROJECT - 'SEA OF CONFLICT • SEA OF RECONCILIATION'

제 1 회 인 천 평 화 미 술 프 로 젝 트

SEA OF PEACE

07.22 FRI
-
08.28 SUN

분쟁의 바다 화해의 바다

인천문화재단 INCHEON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인천아트플랫폼 INCHEON ART PLATFORM

Contents | 목차

인사말 **10–11**
평화의 두 얼굴 **12–13**
인천평화선언 **14–15**
서해5도 대장정 **16–23**

작품 배치도 **24–25**
전시장 전경 **26–33**

강 혁 KANG Hyuk **36–37**
고찬규 KOH Changyu **38–39**
공성훈 KONG Sunghun **40–41**
김광성 KIM Kwangsung **42–43**
김성호 KIM Sungho **44–45**
김영옥 KIM Youngok **46–47**
김재화 KIM Jaehwa **48–49**
김종오 KIM Jongoh **50–51**
김주호 KIM Jooho **52–53**
김지원 KIM Jiwon **54–55**
김태은 KIM Taeeun **56–57**
김태준 KIM Taejun **58–59**
김현철 KIM Hyunchul **60–61**
김형기 KIM Hyounggi **62–63**
도로시 디온 Dorothy Deon **64–65**
도지성 DHO Jisung **66–67**
류성환 RYU Seonghwan **68–69**
박인우 PARK Yeenwoo **70–71**
박진화 PARK Jinhwa **72–73**
박충의 PARK Chungeui **74–79**
박흥순 PARK Heungsoon **80–81**
배진호 BAE Jinho **82–83**
서용선 SUH Yongsun **84–85**
성효숙 SUNG Hyosook **86–87**
송필용 SONG Philyong **88–89**
쑨광화 Sun Guanghua **90–91**
여 운 YEO Un **92–93**
오석근 OH Sukkuhn **94–95**
유지환 YOO Jiwhan **96–97**
윤석남 YUN Suknam **98–99**
이명복 LEE Myoungbok **100–101**
이부록 & 안지미 LEE Boorok & AN Jimi **102–103**
이세현 LEE Seahyun **104–105**
이용백 LEE Yongbaek **106–107**
이윤엽 LEE Yunyop **108–109**
이이남 LEE Leenam **110–111**
이 인 LEE In **112–113**
이종구 LEE Junggu **114–115**
이 탈 LEE Tal **116–117**
정정엽 JUNG Jungyeob **118–119**
정평한 CHUNG Pyunghan **120–121**
조 습 JO Seub **122–123**
조우치 Zhou Qi **124–125**
차기율 CHA Kiyoul **126–127**
최병국 CHOI Byungkuk **128–129**
최정숙 CHOI Jungsook **130–131**
타케시 모로 Takeshi Moro **132–133**
하성흡 HA Sungheub **134–135**
한원석 HAN Wonsuk **136–137**
허용철 HEO Yongcheul **138–139**
허원주에 He Wenjue **140–141**
홍선웅 HONG Seonwung **142–143**
홍지윤 HONG Jiyoon **144–145**

이세기 LEE Seki **148–152**
강제윤 KANG Jeyoon **153–157**
김창수 KIM Changsu **158–159**
오시은 OH Sieun **160**

이종구 LEE Junggu **162**
박충의 PARK Chungeui **163–174**

현장답사 **176–189**

인사말

인천문화재단이 주관하고 인천아트플랫폼이 기획한 '제1회 인천 평화 미술 프로젝트 – 분쟁의 바다 화해의 바다'는 우리들의 현재이고, 그리고 미래 삶의 터전인 한반도의 남과 북이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여 평화롭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전시입니다.

모두가 사이좋고 평안하게 산다는 것이 사실 너무나도 평범한 바램입니다만, 현재 우리의 상황에서는 또한 너무나도 절실한 가치입니다. 오늘의 전시는 이렇게 평화를 염원하는 예술가들의 오랜 논의와 창작 활동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전시가 인천이 진정한 평화의 도시로 자리매김하는데 이바지 할 것이라 믿으며, 올해를 시작으로 내년, 후년, 그리고 그 이후까지 '평화의 길목'으로서의 인천에 걸맞는 예술 프로젝트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인천 앞바다가 갈등과 분쟁과 죽음의 바다가 아닌 화합과 평화와 생명의 바다가 되기를 염원하며 좋은 작품을 창작해 주신 모든 예술가분들께 인천문화재단의 대표로써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일을 총괄하며 많은 땀과 시간을 아낌없이 내주신 인천아트플랫폼의 이승미 관장님께도 항상 감사했지만 새삼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인 인천이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가득 차길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강 광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Greetings

Hosted by Incheon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and planned by Incheon Art Platform, the 1st Incheon Peace Art Project - Sea of Conflict, Sea of Reconciliation exhibition was prepared hoping that the North and South of the Korean Peninsula - the land of our livelihood in our present and future - reconcile and cooperate for a peaceful coexistence.

Wishing for peace and harmony may be somewhat ordinary, but it is a value that we hold dearly under our present circumstances. Today's exhibition is a culmination of work by artists desiring peace through discussions and creative work over a long period of time. We firmly believe that this exhibition will help Incheon position itself as a city of peace, and from this year onwards, we intend to continue our art project befitting Incheon as the 'crossroads to peace.'

As President of Incheon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I'd like to once again thank all the artists who created works hoping that the offshores of Incheon become one of harmony, peace, and a sea of life rather than one of conflict, dispute, a sea of death. Furthermore, although I've always been grateful to Seungmi Lee Director of Incheon Art Platform for all her time and efforts spent managing this project, I'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once more. As one who hopes that our home Incheon overflows with peace loving people, I woul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to you all for your support.

KANG Kwang (President, Incheon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평화의 두 얼굴

평화는 좁은 의미로는 '전쟁을 하지 않는 상태'이지만 현대 평화학은 평화를 '분쟁과 다툼이 없이 서로 이해하고, 우호적이며, 조화를 이루는 상태'로 이해한다. 더불어 인류가 목표로 하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이다. –위키백과사전–

매일 우리는 각종 미디어를 통해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분쟁상황을 거의 실시간으로 접한다. 인접 국가간 영토분쟁, 같은 국가 내의 종교 분쟁, 인종, 계층간 분쟁, 정치적 탄압과 저항... 각종 신문의 1면과 TV 뉴스의 주요 시간을 차지하는 주요 기사로서 다루어지는 이러한 분쟁을 접하면서 극히 일부의 사람들만이 자신의 현실이라고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그저 남의 나라 남의 일, 관성적으로 매일 흘러가는 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지난해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으로 인해 우리는 TV 속 사건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닌 바로 우리의 일임을 알게 되었다. 휴전 후 60년이 지나가고 있건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전쟁 중'이고, 우리는 모두 분쟁의 가운데에서 태어나 살아가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백령도, 연평도 주민 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은 누구라도 그동안 우리가 매일 숨쉬고 있던 평화는 단지 임시방편일 뿐, 세계경제 10위국에 국민소득 2만 달러와 같은 오늘의 현실도 사실은 달콤한 신기루일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마치 경치 좋은 바닷가에 아름다운 집이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삶이 하루 아침에 언제 밀려들지 모르는 풍랑과 높은 파도 앞에 놓인 누추한 임시가옥이었다는 현실을 깊은 공포와 함께 느끼게 된 것이다. 게다가 그동안 무심하게 누리던 평화는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의 생명과 청춘, 그리고 막대한 군비를 대가로 지불하고 있었다는 것도 새삼 알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늘 편안하고 아름다운 얼굴을 보여주고 있던 평화는 결국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일이 결코 공짜가 아니었던 것이다.

특히 인천은 더욱 그랬다. 온 바다를 철조망으로 거의 감싸고 있었던 시절부터 '위험한 바다'에 가까이만 가지 않으면 안전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가운데 놓인 섬들은 잊혀진 신화처럼 스스로 사람들에게 잊혀지기를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위험한 바다와 섬'은 우리들의 고향이자 아직도 사랑하는 가족이 살고 있는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삶의 현장이었으며 신화로 남을 수만은 없는 바로 우리 이웃이었다.

예술은 평화와 같다. 사람들은 아주 쉽게 예술의 가치나 의미를 잊고는 한다. 늘 남의 일로 그러려니 하고 지나친다. 그러나 예술은 늘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누군가 귀 기울이지 않아도 낮고 조용하지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었다. 평화와 삶의 소중함에 대해... 이제 예술가들은 지난해의 상처를 추스르고 다시 인류 최고의 이상인 평화를 이야기한다. '분쟁의 바다, 화해의 바다'에 대해 아름답고 슬프고 비통하고, 그리고 언젠가 넘어야 할 '평화의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굵은 땀을 흘리며 이야기하고 있다.

이승미 (인천아트플랫폼 관장)

The Two Faces of Peace

In the narrow sense, peace is a state of harmony characterized by the lack of violent conflict but irenology (peace studies) defines peace as 'the absence of hostility, a state of understanding, of amicability, and of harmony.' Moreover, it is the ideal state that all mankind aims for. - Wikipedia -

Every day, we receive news from various medias in realtime on worldwide conflicts - territorial disputes between adjacent countries, religious conflicts within a country, conflicts of ethnicity and class, of political oppression and resistance, etc. As the front page of newspapers, and main stories of TV news all report on such conflicts as lead stories, only a few accept it as their reality. The rest find ourselves distant and believing it to be something that's happening elsewhere in another country as if it's an everyday occurrence.

However last year's Cheonan War Ship and Yeonpyeong Island incidents taught us that news reported on TV was not someone else's business but our very own. Even after 60 years of armistice, South Korea is still 'at war,' and it's awakened us to the fact that we were born and are living in a conflict zone.

It was not just the citizens of Beangnyeong and Yeonpyeong Islands that felt threatened. All Koreans were forced to realize that peace was just a temporary situation and despite the fact that Korea ranks 10th in the world economy with a GDP of USD 20,000, our reality is nothing but a sweet mirage. It was as if we came to the terrifying realization that our picturesque house on the lovely seaside was nothing but shabby makeshift shelter under threat from sudden storms and high waves from nowhere. What's more is that we came to the realization that the peace we took for granted was at the expense of the lives and youth of our younger generation, and of the enormous military costs. We learned there was another side to the easy and beautiful face of peace - that maintaining beauty was never free but at a cost.

Incheon's situation was even more so. Even when the entire sea was surrounded by barbed wire, people believed that as long as they kept away from 'dangerous seas' they would be safe. Perhaps we hoped that like Greek mythology, islands in the conflict zone would be fade from our memories. However, the 'dangerous sea and islands' were in reality our home, where our families still live, a place that cannot be ignored, our neighbors that couldn't remain as myths.

Art is like peace. People easily take the value and meaning of art for granted. It's always passed over as someone else's business. However art always holds its place speaking quietly but endlessly regardless of anyone listening. It speaks of how precious peace and life is. Artists have gathered themselves from the tragedies of the previous year and have begun to speak of mankind's ultimate ideal, peace. They speak of the beautifully tragic and sad 'Sea of Conflict, Sea of Reconciliation' and of 'Sea of Peace,' a goal to be achieved, in all sincerity.

LEE Seungmi (Director, Incheon Art Platform)

인천평화선언

"현재 한국은 엄밀히 말해 교전상태입니다(technically at war)." 휴전협정 58주년을 앞둔 인터뷰에서 중립국감시위원회 소속 스위스와 스웨덴의 두 장군은 입을 모아 이렇게 강조했다. 1953년 7월 27일 영구적 종전이 아니라 일시적 휴전으로 정전된 이후 한반도의 불안은 잠재적으로 지속되었지만, 6.25전쟁 60주년에 즈음한 작년 겨울 발발한 연평도 포격은 일상의 평화 속에 숨어 있는 전쟁의 악령을 섬찟하게 폭로하였다. 전쟁과 평화가 쌍둥이라는 새삼스런 실감이 육박했던 작년 이래 한반도는 교전중이다.

이 위기로부터 자유로울 길은 어디에 있는가? 비전(非戰)을 깨뜨릴 유혹에 굴복하지 않을 남북 양 권력의 높은 절제가 무엇보다 요구된다. 무고한 주민마저 죽음에 이르게 한 연평도 사건을 일으킨 북의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한 것이지만, 6.15선언(2000)을 고비로 새로운 구도로 나아가던 남북관계를 대결의 외길로 압박한 현 정부 또한 그 책임으로부터 면제되지 않을 것이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달성한 한국의 지속가능한 생존을 위해서도 적대행위의 유보에 기초한 소극적 평화의 견지는 최저강령 가운데 최저강령이다. 이 바탕에서 전쟁을 유발할 원천 자체를 해소하는 적극적 평화가 모색될 것인데, 그 원천은 무엇인가? 물론 그것은 언제든지 비평화상태로 돌입할 가능성을 품은 채 대치하고 있는 '한쌍의 분단국가'다. 분단체제의 평화적 극복이야말로 오늘의 한반도에 있어서 적극적 평화를 여는 황금의 열쇠다. 적극적 평화를 내다보며 소극적 평화를 실천하고, 역으로 소극적 평화의 견지에서 적극적 평화를 다시 보는 쌍방향성이 제대로 작동될 때 현재 우리가 직면한 곤경으로부터 탈출할 길이 간신히 마련될 것이다.

이에 인천이 나섰다. 정부가 머뭇거리면 시민이 먼저, 서울이 주저하면 지방이 먼저, 정성스런 마음으로 평화의 노둣돌을 놓을 일이다. 분쟁의 섬들을 품은 인천에서 예술가들이 모였다. 탈냉전시대의 도래와 함께 그동안 엄격히 분절된 서해가 서서히 그리고 급속히, 촘촘한 교류의 바다로 변신하는 자태를 목격하면서 우리는 아직 저주가 풀리지 않았음을 잠간 잊었다. 연평도 포격은 달콤한 망각을 일거에 흔들었다. 아, 서해에는 아직도 금[線]이 있다. 예술가들이 꾸는 서해의 꿈, 바다에는 금이 없거늘, 금이 없는 무등(無等)의 세상, 그 황홀한 해시(海市)를 다시 몽상함으로써, 평화에 대한 거부가 내장된 '한쌍의 분단국가'를 넘어 일체의 적대행위가 종식된 영구평화의 공화국, 그 '목적의 나라'로 출범하는 멋진 항해를 시작한다.

최원식 기초, 2011. 7. 7

Incheon Peace Declaration

"Korea is still technically at war." Two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NNSC) generals of Switzerland and Sweden stressed during an interview prior to the 58th anniversary of Korean Armistice Agreement. Since entering into a temporary rather than lasting armistice on 27 July 1953, the potential tension in the Korean peninsula lasted until the 60th anniversary of the June 25th Korean War. The bombing of Yeonpyeong Island last winter chillingly revealed the demon of war that was hidden in peaceful everyday life. Since last year, the Korean Peninsula remains under conflict as many were reminded that war and peace are two sides of the same coin.

Is there a way to be free of this crisis? Above all, both North and South Korean governments must show strong reserve that neither side will falter and be seduced into breaking the no war state. The actions of North Korea regarding the Yeonpyeong Island incident that resulted in the deaths of innocent islanders are inexcusable, but the politics of the current South Korean government that pressured the new North-South relations since the 6.15 Declaration (2000) into one of conflict must also be held accountable. For our continuous survival as a nation that stood from the ruins of war and achieved democracy and industrialization, preventing acts of violence in the form of negative peace is the minimal of all minimalist action. Under this premise, resolving the fundamental aggravator for war is the positive approach to peace but what is the aggravator? Without a doubt the aggravator is the 'divided nation' in conflict, with the potential for violence at any moment. The fundamental key to positive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is peacefully overcoming the system of division. Only when we are actively able to practice negative peace with a positive peace perspective and vice versa, will we be able to find an escape from the predicament we face.

Accordingly, Incheon has decided to take a stand. If the government hesitates, it's up to the citizens to take the first step. If Seoul City holds back, the regional city will act with due sincerity and lay the stepping stone for peace. Artists have gathered at Incheon and its islands of conflict. As we witness the arrival of the post-Cold War era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divided Western Sea (Yellow Sea) into a complex sea of exchange, we temporarily forget that the curse remains unbroken. The Yeonpyeong Island bombing shook us awake from our sweet oblivion. In the Western sea, the line of division still exists. However in the dreams of artists, there are no lines dividing the sea. A world with no lines, no division of class nor hierarchy. As we once again dream of the breathtaking sea mirage, we must overcome our plight as a 'divided nation' where denial of peace is implied, toward a republic of lasting peace where all hostilities have ceased. We must set sail as a 'nation of purpose' and begin our voyage.

CHOI Wonsik, 7 July 2011

서해5도 대장정

항해의 깃발을 세우다

2011년 7월 22일에 시작되어 8월 28일까지 계속되는 제1회 인천평화미술 프로젝트 분쟁의 바다 화해의 바다展은 인천문화재단이 주관하고, 인천아트플랫폼이 기획한 특별 전시이다. 올해 초부터 '평화'를 주제로 한 전시의 필요성과 추진 방안에 관한 논의가 재단과 아트플랫폼 내부에서 꾸준히 개진되었다.
이종구 교수의 말대로 '평화는 예술가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주제라는 점'에서 전시 추진의 타당성은 이미 확보된 상태인데다, 지난 해 인천의 바다, 서해에서는 안타깝게도 북한과의 충돌이 두 차례나 있었다. 예술가들은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싶어 했고, 재단과 인천아트플랫폼은 그 발언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번 전시의 큰 그림을 그려 온 인천아트플랫폼 이승미 관장은 평화에 관한 전시가 해당 주제를 드러내는 기존의 작품들을 끌어 모으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왔다. 작품 창작 이전에, 아픈 상처의 현장인 백령도와 연평도, 인천의 바다와 섬을 직접 가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차, 인천관광공사에서 백령도와 대청도 팸투어를 진행한다는 소식을 접했고, 이승미 관장은 적극적으로 예술가들이 투어에 참여할 것을 추천하여 예술가들의 섬 답사를 성사시켰다.

출항

인천관공공사의 주관으로 예술가들과 함께 처음 백령도와 대청도를 찾은 것은 채 겨울의 추위가 가시지 않은 3월 말이었다(2011년 3월 24에서 26일까지). 살랑살랑 봄기운과 쌀쌀맞은 한기가 세를 겨루던 시기, 평화를 바라는 예술가들은 앞으로의 항해가 어떤 모습일지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웠을 테지만, 책임감에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잔잔한 바다의 아름다운 태양빛과 평화롭게 노니는 바다생물은 물론 천혜의 비경도 만날 터이고, 파고 높은 격랑과 암초도 경험할 터였다.
회상해 보건대, 우리의 출항선은 변덕 심한 바닷길에서 길을 잘 잡았고, 분쟁을 넘어서 화해의 바다라는 바라던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다.

첫 번째 백령도/대청도 투어에 인천아트플랫폼 추천작가들이 약 20명 정도 참여하였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평화'에 관한 전시를 하겠다는 큰 맥락만 있었지, 방식이나 참여작가 리스트, 규모가 정해진 상태는 아니었다. 오히려 아트플랫폼은 성급히 세부 내용을 결정하기 전에 예술가들의 시선에 기대 보기로 하고 평화라는 논쟁의 중심에 있는 백령도를 비롯한 서해5도를 방문하기로 한 것이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예술가들과 함께한 첫 번째 백령도/대청도 투어는 우연인 듯 시작되었지만, 향후 전시의 가닥을 잡고 상을 그려나가는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였다.

3월의 섬 답사 후, 본격적인 전시 추진에 앞서, 인천아트플랫폼에서는 예술계의 목소리와 의견을 진중히 들어보고자 '전시 자문 및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다. 1차 회의는 2011년 4월 18일에 열렸으며, 서양화가 이종구, 정정엽, 박인우가 참석하였다. 이승미 관장을 포함하여 임시로 조직된 운영위원회는 인천아트플랫폼이 작성한 전시 기획서와 답사 보고서를 검토하였다. 이에 따라 전시의 주제와 방향성에 관한 자문으로 '서해의 바다라는 서정적 측면에 인문지리적 특성을 보강하고, 평화의 관념적 측면까지 담아내어 이슈화가 가능한 전시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었다. 시각예술 뿐 아니라 인문학자를 포함한 전시자문 및 운영위원을 추가로 위촉하여 총7인(김창수, 박인우, 이종구, 정정엽, 차기율, 최원식, 홍선웅)으로 완결된 운영위원회를 조직하도록 하였으며, 전시에 참여할 만한 작가들의 명단 약 60여명을 1차로 추천하였다.

이후, 5월 중순 경, 1차 백령도/대청도 답사에 참가하지 못한 작가들을 중심으로 2차 답사를 추진하였으나, 바다가 늘 친절한 것은 아니었다. 궂은 기후 탓에 선박 통제에 걸리기를 몇 차례, 새벽에 선박 운항 취소 사실을 문자와 전화로 통보하던 상황들이 새록새록 기억난다.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고 오다가 다시 돌아가야 했던 작가들, 멀리 제주도에서 오다가 공항도 못 빠져나오고 다시 발길을 돌렸던 작가께는 다시금 미안하다.

우여곡절 끝에 2차 답사(2011.05.15~16)를 마치고 2차 자문 및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연평도 답사(5월 20일)가 추진되기 직전인 5월 18일이었다. 7인의 운영위원과 1인의 언론계 인사(우수홍 경인일보 사업부장)가 참석하여 전시 추진에 대한 경과보고를 듣고, 참여작가 리스트를 최종 검토하였으며, 향후 연평도 답사 계획과 전시 추진 일정 등을 확인하였다. 특히 전시 제목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였으나,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여 좀 더 숙고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 덧붙여 '평화선언문' 발표를 통해 이번 행사의 근간을 마련하기로 하였고, 작성과 발표를 최원식 문학평론가(인하대 교수)에게 의뢰하기로 하였다. 백령도가 고향인 박충의 작가에게 현장 작업을 의뢰하기로 결정한 것도 이 때였다. 홍보 전략 및 해외작가의 참여에 대한 고언도 빠뜨리지 않았다.

이틀 뒤(5월 20일) 연평도 답사가 추진되었고, 안개가 짙어 기상 상황은 좋지 않았다. 하지만 예술가들은 짧은 시간 섬을 답사하는 동안, 주민 인터뷰도 하고, 스케치 촬영도 하는 등 분주히 움직였으며, 날씨에 큰 불만을 갖지 않았다.

이제, 사전 준비는 모두 마무리 되었다. 아트플랫폼은 작가들에게 이렇고 저런 작품을 해달라고 그 어떤 주문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작가들의 영감과 재능을 믿고 기다리기로 하였다.

항해

현장 답사를 통한 전시 구성을 진행해 본 적이 없던 나는 사업담당자로서 섬 답사가 단순 관광이나 기행 정도로 끝날까 의구심이 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전시 개막일이 다가 오고 창작 현황을 파악하던 중 나의 걱정이 얼마나 한심한 기우인가를 어렵지 않게 깨달을 수 있었다. '평화'라는 가치와 당위성에 동의하고, 같은 시간 동안 같은 장소를 다녀온 작가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멋진 작품들을 보여주었는지, 전시 디스플레이를 위해 작품을 받던 그 때의 감동과 환희를 잊지 못할 것 같다. 유화, 수채화, 수묵화 등 회화의 표현 기법은 다양했고, 사진, 영상, 설치 등 매체의 한계는 없었다.

시각예술분야 54인의 출품작을 내용별로 분류해 보자면,
우선, 섬 답사를 통해 다시 한 번 인지하게 된 백령도, 대청도 그리고 바다의 비경을 그린 작품들이 있다. 이 작품들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다. 평화롭고 순도 높은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섬들의 자연 풍광은 인간이 만들어낸 분쟁의 흔적과 역사의 상처를 더욱 강조하는 아이러니의 장치이기 때문이다. 풍경을 실경으로 그린 것을 포함하여 나름의 추상적 기법으로 표현한 작품들도 있다. (공성훈, 김성호, 김지원, 김현철, 도로시 디온, 박흥순, 송필용, 이인, 정정엽, 하성흡)

작품을 통해 드러나는 인물들의 모습도 흥미롭다. 사실, 주민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군인들과 군사시설들의 존재가 없었다면, 백령도나 연평도의 풍경에서 남북한의 분쟁 사실을 감지하기 어렵다. 주민들의 생활은 파고에 영향을 받을 뿐 평화롭고 잔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섬 사람들의 평화로운 일상을 담은 박충의의 작업들은 그 따뜻한 시선과 진지한 태도에 감동받지 않기가 어렵다. 박충의 작가가 백령도가 고향이라는 개인적 연관성 때문에 전시에 참여하게 된 것처럼, 최정숙은 아버지의 땅(고향)이 백령도라는 인연으로 백령도의 풍광을 작가 특유의 기법으로 표현한 작품을 출품하였다. 이탈 작가는 굴 따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노동 모습을 담아 평화를 이야기한다. 반면 고찬규, 류성환의 인물화는 섬을 삶의 기반으로 하는 사람들의 복잡한 심경을 쓸쓸한 감성으로 표현하였다.

갈등의 접경지대로 인식되어 온 서해5도 해역의 지정학적 상황을 독해하고 예술작품으로 표현하는 데 남북한의 관계, 전쟁과 갈등의 요소가 빠지기 어렵다. 좀 더 정치적 맥락에서 접근한 작품들의 형식이 사진, 영상, 설치 등 멀티미디어라 부르는 것들이 많다는 것은 특이할 만하다. 하지만 정치성의 수위나 표현 방법이 매우 상이하여 전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있다. 천안함, 연평도 사건과 그 현장, 군사 시설물이나 관련 모티프를 활용한 작품들이 해당된다. (강혁, 김태은, 김태준, 배진호, 오석근, 이명복, 이세현, 이용백, 이윤엽, 이종구, 타케시 모로, 허용철, 홍선웅)

최원식 교수가 '인천평화선언'에서 말한 대로, 전쟁의 종식이나 분단체제의 극복은 평화의 개념을 소극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평화'라는 당위성에 대해 특정 사건이나 특정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대의적이고 광의적으로 해석한 작품들 역시 이번 전시의 큰 의미를 되새기게 해준다. 예술가들은 화해와 용서, 공존과 상생, 범인류적 평화를 바라마지 않는다. (김영옥,김종오, 김주호, 김형기, 박인우, 박진화, 성효숙, 이부록&안지미, 정평한, 조습, 차기율, 최병국, 한원석, 홍지윤)
이 외에, 5인의 문학분야 예술가들이 시와 에세이를 출품해 주었다. 특히 최원식 교수는 '분쟁의 바다 화해의 바다'라는 전시의 최종 명칭을 확정해 주었고, '인천평화선언'이라는 명문을 작성하고 발표하여 전시에 무게감과 깊이를 더해 주었다.

회항 – 다음 번 출항을 준비하며

나는 '분쟁의 바다 화해의 바다' 전시가 예술가들과 함께한 서해5도 대장정의 끝이자 마무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의 프로젝트는 전시를 통해 정점에 달했고, 이제 힘겹게 오른 비탈길을 조심히 내려오는 일이 남았다. 평화의 의미를 잊지 않는 것, 모두와 함께 평화를 누리도록 우리의 의식을 늘 일깨우는 것, 그리하여 모든 인류가 평화롭게 상생하고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이번 전시에 함께한 예술가들의 염원이기 때문이다.
이번 인천평화미술프로젝트가 내년에도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되어 아름다울 미(美)자를 쓰는 미술의 다양한 의미를 지속적으로 전달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

이번 '제1회 인천평화미술 프로젝트 분쟁의 바다 화해의 바다'에 함께해 주신 모든 예술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름다운 주제로 함께했던 토론과 논의의 순간, 전시 개막일이 다가올수록 높아지던 긴장의 순간, 창작의 결과물을 보고 환희하던 순간... 모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현장 답사와 함께하는 전시 기획의 방식을 알려주신 인천아트플랫폼 이승미 관장님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고 느낄 수 있었던 의미 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쟁의 바다 화해의 바다'를 보러 와주신 인천시민을 비롯한 모든 관람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인천과 서해가 평화와 협력의 지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모든 분들의 행복과 평안을 기원하겠습니다.

비가 심술궂게 내리던 2011년 8월
이영리 (인천아트플랫폼 큐레이터)

The Long Journey of the Five West Sea Islands

Raising Sails for the Voyage

The '1st Incheon Peace Art Project - Sea of Conflict, Sea of Reconciliation' exhibition (22 July 2011 - 28 August 2011), is a special exhibition hosted by Incheon Foundation of Arts & Culture, and planned by Incheon Art Platform. Since earlier this year, discussions took place between the Foundation and Art Platform on the need for an exhibition on 'peace' and plans were underway.

Prof. Jonggu Lee succinctly stated that 'peace is a topic universally sought after by artists.' The need for such exhibition was already existent but the two collisions with North Korea last year in the West Sea exacerbated it further. Artists wanted to enthusiastically express themselves, and the Foundation and Art Platform felt obligated to create a forum to help the artists speak out.

As Director of Incheon Art Platform who overlooked this project, Seungmi Lee believed collecting works on peace was not enough. She contemplated visiting the painful sites of Beangnyeong Island, Yeonpyeong Island, and Incheon's islands and sea as a prerequisite to creating the works. Upon learning that Incheon Tourism Organization was organizing a familiarization tour ("famtour") of Beangnyeong and Daechung islands, she succeeded in organizing tours for artists to explore the islands.

Departure

Host by Incheon Tourism Organization, we first visited Beangnyeong and Daechung islands with the artists in late March (24-26 March 2011). The weather was still chilly, as the inkling of gentle spring weather wrestled with freezing chills of winter. Though the peace desiring artists may have been delighted at the prospect of their future voyage, their hearts were weighed down with responsibilities. They were likely to experience beautiful sunlight on calm seas and peacefully frolicking sea life, just as much as they were to experience the unexplored gifts of nature under adversity, and the high raging waves and reefs.
In retrospect, our vessel managed to find a safe route in the erratic seas, overcoming conflict to a sea of reconciliation arriving at our desired destination.

Around twenty artists, recommended by Incheon Art Platform, participated on the first Beangnyeong/Daechung Island tour. Up to this point, we only had a broad outline for an exhibition on peace but had no plans on the methods, no list of participating artists, or even the scale of the exhibition. Instead of hurriedly deciding on the execution details, Incheon Art Platform decided to rely on the visions of artists and made plans to visit Beangnyeong Island that lay at the center of the peace controversy, and the five West Sea islands. The first Beangnyeong/Daechung Island tour began as if on a coincidence, but was instrumental in deciding the direction of the exhibition and mapping out a broad execution plan.

After the March island field trip and prior to fully pursuing the exhibition, Incheon Art Platform organized an 'exhibition advisory & management committee' to listen and respectfully seek the advices and opinions of the art community. The first meeting, held on 18 April 2011, was attended by western style artists Jonggu Lee, Jungyeob Jung, and Yeenwoo Park. The provisional committee including Director Seungmi Lee, reviewed Incheon Art Platform's exhibition plan and the field trip report. On the theme and direction of the exhibition, the committee advised on reinforcing the poeticism of the West Sea with anthrogeographic features and including the idealistic aspects of peace to make the exhibition more publicized. Accordingly a panel of seven specialists including a visual artist and an anthropologist were appointed for a more comprehensive structuring of the exhibition advisory & management committee (Changsu Kim, Yeenwoo Park, Jonggu Lee, Jungyeob Jung, Kiyoul Cha, Wonsik Choi, Seonwung Hong). The committee also recommended sixty candidates to participate in the exhibition.

Around mid May, plans for a second tour to visit Beangnyeong/Daechung Island were in motion for artists who couldn't participate in the first tour, but the sea was not always so kind. Due to harsh weather conditions, the ships were prohibited from sailing on several occasions and I can't help but remember phoning and texting artists of the cancelled tours during the early morning hours. Artists arriving from Seoul via subways had to turn back, as well as artists arriving from as far as Jeju Island had to fly back without even stepping out of the airport. I am again apologetic for their plight.

Despite everything, we completed the second field trip (15-16 May 2011) and held the second advisory and management committee meeting. It was on May 18th just prior to pursuing the Yeonpyeong Island trip (20 May 2011). Seven committee members and one media figure (Suhong Wu, Director at Kyeongin Ilbo) attended to be apprised of the exhibition progress report. They reviewed the list of participating artists, and noted future Yeonpyeong Island tour schedules as well as forthcoming exhibition plans. There was much debate over the exhibition title but the committee could not reach an agreement and it was agreed that more deliberation time was required. It was furthermore agreed that the foundation for this event would be set with the announcement of a 'Peace Declaration' and the committee agreed to commission literary critic Wonsik Choi (professor, Inha Univ.) for the content and declaration. It was also at this time that the committee agreed to commission Beangnyeong Island native artist Chungeui Park for an on-location piece. They also candidly advised on marketing strategies as well as foreign artist participation.

The Yeonpyeong Island tour took place two days later (20 May). The weather conditions weren't ideal with heavy fogs but the visiting artists weren't fazed and during their brief stay, they managed to busily move around interviewing residents, and taking photographs for their sketches.

Now all preparations were complete. Incheon Art Platform did not make any demands on the artists and decided to wait and trust their visions and talents.

Voyage

As a first time project manager using onsite tours to organize the exhibition, I had my misgivings that the island tours may simply end up as a sightseeing gimmick or a fun tour. However, as the exhibition opening loomed, I came to realize that my worries were in vain once I reviewed the creative progresses. I will never forget

how moved and overjoyed I was upon receiving the display pieces for the exhibition. Artists, who agree on the value and appropriateness of 'peace' and who have all visited the same place at the same time, came back and submitted diverse and impressive work. Various techniques such as oil paintings, watercolors, ink-and-wash paintings, etc. were implemented and through photographs, videos, installation art, etc. they showed that medium possibilities were endless.

The entry pieces of the 54 visual art artists can be classified by content. First, there are pieces that depict the untraveled landscape of Beangnyeong Island, Daechung Island, and the West Sea. They are not just simple landscapes. The peaceful sheer beauty of the Islands is a mechanism that ironically emphasizes traces of conflict by mankind and wounds of history. There are pieces that drew from nature but include abstract techniques as form of expression. (Sunghun Kong, Sung Ho Kim, Jiwon Kim, Hyunchul Kim, Dorothy Deon, Heung-soon Park, Phil Yong Song, In Lee, Jungyeob Jung, Sungheub Ha)

The depictions of characters in the pieces are also interesting. In truth, if the military and its facilities did not coexist with the island inhabitants, it would be difficult to sense North-South conflict in the Beangnyeong Island or Yeonpyeong Island landscapes. The lives of the islanders are calm and serene, only to be affected by high waves. It is difficult not to be moved by the works of Chungeui Park who captured the peaceful daily lives of islanders in a warm yet sincere perspective. Like Beangnyeong Island native artist Chungeui Park who participated in this exhibition for personal reasons, artist Jeongsook Choi submitted a characteristic landscape piece of Beangnyeong Island because it was the home of her father. Artist Tal Lee chose a scene of oyster harvesters to voice the message of peace whereas artists Chan Gyu Koh and Seong Hwan Ryu's portraits melancholically depict the complicated emotions of the native islanders.

It is difficult to leave out North-South relations and the aspects of war and conflict when comprehending the geopolitics of the five West Sea island waters, border to conflict zone, into a work of art. Interestingly enough, many submitted pieces with political perspectives were in the form of multimedia, i.e. photographs, videos, installation art, etc. However the level of political ideals and methods of expression differ significantly from artist to artist making the exhibition more diverse and interesting. Works using Cheonan Warship, Yeonpyeong Island incident and scenery, military facilities as their motif fall into this category. (Hyuk Kang, Tae-eun Kim, Tae Jun Kim, Jin-ho Bae, Suk Kuhn Oh, Myoung Bok Lee, Seahyun Lee, Yongbaek Lee, Yun Yop Lee, Jong Gu Lee, Takeshi Moro, Yong Cheul Heo, Seonwung Hong)

As stated by Prof. Wonsik Choi in the 'Incheon Peace Declaration,' the cessation of war or overcoming Korea's division system is a negative interpretation of peace. Works with broad and representative interpretations of the appropriateness of 'peace' that has not been limited to certain incidents or locations, encourage viewers to reflect on the big meaning of this exhibition. Artists show their sincerely hope for reconciliation and forgiveness, coexistence and cohabitation, and international peace for mankind alike. (Young Ok Kim, Jong-oh Kim, Joo Ho Kim, Hyoung Ki Kim, Yeen Woo Park, Jinhwa Park, Hyo Sook Sung, Boorok Lee & Jimi An, Pyung-Han Chung, Sueb Jo, Ki-Youl Cha, Byung-kuk Choi, Wonsuk Han, Jiyoon Hong)

Five literary artists also submitted poems and essays for this exhibition. Prof. Wonsik Choi, especially, finalized the exhibition title to 'Sea of Conflict, Sea of Reconciliation' and wrote and announced a well written 'Incheon Peace Declaration' giving weight and depth to the exhibition.

Return - Preparing for the Next Voy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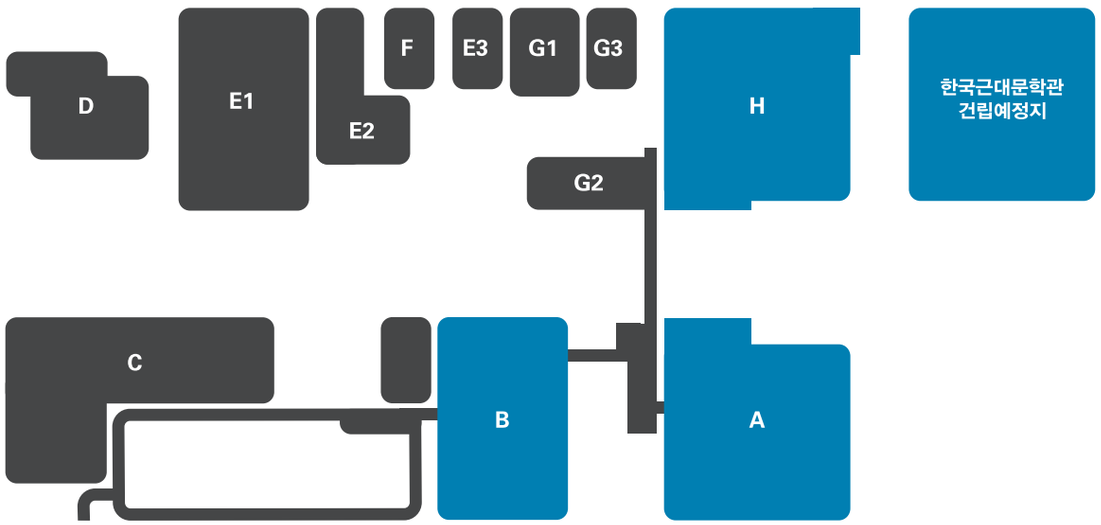
I don't believe that the 'Sea of Conflict, Sea of Reconciliation' exhibition is the end of the journey with artists to the five West Sea islands. In fact, I believe that our project reached its peak with the exhibition and must now carefully make our way down the difficult uphill road. The artists of this exhibition only want to make sure that the meaning of peace is not lost, to awaken our consciousness so that we live together in peace, and to create a society of peaceful cohabitation and coexistence.
I sincerely hope that the Incheon Peace Art Project continues next year and onwards and that we continue to relay the meaning of beauty in art.

—

I'd like to thank all the artists who participated in the 1st Incheon Peace Art Project– Sea of Conflict, Sea of Reconciliation. Being part of the discussions and debates of such a beautiful topic, feeling apprehensive as the exhibition opening loomed, the elation at seeing the creative results... they were all happy memories that I will forever hold dear.
I'd also like to thank Seungmi Lee, Director of Incheon Art Platform, for her guidance on the field trip exhibition planning methods. It was a time of great learning and meaning for me.
Lastly, I'd like to thank the citizens of Incheon City as well as visitors who came to the 'Sea of Conflict, Sea of Reconciliation' exhibition. We hope that you will assist in turning Incheon and the West Sea into an area of peace and collaboration.

I wish you all peace and happiness.

On a pouring day in August (2011)
LEE Young-ri (Curator, Incheon Art Platform)



작품 배치도

A동

김성호 KIM Sungho
도로시 디온 Dorothy Deon
박충의 PARK Chungeui
여 운 YEO Un
오석근 OH Sukkuhn
오시은 OH Sieun
유지환 YOO Jiwhan
이세기 LEE Seki
이이남 LEE Leenam
최병국 CHOI Byungkuk
타케시 모로 Takeshi Moro

B동 F1

고찬규 KOH Changyu
공성훈 KONG Sunghun
김지원 KIM Jiwon
도지성 DHO Jisung
박충의 PARK Chungeui
서용선 SUH Yongsun
송필용 SONG Philyong
이세현 LEE Seahyun
이용백 LEE Yongbaek
이윤엽 LEE Yunyop
이종구 LEE Junggu
허용철 HEO Yongcheul
홍지윤 HONG Jiyoon

B동 F2

강 혁 KANG Hyuk
김광성 KIM Kwangsung
김성호 KIM Sungho
김영옥 KIM Youngok
김현철 KIM Hyunchul
박충의 PARK Chungeui
박흥순 PARK Heungsoon
성효숙 SUNG Hyosook
정정엽 JUNG Jungyeob
정평한 CHUNG Pyunghan
조우치 Zhou Qi
조 습 JO Seub
오석근 OH Sukkuhn
이명복 LEE Myoungbok
이부록 & 안지미 LEE Boorok & AN Jimi
최정숙 CHOI Jungsook
쑨광화 Sun Guanghua
허원주에 He Wenjue
홍선웅 HONG Seonwung

H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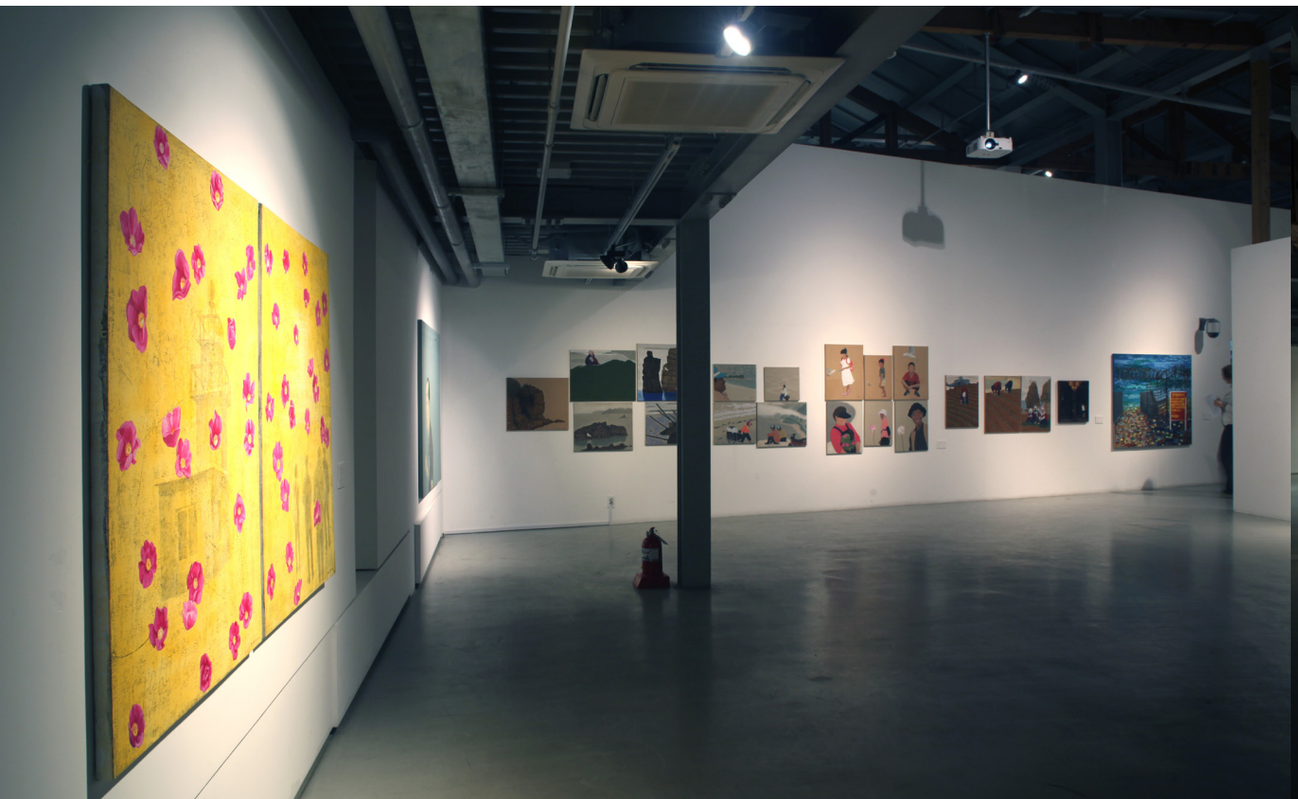
송필용 SONG Philyong
이 인 LEE In
최정숙 CHOI Jungs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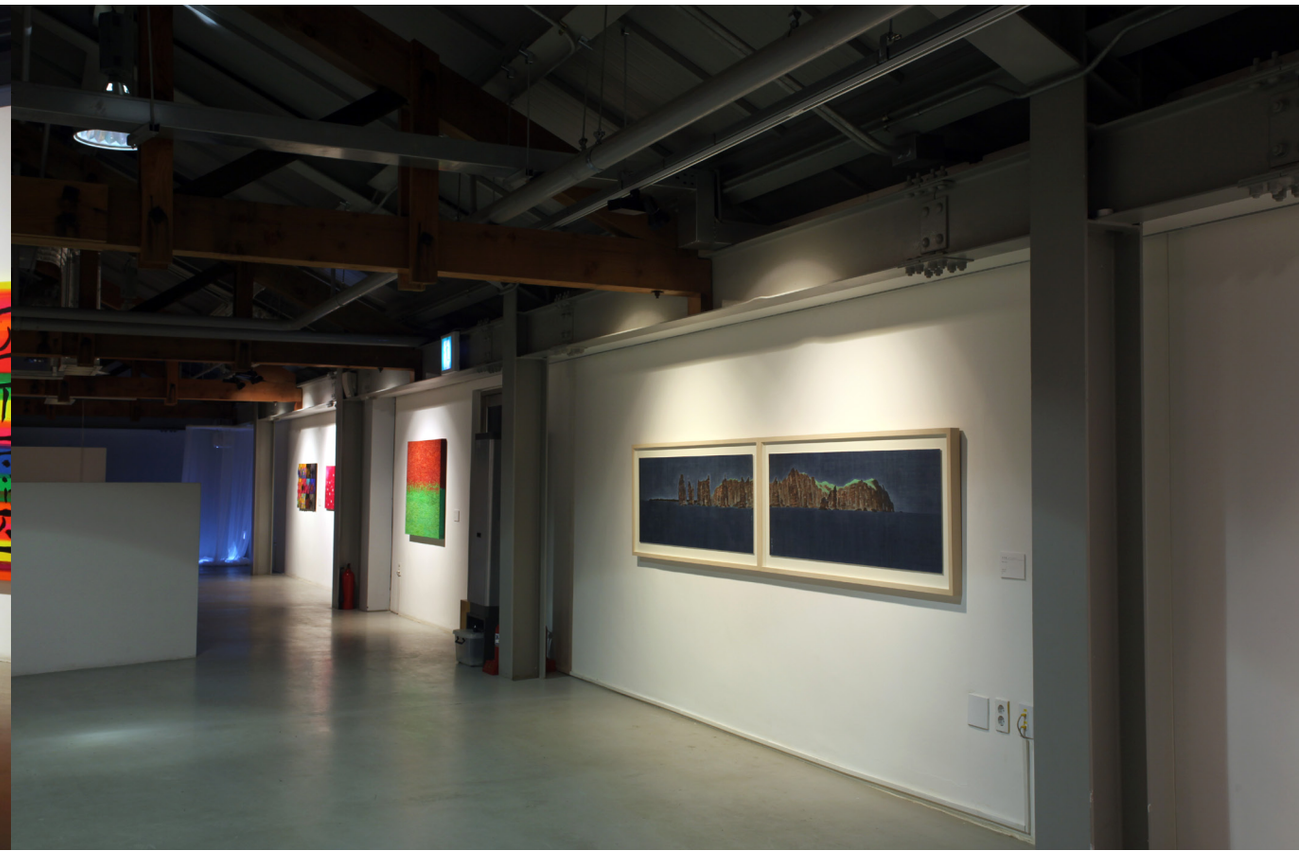
한국근대문학관 건립 예정지

김종오 KIM Jongoh
김재화 KIM Jaehwa
김태준 KIM Taejun
김태은 KIM Taeeun
김형기 KIM Hyounggi
류성환 RYU Seonghwan
박인우 PARK Yeenwoo
박진화 PARK Jinhwa
배진호 BAE Jinho
윤석남 YUN Suknam
이이남 LEE Leenam
이 탈 LEE Tal
차기율 CHA Kiyo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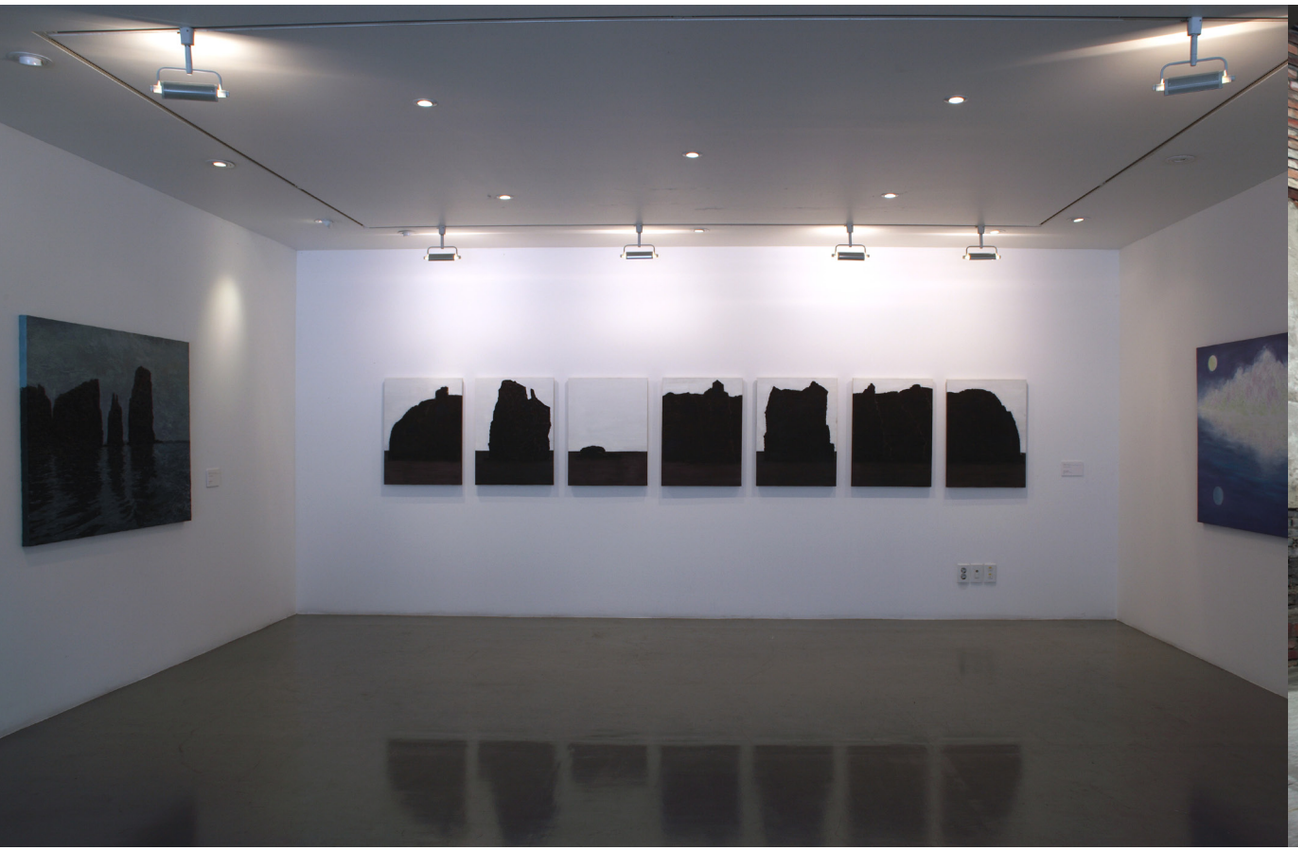
A동

B동





H동 / 한국근대문학관 건립 예정지



시각예술 54인

강　혁 KANG Hyuk
고찬규 KOH Changyu
공성훈 KONG Sunghun
김광성 KIM Kwangsung
김성호 KIM Sungho
김영옥 KIM Youngok
김재화 KIM Jaehwa
김종오 KIM Jongoh
김주호 KIM Jooho
김지원 KIM Jiwon
김태은 KIM Taeeun
김태준 KIM Taejun
김현철 KIM Hyunchul
김형기 KIM Hyounggi
도로시 디온 Dorothy Deon
도지성 DHO Jisung
류성환 RYU Seonghwan
박인우 PARK Yeenwoo
박진화 PARK Jinhwa
박충의 PARK Chungeui
박흥순 PARK Heungsoon
배진호 BAE Jinho
서용선 SUH Yongsun
성효숙 SUNG Hyosook
송필용 SONG Philyong
쑨광화 Sun Guanghua
여　운 YEO Un
오석근 OH Sukkuhn
유지환 YOO Jiwhan
윤석남 YUN Suknam
이명복 LEE Myoungbok
이부록 & 안지미 LEE Boorok & AN Jimi
이세현 LEE Seahyun
이용백 LEE Yongbaek
이윤엽 LEE Yunyop
이이남 LEE Leenam
이　인 LEE In
이종구 LEE Junggu
이　탈 LEE Tal
정정엽 JUNG Jungyeob
정평한 CHUNG Pyunghan
조　습 JO Seub
조우치 Zhou Qi
차기율 CHA Kiyoul
최병국 CHOI Byungkuk
최정숙 CHOI Jungsook
타케시 모로 Takeshi Moro
하성흡 HA Sungheub
한원석 HAN Wonsuk
허용철 HEO Yongcheul
허원주에 He Wenjue
홍선웅 HONG Seonwung
홍지윤 HONG Jiyoon

무지개 우산 (RAINBOW UMBRELLA)

연평도 답사 중에 발견된 무지개 빛 우산 하나. 검게 그을려 원래 형상을 유추하기 힘든 폐허 속 한쪽 구석에 찢겨져 누워 있었다. 온통 회색빛의 을씨년스런 이곳 현장과는 너무 대조적으로 아름다운 이 우산은 비처럼 쏟아졌던 그날의 포격에 속절없이 무너져간 따뜻한 희망의 빛처럼 보였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현재진행형의 공포는 그 어떤 낙관적 미래관도 한순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태로움으로 존재한다. 인간의 어리석음은 그 어떤 가치 혹은 구호보다도 강한 것인가? 과연 나는 이 아름답던 우산을 다시 펼쳐놓을 수 있을까?

66일간의 상처 (66 days of hurt)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부터 제국주의의 정치적 편의에 의해 만들어진 38선이 현재까지 66년을 이어오고 있다. 본 작품은 66일간의 상처를 안고 사라져가는 존재에 대한 기록이다. 상처를 안고 사라져가는 존재의 허무와 유한성을 보여줌으로써 상처-분단의 아픔과 정치적 입장 이상의 반성적(인류의 어리석음에 대한) 인식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강혁 | KANG Hyuk

학력

인천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과 석사 졸업
인천대학교 미술학과 졸업

수상

2010 제7회 부산 국제 비디오 페스티발 공모 선정
2009 제8회 한성미술대상전(서울 예송미술관) 장려상 수상
2008 인천문예진흥기금 시각예술분과 지원 선정
2006 인천문예진흥기금 시각예술분과 지원 선정
2006 제31회 창작미술대전(세종문화회관) 특선 수상

기타(작품 소장 및 레지던시 등)

- 작품 소장
  부산시립미술관 소장품구입 공모 당선 - 'self portrait'
  인천문화재단 미술은행공모 당선 - 'rain'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공모 당선 - 'stream'

주요 개인전

2010 초대전 '자연 그리고 존재' (헤이리 이레갤러리)
2010 초대전 '존재 그리고 시간' (인천 구올담갤러리)
2009 개인전 '은유적 자연성' (인천아트플랫폼)
외 다수

주요 단체전

2010 제7회 부산 국제 비디오 페스티발 (부산 시청자 미디어센터)
2009 대한민국 인천여성비엔날레 조율전 (인천아트플랫폼)
2006 터키-인천 현대미술 국제 교류전 (인천문화예술회관)
2004 서울-첼시 교류전 (미국 뉴욕 첼시)
2004 터키-인천 현대미술 국제 교류전 (인천문화예술회관)
외 다수

무지개 우산 RAINBOW UMBRELLA_디지털 프린트, 오브제_59.4×84.1cm_2ea_2011

66일간의 상처 66 days of hurt_디지털 프린트, HD 영상 _59.4×84.1cm_2011

답사 후기 중에서...

인천아트플랫폼에서 7월에 개막할 평화의 바다전(가칭)을 위한 사전 답사를 다녀왔다. 인천에 살고 있는 나로서도 잊고 있던, 몸으로 체감되는 공포와 울분을 만났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 된 것일까? 38선이 그어진 것이 제국주의의 망령에 의한... 미소 강대국을 중심으로 정치적인 편의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곱씹어보면 허망하기까지 하다.
6.25가 발발하기 전 이미 우리의 허리는 두동강이 났다. 덧없는 세월은 가고 이념은 또 다른 헤게모니로 넘어갔지만 우리가 우리를 서로 할퀴고 있는 지금까지의 사태는 아직도 동족에게 깊은 상처와 불신을 재생산 하고 있다.
아파야 하고 쓰려야 하고 그렇게 기억에 각인해야 한다. 그 기억에는 올바른 역사적 속내와 깊은 성찰 그리고 나를 향한 반성까지를 포함해야 할 것이다. 어떤 해결의 지점은 칼날이 맞대어진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현명한 현실 판단과 정치적 논리를 위시한 힘의 균형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상처 이면의 근저를 공유해야 한다. 그들과 나와 우리와...

연평별곡 (Unrhymed Yeonpyeong Island)

미처 동이 트기도 전에 새벽잠을 뒤로하고 어부들은 바다로 향한다.
평생을 자신이 태어난 작은 섬을 삶의 터전으로 여기며, 늘 같은 자리에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온 그들의 삶은,
자연에 순응한 채 일상을 대하고 자신의 삶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모습인 것이다. 이들의 모습에서 이런저런 일에
떠밀리며 힘겨운 삶을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현대인의 모습을 반추하게 된다.

큰 폭풍이 지나간 서러운 연평은 여전히 안개에 갇혀 있다.

고찬규 | KOH Changyu

학력

중앙대학교 및 동 대학원 졸업

수상

1990 제13회 중아미술대전 우수상 (호암갤러리)

주요 개인전

2010 The road taken (인사아트센터)
2006 삶의 이면 (백송화랑)
2005 모노로그-상실의 시대에서 (상 갤러리)
2004 봄날은 가고 (한전아트프라자)
외 다수

주요 단체전

2011 심해의 도약 (성신여자대학교 미술관)
Art Scope (U.S.A, Newyork)
2010 Korea Contemporary Artist 110 (세종문화회관)
흐르는 강물처럼 (전북도립미술관)
2009 공존-박생광 천경자, 미래와 만나다 (이즈갤러리)
Salzburg Art Fair (Salzburg,Austria)
2008 엄마나라이야기 (경기도 미술관)
외 다수

연평별곡 Unrhymed Yeonpyeong Island_캔버스 위에 아크릴_132×163cm_2011

형제바위라... 남과 북이 마주 보고 있는 곳에 있는 바위의 이름이 형제바위구나!

공성훈 | KONG Sunghun

학력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졸업
서울산업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졸업

기타(작품 소장 및 레지던시 등)

– 작품 소장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금호미술관, OCI미술관,
경기도 미술관, 미술은행, 박수근미술관

주요 개인전

2010 겨울여행 (신세계 갤러리 서울)
2009 공성훈 초대전 (아리랑 갤러리 부산)
2009 겨울풍경 (아트포럼 뉴게이트 서울)
외 다수

주요 단체전

2011 서울, 도시탐색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이미지의 수사학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제1회 인천평화미술프로젝트
분쟁의 바다, 화해의 바다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10 젊은 모색 1981–2010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인터-뷰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Made in Popland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09 남도문화의 보고 : 지리산 (신세계갤러리 광주 & 부산)
My Way, My Works (빛 갤러리 서울)
Blue Dot Asia 2009 (예술의 전당 서울)
외 다수

형제바위_캔버스 위에 유채_183×137cm_2011

김광성 | KIM Kwangsung

수상

2005 대한민국 만화대상 우수상
1983 부산미전 서양화 입선
1982 한국예술전람회 특선
부산미전 서양화 입선
1981 목우회 입선
부산미전 서양화 입선

주요 개인전

2010 흑백영화속의 서울 풍경전 (자인제노초대전)
외 다수

주요 단체전

2008 달 토끼 만화 회원전
외 다수

염원 1, 2, 3 (순서대로)_ 한지에 수묵채색_40×100cm_2011

염원
내 나라건만, 내 겨레건만
안개 속 같은 망망대해
아랑곳 없이 자연은 스스로 그러할 뿐

강토를 위한 장렬한 전사
가슴에 남아 수호신 되어
황해 창파를 떠도는데

병사를 보호하지 못하는 나라란 무엇인가
진리와 정의는 소리 없는 외침일 뿐
지키지 못하면 빼앗긴다

연평바다에 돈 실러 가세

돈실러 가세 돈 실러 가세
연평 바다로 돈 실러 가세
연평바다에 널린 조기
양주만 남기고 다 잡아 들이자
뱀자네 아즈마이 정성덕에
연평바다에 도장원 했네
나갈적엔 깃발로 나가고
들어올 적엔 꽃밭이 되었네
연평장군님 모셔 싣고
연평 바다로 돈실러 가세

(배치기 소리 – 강제윤 '연평도 기행'에서 재인용)

김성호 | KIM Sungho

학력

영남대학교 미술대학 및 대학원졸업

기타(작품 소장 및 레지던시 등)

– 작품 소장
제주현대미술관, 한국콜마, 광주,전남지방합동청사, 미술은행, 해태, 크라운제과, 평택시청,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롯데마그넷, 대검찰청, 대구검찰청, 서산검찰청, 대구백화점, MBC대구방송국, TBC대구방송국, 대구은행, 현대중공업, 남광토건, 한국ABM건설 등

– 레지던시
가나장흥아뜰리에(장흥,2010~), 제주현대미술관(제주,2009)

주요 개인전

제주현대미술관(제주), 선갤러리(서울), 갤러리 원(서울),
박영덕화랑(서울), 동원화랑(대구) 등 26회

주요 단체전

물아와 심수展(가나아트센터), 물 보다 깊은 물展, 이미지의 복화술展
(인터알리아 갤러리), 자연의 신화 제주展(제주현대미술관), 사랑이 머무는 섬_지심
도展(거제문화예술회관), 통영 꿈엔들 잊으리야!(국립현대미술관,
찾아가는미술관, 통영), 청마 유치환의 문학, 그림으로 담다(거제문화예술회관기획),
신화를 삼킨 섬-제주풍광展(제주현대미술관
외 다수

아트페어

KIAF 국제아트페어(선갤러리, 갤러리원, COEX), 싱가폴아트페어
(갤러리원, 싱가폴), 북경아트페어(선화랑, 베이징) 등 25회

새벽-바다_ 캔버스 위에 유채_116.8×80.3cm_2011

분쟁과 분단의 갈등을 넘어 남북이 하나되어 함께 공감하고 함께 꿈꾸며 아픔을 치유하고 화해하는 공간,
분쟁의 바다에서 화해의 바다로 다시 태어나 통일 세상의 행복한 꿈이 들꽃처럼 무성하게 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직은 작지만 점점 커져 언젠가는 큰 통일의 꽃으로 피어나 주기를 염원합니다.

김영옥 | KIM Youngok

학력

우석대학교 동양화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 동양사상문화학과 졸업

주요 개인전

2008 하나아트 갤러리 (서울)
2010 시민갤러리 초대전 (일본)
2010 갤러리 폭스 (인천)
외 다수

주요 단체전

2010 황해미술제 (인천종합예술회관)
상상공간 600리 DMZ전 (수원미술관)
아시아 그리고 쌀전 (전북예술회관)
인천민미협 정기전 (부평아트센타)
외 다수

핀 꽃_ 장지에 채색_85×75cm_2011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30분경, 북한에서 연평도를 향해 170여발의 포격(延坪島砲擊)으로 인해 남한과 북한의 군인 7명이 전사하였으며, 민간인도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남·북 간의 교전 중 민간인이 사망한 사건은 한국 전쟁 이후 이번이 처음으로 국제 사회의 큰 관심을 불러 모았다. 중국을 제외한 각국 정부는 북한의 도발로 규정하여 규탄했으나, 북한은 남한에 책임을 넘기며 정당한 군사적 대응이라고 주장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연평도 주민들이 대부분 섬을 떠나게 되었다는 보도들이 난무하였다.

봄이 된 어느 날, 사건이 일어났던 연평도에 가 보았다. '언제 사건이 있었는가'하는 분위기로 많은 주민들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거리는 복구 작업이 한창이고, 고기잡이 어선은 출항 준비에 바쁘게 움직이고, 밭일을 하는 사람들은 도구를 들고 어딘가로 바삐 움직이는 모습들이었다.

의문점이 생겼다. 그들이 진정 연평도를 떠났는가? 오히려 주민수가 늘어나고, 관광지는 개발되고, 도로정비도 반듯해지고, 관광객들은 늘어나고, 정말 아이러니한 분위기에 잠깐 머뭇거리게 된다.

그들은 돌아갈 곳이 있었다. 다시 돌아 온 것이다. 도시의 자본에 의해 밀려나간 이들은 돌아갈 곳이 없는 입장과는 다름을 느꼈다. 연평도 주민은 다시 갈 곳이 있었다? 아니다! 그들은 정말 가고자 하는 곳을 못가고 있는 것이다. 많은 주민들이 한국전쟁 당시 황해도를 거쳐 내려온 실향민이다. 진정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실향민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었다.

짧은 시간이지만 지역의 한 주민과 대화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영상으로 옮겨 보았다. 본 내용은 연평도 주민의 전체 이야기는 아니고 일부임을 밝힌다.

김재화 | KIM Jaehwa

학력

홍익대학교 회화과 졸업
숭실대학교 미디어학과 석, 박사 졸업

연구프로젝트

2010 대외연구비수주실적제고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2010 문화예술분야 단가조사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요 개인전

2008 Digital Life (부천 아트포럼 리)
2007 Digital Mirror (인천 구올담)
2005 the virtual 과 the reality의 communication을 향하여 (서울 창 갤러리)
외 다수

주요 단체전

2010 교류전. ASIA (亞·世·我) (서울 KUMA)
2010 A4 DEMO (서울 LAB39)
2010 서울문화재단 기획 <싹> (서울 문래예술공장)
2010 doc. (서울 서울산업대학교)
2010 몸을 탐하다 (서울 사간갤러리)
2009 1.09589%展 (인천 구올담 갤러리)
2009 다시, 첫차를 기다리며 (서울 경향 갤러리)
2008 2인전. 김재화와 홍남기의 Shake! Shake Your Body! 展 (서울 W갤러리)
2008 교류전. 서울-동경 6000seconds Art Message 2007 (서울 KUMA 갤러리)
2008 국제전. Media Nomadism (중국 연변예술대)
2008 기획전 "디지탈 표현주의" Double Click (과천 제비울 미술관)
외 다수

Living Stories (인터뷰 00:08:04)_HD 영상_2011

What is the focus of Making a Living stories?
지역주민과의 인터뷰 내용이며, 뉴스와 같은 메스컴과는 다르게 그들의 삶은 생존으로 치열함을 들을 수 있었다. 그들의 생생한 삶에 대한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

Their Lives (Media performance 00:03:14)_HD 영상_2011

They had their homes taken from them by the ideology.
삶의 터전인 공간에서의 미디어 퍼포먼스, 비록 폭격에 의해 공허한 집이 되었지만 다시 올 수 있는 터전이다. 진짜 그들의 터전은 어디일까? 이북에서 온 실향민들의 진정한 터전을 생각하며 퍼포먼스 영상을 만들었다.

Blue Crab War (Media performance 00:04:55)_HD 영상_2011

The aground off Yeon-pyeong Island is now at blue crab war.
서해 갯벌에서의 퍼포먼스, 난 갯벌을 좋아한다. 어려서부터 갯벌을 사랑해 왔다. 연평도 앞바다에도 꽃게전쟁은 끝이 보이질 않는다.

늘 그러하듯 섬마을 바닷가 한적한 해변 – 늦은 오후에 한가로이 물 빠진 바닷가에서 조개를 잡거나 뛰어놀고 있는 아이들의 평화로운 풍경이 정겨워 보인다. 해질녘의 아늑함 속에서 일상의 하루는 또 그렇게 저물어간다.

김종오 | KIM Jongoh

학력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졸업
비엔나 국립미술대학 졸업 동대학원(석사)

경력

1999–2008 국립예술의전당(서초동)아카데미
서원대학교 예술대학 회화과,
주성대학교 및 사회교육원,
상명대교육원, 호서대교육원 출강
現) 한국미술협회, 환경미술협회
인천카톨릭대학교 사회교육원
성신여자대학교 미술대학 출강

기타(작품 소장 및 레지던시 등)

– 작품 소장
인천문화재단 미술은행 작품소장

주요 개인전

2011 제7회개인전 (구올담갤러리 초대전 인천)
제6회개인전 (우리은행 강남갤러리 초대전 서울)
2010 제5회개인전 (미추홀도서관 미추홀터전시실기획전 인천)
제4회개인전 (토포하우스 서울)
2008 제3회개인전 (가온갤러리 기획초대전 인천)
외 다수

주요 단체전

2011 환경 테마전 '반디불이 마을전' (미추홀도서관 미추홀터전시실 인천)
환경 미술 회화제'마음에 담고 싶은 자연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한민국현대미술100인초대전(서울시립미술관 경희궁분관)
한국의 현대미술 회화전 (크로스베이갤러리 호주)
2010 인천–터키현대미술 국제교류전 (벡쉬타쉬 문화회관 이스탐불)
녹색예술제–인천의 아름다운 자연전
(가온갤러리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싱가포르 어포더블 아트페어 (포밀러 원 피트빌딩 싱가포르)
외 다수

해질녘 해변 풍경 Sunset Beach Landscape_캔버스 위에 혼합재료_130.3×194cm_2011

연평포격 현장을 답사한 후의 느낌은 전쟁의 흔적이란 보기가 민망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디를 탓해 잘잘못을 따져 응징과 보복으로 이어지는 전쟁의 습성이 있어서이다.
모든 전쟁의 확산은 이런 공식에서 출발했고 지금도 중동에서는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이런 참혹한 현상이 지구 어디에서 계속 일어남에 따라 평화에 대한 갈망이 상대적으로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번 프로젝트에도 전쟁의 분노 보다는 평화를 갈구하는 현장 연출로 컨셉을 잡는다.
형상연구는 일상의 연장선이 될 수 있는 구도와 해학미를 살려 관람자의 접근성과 친밀도를 높인다.
평화를 좀 더 구체적으로 현재 이랬으면 하는 현장 변경을 시도하여 관람자 스스로 평화카페에서 평화에 동참하는 기회를 갖게 한다.

김주호 | KIM Jooho

학력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및 대학원 졸

기타(작품 소장 및 레지던시 등)

– 작품 소장
국립현대미술관, 대전시립미술관, 소마미술관, 모란미술관, 국립민속박물관, 김포국제조각공원, 직지문화공원(김천),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인천문화재단 미술은행, 인천아트플랫폼

주요 개인전

2010 생생 풍경 (갤러리 가회동 60)
2009 삶의 돋보기 (나무화랑)
2007 흐뭇한 풍경 (갤러리 우덕)
외 다수

주요 단체전

2011 생활의 발견 (부평아트센터)
가만히 들이다 (인천아트플랫폼)
Happy together (롯데갤러리 영등포)
2010 우리들 사는 이야기 (대전 롯데갤러리)
인터_뷰 (인천아트플랫폼)
혜화동인전 (청아갤러리)
2009 牛步萬理 (신세계 갤러리)
Love is rainbow (롯데 갤러리)
해치 퍼레이드 (서울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2009)
외 다수

연평 평화카페_나무, 오브제_220×240×(h)157cm_2011

서해5도

추적거리는 비와 안개 속의 스산한 백령도는 진갈색 풍경 덩어리였다. 날씨 때문이었는지 밝고 명랑한 대청도에서 버스 기사분이 백령도, 대청도에서 잡히는 많은 홍어는 전량 목포로 보내져 원산지가 바뀐다는 일종의 영업 비밀을 태연하고 구수하게 말한다.
안개에 푸욱 절은 연평도에는 육지와의 기온차이 때문에 대추나무 잎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안개 때문에 풍경은 보지 못하였지만 안개비는 얼굴에 더 강렬한 풍경으로 남았다. 연평도에는 80년대 주택개량사업으로 지어진 듯한 비슷한 모양의 양옥집들이 세트장 같다. 그것은 마치 과거 사회교과서에서 본 것 같은 계몽적인 모습이다. 폭격 맞은 마을 빛 바랜 옥색 담벼락에는 파편이 시멘트를 상처 내 은하수 같은 추상화를 만들어 놓았다.
마치 인도와 파키스탄의 국경에 있는 타르사막 축소판 같은 백령도가 바라다 보이는 대청도의 해안사구 모래 위에 예민하게 그려진 서해 바람의 무늬를 기억한다. 바람이 사막의 거대한 모래언덕을 1년에 17m를 이동시킨다고 한다. 그 바람은 모든 것을 시간과 함께 이동시키며 소멸시킨다.
섬의 공통점은 바람이다.
나는 요즈음 바람이 있는 경치를 그린 "낭만풍경(浪漫風景)"을 병행해서 그리고 있다.
나도 그 섬에서 그리운 것이 없어질 때까지 한 달 만 뜬 눈으로 살고 싶다. 맨드라미가 씨를 많이 품고 있는 것은 그만큼 간절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나는 믿는다.

무명도

저 섬에서
한 달만 살자
저 섬에서
한 달만
뜬눈으로 살자
저 섬에서
한 달만
그리운 것이
없어질 때까지
뜬눈으로 살자

-이생진-

김지원 | KIM Jiwon

학력

인하대학교 미술교육과
프랑크푸르트 국립조형미술학교 (슈테델 슐레)졸업 (독일)

주요 개인전

2011 김지원 맨드라미 (조현갤러리, 부산)
2010 김지원 (PKM TRINITY GALLERY, 서울)
2009 맨드라미 (분도갤러리, 대구)
2007 김지원 (PKM 갤러리, 서울)
2006 계몽적인 그림 (Andrewshire gallery, Los Angeles) 등 16회

주요 단체전

2011 추상하라!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미술관, 서울)
2010 21&THEIR TIMES (금호미술관, 서울)
한국드로잉30년 (소마미술관, 서울)
외 다수

수신하다 Receive_종이 위에 과슈_50×45cm_2011

풍경화 Landscape Painting_린넨 위에 유채_72.5×116.5cm_2011

풍경화 Landscape Painting_린넨 위에 유채_90×161cm_2011

전쟁 3부작 Triple War_10분_3채널 비디오_2011

김태은 | KIM Taeeun

학력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 동대학원 졸
연세대학교 영상커뮤니케이션 박사과정 수료

수상

2011 퍼블릭아트 선정작가 대상, 월간 퍼블릭아트
2009 Ilhyun Travel Grant 2009, 트래블그랜트상, 일현문화재단
국제교류진흥기금 수혜, 경기문화재단
2008 동아미술기획대상/ 집 – 기억 전 전시기획, 동아일보, 일민미술관
SEMA 전시지원작가 선정, 서울시립미술관
2006 신진예술가 지원 – 문예진흥기금 수혜,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외 다수

기타(작품 소장 및 레지던시 등)

– 레지던시
인천아트플랫폼 지역연계프로젝트, 인천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프로그램, 인천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서울
고양미술창작스튜디오, 고양, 경기도

주요 경력

2011 소셜미디어벤쳐기업 NORITə 대표
2011 울산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객원전임교수
2010 유니버셜벨 뉴미디어팀 이사 역임
2009 상하이엑스포 공동기업관 영상감독 역임
외 다수

주요 약력

2011 <영웅들의 섬>, 인천지역연계프로그램 전시(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11 하이서울페스티벌 The Great Book 공연 (서울시청광장, 서울문화재단)
2010 한국패션문화페스티벌 영상감독 (국립중앙박물관, 문화관광부)
2010 3D 입체패션필름 감독 (국립중앙박물관, 문화관광부)
2009 Door's open (Silvia Wald Gallery, 뉴욕)
외 다수

전쟁을 다룬 역사 영화의 장소적 특성에 대해 다룬 작품으로 월미도에서 벌어진 인천상륙작전과 이를 소재로 제작한 남, 북한 영화를 재매개화시킨다. 가운데는 실재 현재의 월미도를 작가가 현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놀이기구가 가진 유희적 측면과 공포를 동시에 병치시킨다. 그리하여 좌측과 우측의 재편집된 전쟁영화 시퀀스가 현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서로 침잠해 가는지 그 과정을 느낄 수 있다.

전통적인 화살인 각궁이 활의 시위를 당긴 채 매달려 있다. 이 활의 밑에는 물이 설치되어 서로가 반사되어 보인다. 시위가 힘껏 당긴 활의 모습은 물에 비친 자신의 활과 서로 긴장감을 보이면서 대치하고 있다. 아마 우리의 삶도 스스로가 이러한 자세와 함께 항상 긴장하고 지내면서, 이처럼 내면적인 반사 대립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모든 삶의 생각은 자신의 판단에서 나오듯이...

김태준 | KIM Taejun

학력

인천대학교 미술학과 서양화 전공 졸업
독일 베를린 예술대학교 및 카셀 미술대학교 졸업

수상

2002 독일 헤센 주 정부 문화장학재단(Hessische Kultur Stiftung)
2001 볼프강 치펠 (Wolfgang-Zippel Stiftung) 장학재단
카셀 시 문화부 장학재단 (Kultur-Stiftung Kassel)

기타(작품 소장 및 레지던시 등)

- 작품 소장
첸두 비엔날레 (중국), 한강생태학습장 (양평군),
카소리아 현대미술관 (이태리), 카셀 도쿠멘타 자료관 (독일),
삼성 수원 디지털단지, 서울시립미술관 (한국)

- 레지던시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지 입주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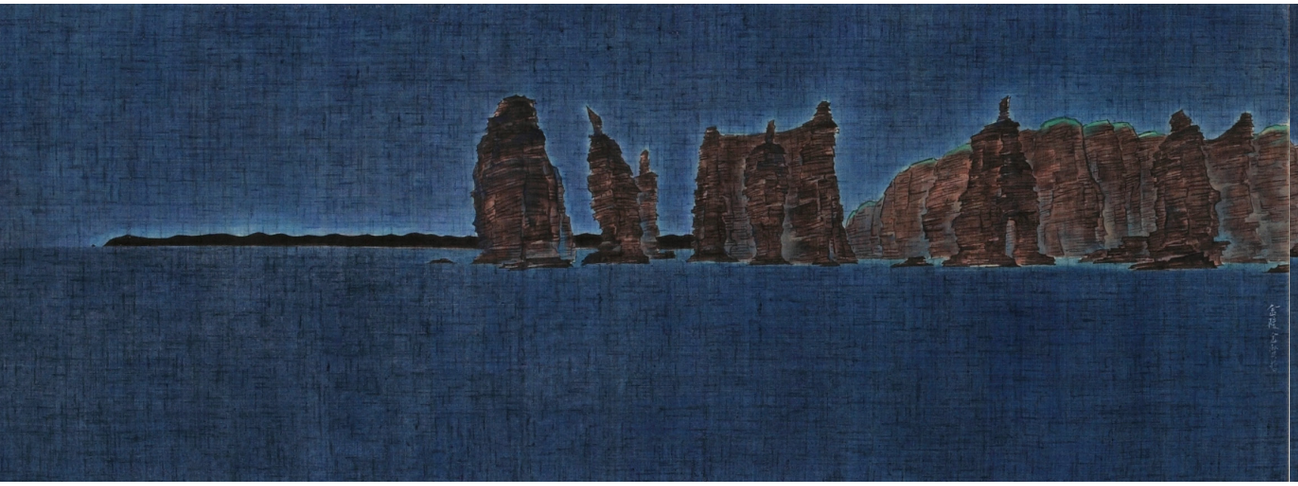
주요 개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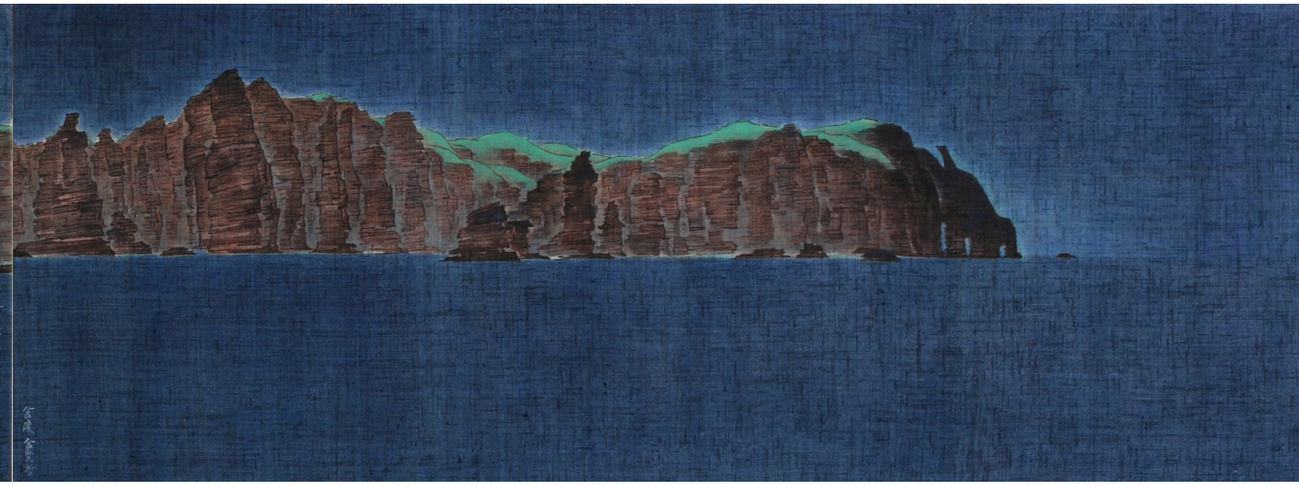
2011 time capsule ,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10 time capsule , 갤러리 분도, 대구
2007 time capsule , 갤러리 H, 서울
외 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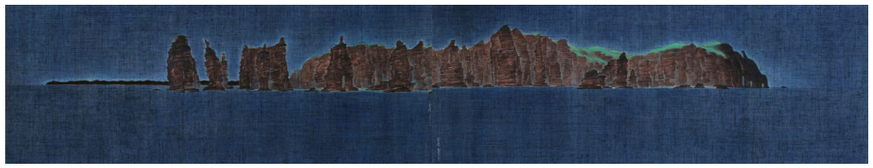
주요 단체전

2011 인천상륙작전,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10 Leshan Invitational Contemparary Art Exhibition,
러샨 아트센터, 중국
2009 제 4회 첸두 비엔날레, 중국
"기록문화특별전", 서울대학교 미술관, 서울
"Echo of eco", 양평환경미술제, 양평
2008 부산비엔날레 – 바다미술제, 부산
여수국제 아트 페스티벌, 진남문예회관, 여수
외 다수

스스로의 경계_철_150×100×(h)200cm_2011







백령도 두무진_삼베에 진채_52×284cm_2011

김현철 | KIM Hyunchul

학력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졸업

기타(작품 소장 및 레지던시 등)

- 작품 소장
  일중기념사업회, 제주현대미술관, 이천시립월전미술관, 경기도미술관, 남북출입국사무소

주요 개인전

2010 초상- 그 전신의 세계(2)전(공아트스페이스, 서울)
2009 산,수,풍,경- 그리지 않은 그림전(공갤러리, 서울)
2008 궁궐- 경복궁전(갤러리 토포하우스, 서울)
2007 옛것으로부터 새로움을..전(롯데화랑, 안양)
외 다수

주요 단체전

2010 겸재화혼전(겸재정선미술관, 서울)
2009 화산도, Jeju Island전(제주현대미술관, 제주)
2008 배를 타고 가다가 한강르네상스,
서울전(서울시립미술관 남서울분관, 서울)
2007 백제의 향기-부여의 꿈전(정림사지박물관, 부여)
외 다수

백령도 두무진의 풍경을 삼베에 진채로 표현한 김현철의 작품은 바다와 하늘이 하나가 되어 쪽빛의 여백을 만들어 내고 웅장한 두무진을 한국화 특유의 고상함으로 표현한 것으로, 김현철 특유의 양식과 색감을 사용했다. 멀리, 아스라히 보이는 땅은 그리운 그곳 장산곶이다.

자연인 – 物神과 맞서는 용기용사

나는 인간들만의 평화 이전에 자연의 평화, 지구의 평화, 우주의 평화를 이야기하고 싶다. 物神의 노예가 된 인간의 이기심과 전쟁으로 인해 우리의 자연이 얼마나 많이 파괴되었는가? 인간의 눈이 밝아져 자연의 힘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것을 이용하여 더 끔찍한 무기를 만들고 있다. 욕심으로 인해 영혼에 큰 구멍이 보인다. 작가는 태초 Big Bang 시절의 평화, 조화로운 에덴동산을 그려본다. 자연 속에 살고 있는 하늘, 땅, 바다에 살고 있는 동물들을...

김형기 | KIM Hyoungki

학력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과 석사과정 수료

기타(작품 소장 및 레지던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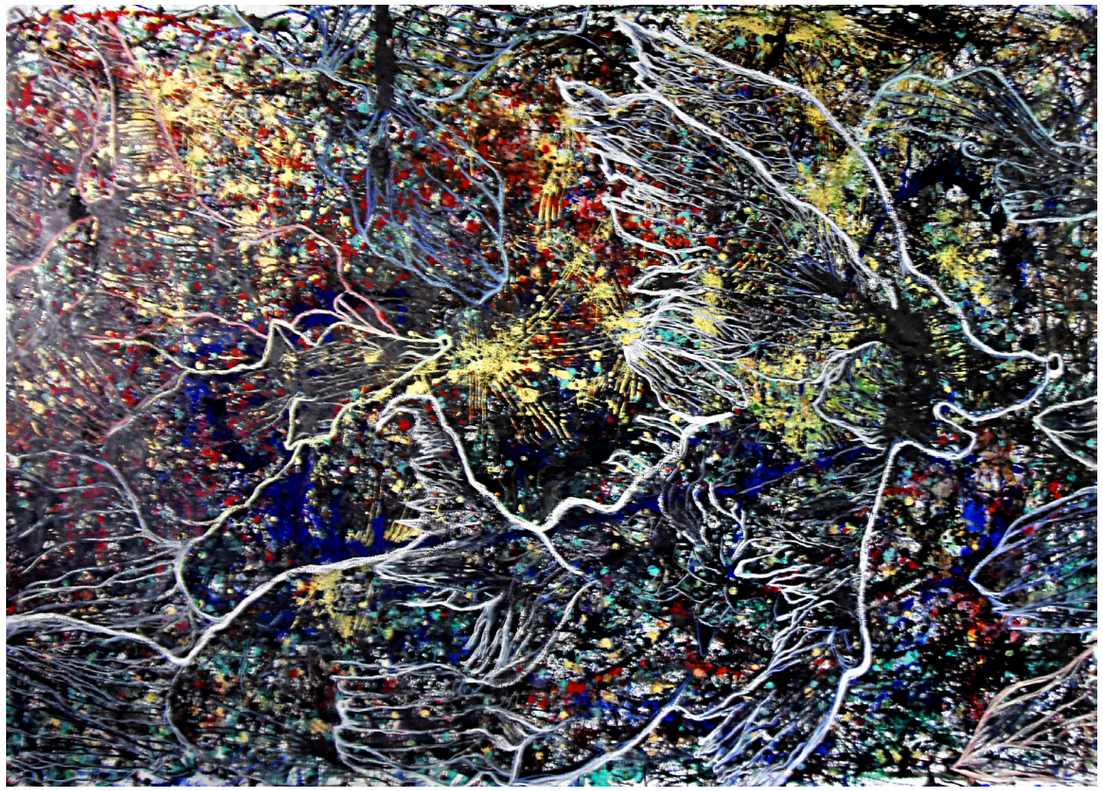
– 작품 소장
'가만히 들이다' 자연장군-아트벤치설치작품,
인천아트플랫폼주변, 인천/ 인천시소장
시각장애우 돕기 기금마련전-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가온갤러리,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놀이터 프로잭트2002전, 홍익대학교앞 놀이터,
자연장군2설치 서울, 영은미술관소장.

주요 개인전

2011 꿈꾸는 우화2-김형기전, 구올담갤러리 , 인천
2011 김형기 기획초대전-자연형상 김형기전 우리은행 강남갤러리, 서울
2010 '환타지를 꿈꾸다' 미추홀도서관 미추홀터전시실, 인천
2010 월미도아져씨의 꿈꾸는우화-자연형상 김형기전, 토포하우스, 서울
외 다수

주요 단체전

2011 정크아트전,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가온갤러리, 인천
WOW와友展 이앙갤러리, 서울
'한국의 현대미술 회화展' 호주 크로스베이갤러리, 호주시드니,
2010 '가만히 들이다' 자연장군-PD,아트벤치설치, 인천아트플랫폼주변, 인천
'부조화속의 조화' 전북도립미술관, 전라북도
녹색예술제,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가온갤러리, 인천
외 다수



태초의 평화, 조화 The Beginning of the Peace, Harmony_캔버스 위에 아크릴, 먹, 오일파스텔_150×227cm_2011

콩돌평화 (백령도 콩돌해변을 보면서)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화.
사랑에 물결이 밀려와 콩돌에게 생명을 준다.
콩돌이 옹기종기 모여 알콩달콩 사랑 나눔을 한다.
콩돌같이 남북이 서로 사랑하고 나누며 하나되어
영원한 평화를 누리기 소원하면서 수없는 원을 그렸다.
원은 순수한 추상적 형태이거나 사실적 서사를 암시하는 상징적 기호이다.
원은 우주적 통합과 일치의 상징이다.
나아가서는 창조주 안에서 하나됨을 의미한다.

도로시 디온 | Dorothy Deon

학력

아트 스튜던트 리그(Art Student League) 졸업 (뉴욕)
FIT(Fashion Institue of Techology) 졸업 (뉴욕)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졸업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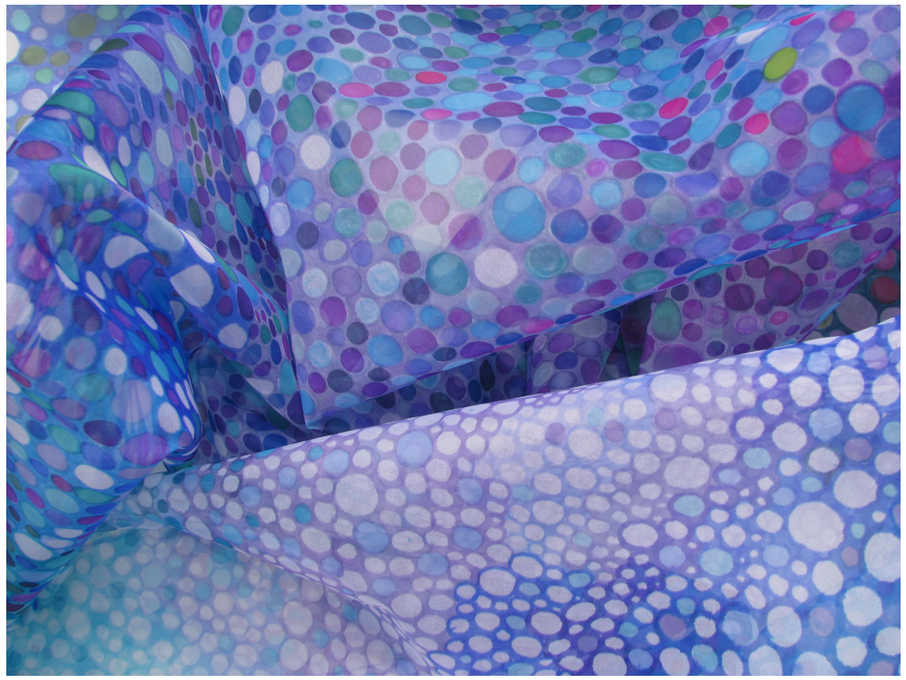
2006 100인의 뉴욕 화가 선정
1991 Fine Arts Museum of Long Island Competition에서 수상
1990 Grand Prix de France International Competition에서 수상
1988 Soho Art Horizons International Competition에서 수상
1987 U. S. A Major Art Competition에서 수상
1966~1967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 수상

주요 개인전

2011 류미재 갤러리 (청평)
2010 인데코 갤러리 (서울)
로남 갤러리 (서울)
피닉스 갤러리 (뉴욕)
외 다수

주요 단체전

2009 '3 Members Show' (피닉스 갤러리 뉴욕)
Art Gate Gallery in Chelsea (뉴욕)
2007 세계 속의 한국현대미술1 – 뉴욕전 (예술의전당 서울)
Emiritus College Gallery (로스앤젤레스)
외 다수



평화 Peace_가변 크기_노방에 마커_2011

두 개의 등대를 그렸다.
첫 번째 작품은 (구)연평등대로 1960년 3월부터 1987년 4월까지 사용했던 등대이며 연평도 산 정상에 있다. 때로는 북한 간첩들이 이 등대를 이용하여 침투하였기에 등대 불을 껐던 적도 있다. 과거의 등대를 연필로 흐리게 그리고 그 위에 난무하는 해당화를 그렸다. 새로운 레이어가 추가되듯 겹쳐 그리는 기법은 퇴적된 시간의 역사를 말해준다.
두 번째 작품은 현재 사용중인 등대로 연평선착장에 있다. 하지만 등대의 실체는 보이지 않고 밝은 불빛으로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로 표현 했다.

우리 일행이 연평도를 방문 했을 때 안개가 많이 끼어 있었는데 그것은 오늘의 남북의 소통부재의 현실을 상징하는 듯했다.

안개를 바라보던 사람들이 지금 그림 속에서 밝은 빛을 바라보고 있다. 이들이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공통된 소원과 염원은 아닐런지...

도지성 | DHO Jisung

학력

중앙대 예술대 회화학과

수상

1989 경인미술대전 최우수상

기타(작품 소장 및 레지던시 등)

- 작품 소장
  인천문화재단, 쌍용투자증권, 연수구청, 인천터미널, 살몬코아갤러리(이스라엘)

주요 개인전

2010 인천평생학습관 가온갤러리 기획초대전 제11회개인전
2008 아카서울갤러리 제10회개인전
2006 신세계갤러리 제9회개인전
외 다수

주요 단체전

2011 100인100색전(서울시립미술관)
2010 인터뷰전(인천아트 플랫폼)
생활의 발견(부평아트센타)
2006-2009 인천-산동 대표작가 국제교류전 (인천, 중국산동)
2006-2007 인천-터키 현대미술국제교류전(인천, 터키 앙카라)
외 다수

부유-연평등대_캔버스 위에 연필, 아크릴_91×117cm_2ea_2011

백령도 초상 (Baengnyeongdo Portrait)

평화를 이루는 또 다른 의미로 “없거나 혹은 어디에나 있는 것”을 이번 답사에서 생각해 본다. 어떤 이들은 평화란 정확히 정의할 수 없는 개념이라고 말한다. ‘언젠가 이루어야 할’, 또는 ‘지켜내야 할’ 평화는 없으며, ‘유토피아’, ‘행복’과 같이 개념으로만 존재할 뿐이라는 설명이다. 대신에 그들은 모두의 평범한 일상에서 소소한 평화를 만들고 확장할 것을 주장한다. 즉 평화는 어떤 고정된 의미가 아니며, 일상에서 항상 다른 의미로 존재한다.

이것이 화자가 바라본 백령도 주민들이 평화를 목도하는 방식이다.

심청이의 전설이 살아 있는 바다, 눈부신 해안 절벽, 수정처럼 맑은 조약돌 콩돌, 단단한 모래밭 사곶해안, 직접 일구어낸 평야 농경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등 굵게 빛나는 밤하늘의 별들이 평화를 이야기 하는 섬 백령도. 보이지 않는 하늘과 바다 위 철조망의 어망에 군인보다 더 군인 같은 평화를 지켜내고 살아가는 백령도 섬 주민들의 모습을 떠올려 그려 본다.

류성환 | RYU Seonghwan

학력

홍익대학교 대학원 예술기획 과정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학과 서양화 졸업

수상

2010 인천문예진흥기금 시각예술분과 지원선정
2009 인천문화재단 미술은행 작품매입공모 선정
2006 문화공간 海市 “젊은미술-incheon3040” 선정
1997 경향광고기획대상 우수상

기타(작품 소장 및 레지던시 등)

- 작품소장
  인천문화재단 미술은행, LS엠트론

주요 개인전

2010 숙골로 사람들 展 studio R.A. 인천
2010 기울어진 삶 展 JHGAllERY 기획초대전, 서울
2008 삶의 터 展 가나아트스페이스, 서울.
외 다수

주요 단체전

2011 만화경美거리-설치미술 프로젝트, 부평문화의거리, 인천
너를 관조하다, 미추홀도서관, 인천
2010 전국환경미술제, 강 - 생명의 노래, 울산문화예술회관, 울산
이천십 팔월의 자작나무, JH Gallery, 서울
2009 블루 닷 아시아전,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Transformation a portrait 展, 해시, 인천
외 다수

해병대 군복을 입고 부동자세로 서 있는 백령도주민_캔버스 위에 유채_228×182cm_2011

인간의 대지 작품 시리즈 중 한 작품으로 평화로웠던 한 섬을 표현하고자 했다. 육지로부터 고립되고 독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을 반추한다.
인간의 적은 역시 인간으로 평화를 파괴하고 터전을 떠나야하는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도 시간의 흐름은 모든 것을 치유하며 상흔의 흔적을 지워버린다. 이것이 인간이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대지의 모습이며 역사이다. 처절한 이야기를 대지라는 거대한 품 속에 흡수하며 또다시 생명들을 키워내고 본래의 모습으로 자정해 버리기도 한다. 어쩌면 사건 후에 더 평화스럽게 보이는 아이러니를 표현하고 싶었던 작가의 생각을 그려낸 작품이다.

박인우 | PARK Yeenwoo

학력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졸, 동 대학원 서양화과 졸

기타(작품 소장 및 레지던시 등)

- 작품 소장
  국립현대미술,인천문화재단,대한극장,인천시청,고속버스터미널,남구보건소,신동아오피스,가천의과학대학교,인천남구청, 중구청, 한중문화관, 남촌동(800호),포항 코아루아파트 조형물 2곳, 용인 씨크밸리아파트 조형물 1곳 등

주요 개인전

1991-2011 개인전20회
2010 독일 뵈너갤러리초대 10회
KUNSTMESSE ROTTERDAM2010(AHOYWEG)
2009 한중문화관 특별 초대전(인천)
2008 말레이시아 아트엑스포 (쿠알라룸푸르,말레이시아)
외 다수

주요 단체전

ORIGN 회화협회전(워커힐미술관,,미술회관,,덕원미술관)
현대미술의 Vision 2009(세종문화회관 미술관)
openauction 갤러리초대(오픈옥션갤러리,서울)
골든아이 아트페어전(코엑스,서울)
100인100색전(서울시립미술관,서울)
외 다수

인간의 대지-평화_캔버스 위에 유채_162×130cm_2011

이다-였다
화가, 난 화가이다.
화가, 세상 사람 대부분이 왜 그리는지 모른다.
화가, 삶의 시스템에서 말도 안 되는 방향을 택한다.
화가, 세상 어느 곳도 화가의 반대편이다.
화가, 약간의 매력이 있는 사회 천덕구리다.
화가, 나태와 가난의 보증수표다.
화가, 대중과 화랑과 평론과 가족의 굳건한 벽 속에 갇혀있다.
화가, 누구도 누굴 위함도 아닌 나와 치열한 한 판 싸움 중이다.
화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같을 것이다.
화가, 프랑스, 미국, 일본, 독일에서도 차이는 없다.
화가, 지쳐 웅얼거린다. 멍한 눈으로 뭔가를 끝없이 찾는다.
화가, 이젠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제까지도 아는 척 한다.
화가, 허나 그 깊이가 얼마일까.
화가, 전문가는 괜히 있나.
화가, 화가는 그냥 모른다고 하는 게 날 것 같은데...
화가, 화가가 할 일은 따로 있지 않을까?
화가, 시각언어의 재구성, 「이다-였다」
화가, 이거나 잘하자.

7월말 비 억수로 오던 날, 작업실에서

지난 5월 20일 연평도를 답사하는 과정에서 안개가 심해 주위를 잘 살펴볼 수 없었던 나는 줄곧 '개화(開花)'를 생각했다. 작년 말 연평도의 비극을 '개화'의 의미와 겹쳐볼 궁리를 하게 된 것이다.
섬 도처에 남겨진 포격의 흔적들을 살펴보면서 하늘과 땅, 바다가 꽃이 피는 진동으로 들썩이는, 그 비극을 오히려 상생의 역사적 징후로 예감해 보는 그런 상상을 나는 할 수밖에 없었다.
하여, 우리의 분단 상황과 수천 년의 무궁한 역사를 생각하며 섬 전체에서 들리는 '개화(꽃핌)'의 진동을 받아 같이 뒤섞이며 흥청거리는 그림을 구상해 보았다.
'개화'의 낌새와 울림으로 인해 반목(反目)과 경계가 허물어지고, 분단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되길 염원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이 <개화의 들림-연평도에서> 그림에 스며들기를 희망하였다.

박진화 | PARK Jinhwa

학력

홍익대학교 미술교육과(서양화 전공) 졸업

기타(작품 소장 및 레지던시 등)

- 작품 소장
  국립현대미술, 인천문화재단, 대한극장, 인천시청, 고속버스터미널, 남구보건소, 신동아오피스, 가천의과학대학교, 인천남구청, 중구청, 한중문화관, 남촌동(800호), 포항 코아루아파트 조형물 2곳, 용인 씨크밸리아파트 조형물 1곳 등

주요 개인전

1989-2011 까지 개인전 16회 개최
2011 개인전 <개화>(박진화미술관, 강화)
2009-2010 개인전 <발밑과 눈>
(포스텍-포항공과대학 캠퍼스 전관, 포항)
외 다수

주요 단체전

2011 까지 다수 단체전 참가

개화의 들림-연평도에서_캔버스 위에 유채_230×150cm_2011

미연이의 등교길

아침 산책으로 사곶해변에 가다보면 항상 만나는 아이들이 있다. 학교 통학버스를 기다리며 재잘거리고 있는 초등학교 아이들이다. 백령초등학교에 다니는 1,2,3,6학년 아이들인데 그중 가장 먼저 나와서 버스가 오는 곳을 바라보며 서 있는 아이가 미연이다. 말을 걸어보았는데, 바다와 안개와 갈매기가 많은 백령도에서 바닷바람으로 건강하게 그을린 이 아이,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참 야무지고 똘똘하다.
미연이는 며칠 후 부모님과 함께 작업실에 놀러왔다. 이후 미연이 아빠가 차 한 잔 하자며 불렀고 두유 한 상자(모델료?)를 드리고 차도 한 잔 마시며 미연이 엄마가 강화도에서 백령도로 시집 온 이야기, 아빠는 이가 좋지 않아 인천을 주말마다 다녀 온다는 이야기, 아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도시 손을 타지 않은 아이, 온통 푸른 빛인 섬에서 학교 생활이 즐겁기만 한 미연이는 오늘도 버스를 기다리느라 목을 길게 빼고 있겠지.

백령초등학교 5학년 효근이

집 떠나면 끼니를 해결하는 문제가 쉽지 않다. 백령도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매끼 사먹어야 하는 상황에서 몇 끼 식사를 반복해서 사 먹다 보면 금세 싫증이 난다. 이 식당 저 식당을 옮겨 다니다가 백령도의 중심지인 진촌에 있는 한 식당을 찾아 들어갔다.
식당주인과 이야기를 하다보니 어릴 적 내가 다녔던 백령도 북포초등학교 동창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30대에 인천으로 나가 석남동에서 19년간 식당을 하다 2년 전에 귀향해서 지금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그 친구 아들이 백령초등학교에 다니는 5학년 김효근이다. 효근이는 호기심이 많고 욕심없는 소박한 아이다. 용돈을 줘도 필요 없다하고 과자나 아이스크림을 사 준다고 해도 별 반응이 없다. 무뚝뚝하고 괴팍한 아빠에게 공부 못한다고 눈치 없다고 구박을 많이 받지만 효근이는 무던하게 잘 견딘다. 주말이면 자전거를 타고 그림을 보고 싶어 내 작업 공간으로 자주 찾아온다. 같은 학교 친구들에게 화가아저씨를 알고 있다고 자랑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려고 친구들을 데려와 작업공간을 보여주고 으쓱해 하는 모습의 천진난만한 효근이, 떠날 때 보았던 슬픈 듯 보였던 효근이가 잘 자라주길 바란다.

박충의 | PARK Chungeui

학력

인하대 미술교육과 졸업
홍익대 미술대학원 회화과 졸업
(석사학위논문-전각을 통한 주술적 기원과 생명성에 관한 연구)

수상

1989 상형전 대상
1989 신미술대전 대상 수상

기타(작품 소장 및 레지던시 등)

- 작품 소장
  인천고속버스터미널, 인천문화재단 미술은행 작품 소장'

주요 개인전

2007 돌에 새긴 사람들과 나무 초대전
(갤러리 더 스페이스, 서울 /해시, 인천)
2007 소-사라진 길(인사아트센터, 서울)
2006 돌판각화 초대전/팔만대장경축제 초대전(합천, 해인사)
외 다수

주요 단체전

2010 예기치 못한 경계의 경험-인터뷰(인천아트플랫폼)
설치전'물길 바람길전'(강화 국화리저수지)
2008 진달래전(강화 호담갤러리,고려산길)
2007 '밴댕이전'(강화 미술회관, 화도면 선수포구)
역사박물관개관기념 초대전(부평역사박물관 전시실)
코리아 통일미술전(부산민주공원전시실, 부산)
외 다수

미연이의 등교길_캔버스 위에 아크릴_65×53cm_2011

백령초등학교 5학년 효근이_캔버스 위에 아크릴_65×53cm_2011

사곶에서 만난 고향아주머니

사곶에서 우연히 마주친 아주머니는 내가 돌아가신 아버지를 많이 닮았다고 하시며 먼저 말을 건네셨다.
아주머니는 어릴 적 내가 살던 북포리 우리 집 근처에 사신다고 한다. 예전에 아버지와 잘 알고 지내셨다 하시는데 혹시 연인관계?
고우신 아주머니, 연분홍빛 연꽃을 닮았다.

콩돌해안 화동 아주머니

콩돌 해안가에서 작은 실내포장마차를 운영하시는 아주머니.
아주머니 연세는 올해 62세, 이름은 박혜신이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화동에 사신다. 박혜신 아주머니는 4촌 형수 최순덕씨와 한 동네 분으로 서로 잘 아는 사이니 내겐 누님뻘이다. 백령도 촬영 중에 자주 찾아가 막걸리 한 잔 마시며 화동마을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화동이란 지명은 예전에 화가들이 많이 살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알려주신다. 콩돌 해안이 관광코스 중 한 곳이라 배의 출항여부에 따라 아주머니의 장사에 영향을 주므로 주말의 기후가 항상 쾌청하기를 기대한다고 한다. 화동에는 염전이 있는데 그 규모가 작지 않다.

심청각 앞, 윤하석 아저씨

멀리 심청각이 보이는 곳에서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길가에서 풀 베는 일을 하는 마을 분들을 만났다. 카메라를 가까이 대면 한결같이 얼굴을 가리거나 자리를 피하신다. 그중 한 아저씨는 밝게 웃으시며 포즈를 취해주시는데, 그 분이 진촌에 사시는 윤하석 아저씨다. 노동일에 일굴은 검게 그을렸지만 땀냄새 밴 웃음이 건강해보인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난다.

사곶에서 만난 고향아주머니_캔버스 위에 아크릴_53×41cm_2011

콩돌해안 화동 아주머니_60.5×50cm_캔버스 위에 아크릴_2011

심청각 앞, 윤하석 아저씨_캔버스 위에 아크릴_60.5×50cm_2011

백령도를 다녀오다.

지난 5월 초 인천아트플랫폼에서 기획하는 '분쟁의 바다 화해의 바다'전의 일환으로 백령도에 직접 들어가서 작업한 후 전시하는 계획에 대한 제안을 받았다. 본래 중국인 작가와 함께 장기간 체류하며 평화를 주제로 하는 작업을 할 예정이었으나, 규모가 축소되어 나 혼자 백령도에서 1개월 간 고향인 백령도와 평화에 대한 염원을 주제로 작업을 진행하기로 결정되었다. 5월 중순 경 전시참여 작가들 몇 사람과 백령도와 대청도 답사를 1박2일 일정으로 다녀왔다. 42년만의 귀향길에 마음이 설레었지만 일정이 빡빡해서 비 내리는 백령도를 일별하는 정도에 그쳤다.
나의 고향은 백령도 중심부에서 약간 서북쪽에 위치한 북포리다.
섬이라고 해도 북포리는 바다와 꽤 떨어져 있어 어린 시절의 나에게 바다는 작정하고 찾아가야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 간혹 아버지와 친척집에 방문하려고 걸어갈 때 바다를 만나게 되면 물장구치며 신나게 놀다가 가곤 했다. 친구들과 들판에서 쇠똥구리에 수수깡으로 달구지를 만들어 연결시켜 놓고 놀기, 맛나던 콩서리, 짚더미에서 뒹굴며 놀기는 아직까지도 기억이 생생하다. 변변한 놀이도구가 없어도 백령도의 자연 그대로가 놀이도구이면서 내 어린 시절을 품어 안아주던 엄마 품과 같은 존재였다. 그 시절 어머니와 할머니는 밭농사에 전념하셨고 아버지는 홍어잡이 배를 타셨다. 내 어린 시절이 고스란히 묻혀있는 그곳에서 42년 만에 나는 무엇을 만나게 될까.
백령도에서의 작품제작과 동영상 촬영을 위해 2011년 6월 7일에 1개월 간 거주예정으로, 42년 전 백령도를 떠났을 때 배를 탔던 용기포 항구에 드디어 발을 디뎠다.
이번 백령도 체류 작업의 가장 큰 주제는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빚어진 긴장상황에서 부각된 평화에 대한 이야기이다. 개인적으로 백령도는 42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는 운명의 섬이지만, 고향인 백령도에서 평화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작품을 제작해야하는 숙제를 떠안고 있는 귀향이라 1개월이라는 짧은 작업기간이 부담이 된다.
오후 늦은 시간에 도착한 터라 서둘러 작업실로 사용할 빈 집부터 구했다. 작업실부터 구한 후 백령도의 지리를 파악하고 촬영 작업에 착수했다. 영상촬영과 스틸이미지를 담기위한 촬영을 동시에 하면서 다녔다. 답사 중 만나게 된 주민들의 모습과 그들과 나눈 이야기, 곳곳에 기암괴석들이 연출하는 장관을 카메라에 담았다. 날씨가 고르지 못해 촬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작업실에서 작품 활동에 힘을 기울였다.
백령도는 너무도 평화로웠다. 천안함 침몰사건과 연이은 연평도 사건으로 초긴장 상태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전에 비해 관광객들의 발길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불만 외에는 그 여파를 느끼기 어려운 분위기였다. 약 만 명 정도 되는 백령도 거주민의 반 정도가 군인들과 군속들이어서 백령도 지역 어딜 가나 군인들을 볼 수 있었다. 백령도에 체류하는 중에 사곶해변에서 닭싸움하던 150여명의 군인들을 보기도 했을 정도로 주민들의 일상에 군인들의 일상이 섞여 함께 움직여나간다. 그래서인지 이곳이 군사적 접경지역이라는 긴장과 경계는 일상에서는 잊혀진다.
백령도에서 만났던 주민들은 예전처럼 평화로운 남북관계를 원하고 있었다. 오히려 전쟁에 대한 불안감보다는 주민들은 질병이나 자식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더 큰 근심거리다. 안보상 비교적 안전지대에 속한다는 대도시 주민들과 별다른 생각차이가 없어 보였다. 백령도 주민들은 큰 병이라도 걸리면 육지로 이송 중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고, 전문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경우는 대개의 경우 배를 타고 육지를 몇 번씩 다니면서 해결해야 한다.
군사적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우리 곁에 평화가 오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타인을 배려하고 지역감정과 같은 차별의식을 마음 속에서 씻어낼 때 비로소 평화를 마주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촬영 중에 백령도에 세계적으로 희귀한 천연기념물인 감람석이 알알이 박혀있다는 현무암 분포지인 하늬해변을 간 적이 있었다. 해변에 있는 현무암에 박혀있는 감람석을 빼간 행위가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행위 모두가 평화를 해치는 일이다.
주어진 1개월 동안 천연 비행장으로 알려져 있는 사곶 마을 빈집에서 살았다. 많은 주민들도 만나고 백령도 곳곳을 누비며 촬영하고 장면들을 화폭에 담았다.
백령도에서 작업을 통해 사회적 위화감이나 빈부의 격차, 폭력적인 정치문화, 태생으로부터 결정되는 극복할 수 없는 가난이 만연한데 전쟁이 없다고 해서 평화롭다고 말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더욱 굳어졌다.
백령도에서 작업한 작품들 속에 표현된 주민들이나 풍경들은 백령도의 조용한 평화를 말하고 있다.

동족상잔의 비극인 한국전쟁 이후 남북이 휴전선을 경계로 지척에서 60년 동안 대치 중인 섬. 서북쪽 최전방인 백령도는 막연히 현역군인들의 작전지역일 뿐이라는 인식이었다. 말하자면 민간인 출입금지 구역으로 각인된 것이다. 지난 5월 처음으로 찾아간 백령도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아름다운 비경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리고 예상보다 많은 주민들이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다.
남북이 늘 긴장상태에서 대치 중이긴 하지만 육안으로도 쉽게 바라볼 수 있는 거리에 우리의 핏줄인 북한주민들이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이번 방문을 통해 아직 널리 소개되지 않은 백령도의 평화롭고 아름다운 비경을 담아두고 싶었다. 백령도의 순수하고 독특한 자연 풍광은 참으로 인상적이었고 수채 작품으로 제작하였다.

박흥순 | PARK Heungsoon

학력

중앙대학교 대학원졸업 (서양화 전공)

수상

2010 몽골국립 아카데미 훈장 수상

기타(작품 소장 및 레지던시 등)

- 작품 소장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도봉구청, 도봉문화원
  청주지방법원, 도봉구의회, (주)한독자동차 등

주요 개인전

2007 등대에서의 15일전 (영도등대 갤러리)
2006 박흥순 초대전 (갤러리 각))
2004 박흥순 초대전 (청도조각예술관, 중국)
외 다수

주요 단체전

2010 현대미술특별초대전 (청주문화관)
전국환경미술제 (울산문화회관)
제17회 JAALA전 (가와사키 시민뮤지움, 일본)
제2회 평화미술제 (금호갤러리, 광주)
2009 평화미술제 (제주현대미술관)
2008 한국현대미술전 (주영한국문화원, 영국)
외 다수

백령도1_종이위에 수채_78X97cm_2011

사곶해변_종이위에 수채_38×46cm_2011

대청도 사구_종이위에 수채_38×46cm_2011

배진호는 두상 또는 신체의 일부에 주목하여 사실주의적으로 표현하는 구상 조각가이다. 찰흙으로 꼼꼼하게 사실주의적 형태를 빚은 다음 이를 유리합성수지로 캐스팅하여 조각을 떠내고 채색하는 작업을 주로 하는 배진호가 이번 전시에서는 새로운 설치 작업을 시도하였다. 북한의 연평도 도발 사건 후 뜨거운 감자로 회자되었던 '탄피-보온병'을 꽃병으로 치환한 패러디 작업으로, 전쟁과 갈등의 와중에서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담았다.

배진호 | BAE Jinho

학력

홍익대학 미술대학 조소과 졸
동 대학원 조각과 졸

기타(작품 소장 및 레지던시 등)

- 레지던시
  인천아트플랫폼 1, 2기 입주작가

주요 개인전

제 10회 배진호 조각전

주요 단체전

2011 인천상륙작전(인천아트플랫폼)
2010 장춘 국제 조각 심포지엄 (중국 장춘)
인터뷰전 (인천아트플랫폼)
외 다수

희망을 보다 Look at the Hope_아크릴판, 오브제(꽃) 등_가변크기_2011

수 십년에 걸쳐 젊은이들의 고된 노동속에 세워 졌을 철망과 구조물들은 무심한 북녘땅과 남한의 산천을 갈라 놓는다.

서용선 | SUH Yongsun

학력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석사

수상

2009 올해의 작가, 국립현대미술관

기타(작품 소장 및 레지던시 등)

– 작품 소장
고려대학교박물관, 대전시립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 레지던시
RMIT University 레지던시 프로그램'

주요 개인전

2011 RMIT School of Art gallery, Melbourne
ShinHwa gallery, Hongkong
Touch, FUKUZMI gallery, Osaka
2010 리씨 갤러리, 서울
604 J / 604 H 갤러리, 부산
스페이스 홍지_604 갤러리 기획, 서울
외 다수

주요 단체전

2011 'HonKong International Art Fair _ 학고재 갤러리', Hongkong
'Gallery Seoul 11_학고재갤러리', 라움(RAUM), 서울
'LOVE AND HOPE_604갤러리',
2010 'Korean Art Festival : In and With : Contemporary Korean Art', Cantor Fitzgerald Gallery, Harverford College, Philadelpia
'Triangle Project Expansion', 류미재갤러리 하우스, 청평
'Triangle Project' , 상명대학교(스페이스 원, 제로)/ 갤러리 소밥
외 다수

백령도_캔버스 위에 아크릴_130.3×162.2cm_2011

멸종 위기의 바다생물 중 인천 남동유수지의 저어새, 백령도의 물범, 굴업도의 검은머리물떼새, 바다거북... 돌고래류의 멸종 위기종 상괭이는 태안 기름유출 이후에 집단 폐사되었고 새만금방조제 내에서도 집단폐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곳저곳에서 겪은 상처로 육지에 떠밀려 마지막 목숨을 다한 상괭이를 보게 되었을 때 그의 수모가 온 몸으로 전해져 왔다. 인간의 무분별한 욕망으로 인하여 해양 생물의 여섯 번째 대멸종사태, 대재앙이 눈 앞에 닥쳐오고 있고 산호초 75% 물고기 63%가 괴멸 위기라고 한다. 인간이 바다에서 왔다고 하듯이 바다의 죽음은 고향의 죽음, 원초적 생명의 죽음으로 떠오른다. 이 갈등의 바다에서 무엇을 화해할 것인가. 인간의 욕망과 사라져가는 생물에 대한 애도를 남긴다.

성효숙 | SUNG Hyosook

학력

홍익대학교 조소, 미술교육전공
명지대학원 예술치료학과 미술치료전공

기타(작품 소장 및 레지던시 등)

- 작품 소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작품 "깜빡잠" 만화집" 봄을 찾는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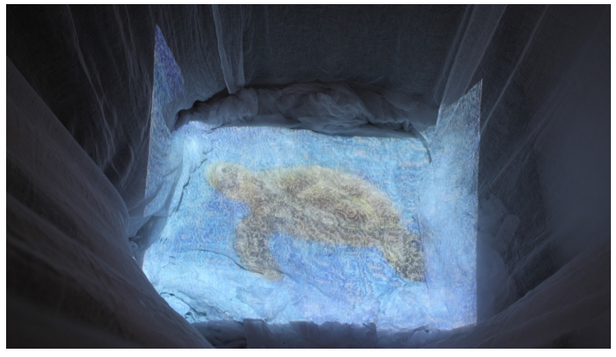
주요 개인전

1회 개인전 1996년 '현화가'- 복합공간 21세기 (서울)
인천의 '임단투 승리를 위한 전진대회'(인천대학교)
대우자동차 현장전시(인천)
2회 개인전 2006년 애도(哀悼)- 삶과 나눔이 있는 터 海市

주요 단체전

2010 인터뷰(inter_view)전-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10 상상공간 DMZ 600리전- 수원미술전시관 (수원)
2010 전국환경미술제-대지의 눈물은 강물되어 흐르고
- 울산문화예술회관 (울산)
2010 월미평화축제 행진에 상징물 <평화를 품은 새> (인천)
2010 높빛평화예술제-평화를 상상해요-고양 아람누리내 갤러리 누리 (고양)
외 다수

애도_소창, 빔 프로젝트, DVD_가변크기_2011



바다위의 꿈꾸는 섬, 하루를 시작하는 깊은 새벽은 사유의 시간이다. 바다와 섬과 달과 조우하는 이상향의 몽환적 환상으로 가득한 꿈의 섬이다.
고요하고 맑은 바다의 물에 꿈처럼 환상적인 섬의 아름다운 산수가 수면에 비친다.
실상과 허상의 섬은 우리의 근원을 되돌아보게 하는 거울 같은 존재이다.
우리가 소망하는 현실세계 너머를 꿈꾸며, 그리움과 몽상 그리고 희망의 가치를 찾아 나아가는 것이다.

송필용 | SONG Philyong

학력

홍익대 대학원 서양화과 졸
전남대 미술교육과 졸

기타(작품 소장 및 레지던시 등)

- 작품 소장
국립현대미술관.서울시립미술관.경기도미술관.일민미술관
금호미술관.전북도립미술관.광주시립미술관.청와대
미술은행.남북출입사무소

주요 개인전

2007 이화익갤러리, 서울
2004 학고재갤러리, 서울
외 16회

주요 단체전

2009-2011 SOAF 서울오픈아트페어(코엑스,서울)
2008-2011 KIAF 서울국제아트페어(코엑스,서울)
2010 물보다 깊은물(인터알리아,서울)
2009 원더풀픽쳐스(일민미술관,서울)
화양촌신-한국현대회화100인전(우림화랑35주년기념,서울)
2008 양평환경미술제-소요유(마나스아트센터,양평)
외 다수

꿈꾸는 섬_캔버스 위에 유채_112×162cm_2011

꿈꾸는 섬_캔버스 위에 유채_97×130cm_2011

쑨광화의 작품은 정치적 팝아트(Political Pop)로 정의되곤 한다. 미디어 이미지, 스타와 유명인의 이미지들을 사용하여 일반 팝아트처럼 소비사회 특징을 반영하는 동시에 붉은 색조의 평면적인 구성으로 정치선동에 사용되던 포스터나 책표지 양식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비판적 견지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정치적이고, 포스트 천안문 세대로서의 현대적 감각을 카툰의 느낌으로 그리기 때문에 다분히 팝적이다. 두 개의 이미지를 짝 지우는 이면화(diptych)를 큰 스케일로 그리는 쑨광화는 중국의 홍군과 마릴린 먼로(혹은 마오쩌둥), 남자와 여자, 영웅과 소시민을 대치시킴으로서 관습에서 벗어난 이미지를 창출한다.

쑨광화 | Sun Guanghua

학력

1983-1987 중앙미술학교, 학사 졸업

주요 개인전 및 단체전

2010 Plateau, Jason Gallery, 베이징, 중국
2009 Joint art show Sino-South Korean-Austrian Artists
중국, 한국, 호주, 일본 순회전
Go into the History, Tours Castle Museum, 프랑스
2008 Moving socialism, 쿠바, 중국, 북한 현대미술 교류전
개인전, Yang Gallery, 싱가폴
한중현대미술교류전 '해묘적묘, 거제문화예술회관, 한국
2008 동방의 빛-한중정예작가대작전, 서울아트뮤지엄
단체전, Opera Gallery, 두바이, 아랍에미리트
단체전, Opera gallery, 몬테카를로, 모나코
Close Shot, Yang Gallery, 싱가폴
중국현대미술전 Convergence and Self-sustaining,
Zhuopu Art Center, 타이완
개인전, 고도갤러리, 서울, 한국
2007 개인전, 798 Wubogongdi Gallery, 베이징, 중국
Masters & Present age, 오페라 갤러리, 서울, 한국
Made in Asia, Opera Gallery, 런던, 영국
외 다수

Come Here_캔버스 위에 유채_134×199cm_2011

Mine_캔버스 위에 유채_135×200cm_2011

흰 포말이 일던 푸른 바다를 기억하겠습니다.
갈매기 날던, 예쁜 등대가 있던 그 섬을 기억하겠습니다.
떨어져서 만나지는 못하지만 당신들이 우리의 형제자매임을 기억하겠습니다.
제가 잊지 않도록 저의 이 편지를 잘 간직해 주세요.

여운 | YEO Un

학력

홍익대학교 미술학부 서양화 전공 졸업
홍익대학교 대학원 서양화 전공 졸업

주요 개인전

개인전 5회

주요 단체전

한국 미술 현장과 검증 초대 개인전(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검은소묘 (아트사이드)
한국현대미술 20년의 동향전 (국립현대미술관)
80년 형상미술 대표작전 (금호미술관)
우리시대의 표정 - 인간과 자연전 (그림마당 민)
한국대표시인화가전 (학고재)
현대미술 전개전 (국립현대미술관)
외 다수

기억 Remember_캔버스 위에 유채, 아크릴_53.5×91cm_2011

교과서(철수와 영희)
The Text Book (Chulsoo & Younghee)

우리는 무엇인가에 끌려오듯 살아왔다. 우리 스스로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부재했으며 현재 또한 우리 스스로 풀어내지 못한 많은 질문들이 쌓여있다.
우리가 인지하기 못하던 순간, 그 빈자리에 남북의 강요된 가치들이 강압적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왔다. 국가에서 개인으로 전이되는 강박의 가치는 민족의 비극을 동반하며 증오를 증식시키고 그 안에서 인간성을 매몰시켜왔다. 이렇게 국가의 트라우마가 개인의 트라우마로 전이되는 순간 역사를 경험한 개인만이 아닌 이제는 후세들의 내면에까지 거대한 괴물을 만들어 내고 있다. 괴물의 대물림이다.
우리는 우리 내면의 괴물들을 직시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깊게 내재된 수 많은 강박과 트라우마는 해소될 수 있으며 그 자리에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채울 기회가 올 수 있을 것이다.

오석근 | OH Sukkuhn

학력

Nottingham Trent University, School of Art & Design (학사)
사진과 졸업
인하대학교 경제통상학부 중퇴(1997 – 1998)

수상

2010 서울문화재단 해외교류사업 지원 선정.
2007 Young Portfoilio 2008 of Kiyosato Museum of Photographic Art
2006 Discoveries of Fotofest 2006, 휴스턴 미술관 큐레이터 Anne Tucker 선정.
2006 문예진흥기금 신진작가 지원 선정

기타(작품 소장 및 레지던시 등)

– 작품 소장
Portland Museum of Art, 포틀랜드, 미국
Santa Barbara Museum of Arts, 산타바바라, 미국
일민미술관, 서울
Kiyosato Museumof Photographic Art, 키요사토, 일본
The Museum Of Fine Arts, Houston, 휴스턴, 미국

– 레지던시
인천아트플랫폼

주요 개인전

2007 이화익갤러리, 서울
2004 학고재갤러리, 서울
외 16회

주요 단체전

2011 분쟁의 바다 / 화해의 바다,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국경 없는 시간, 아트스페이스 휴, 파주
인천상륙작전,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10 ATU (Alternative, Translate, Universe), 시네마 상상마당, 서울
Otonarisan, Gallery Artller & Kyushu University Museum, 후쿠오카
Bibliotheque : 접힘과 펼침의 도서관, 상상마당, 서울
일민시각문화5 : 격물치지 格物致知, 일민미술관, 서울
Chaotic Harmony, Santa Barbara Museum of Art, 산타 바바라
A4 Demo : Art For Democracy, 13개 도시 14개 전시공간, 한국
외 다수

교과서(철수와 영희)p.306 The Text Book (Chulsoo & Younghee) p.306
Digital c-print_100×124cm_2011

교과서(철수와 영희)p.324 The Text Book (Chulsoo & Younghee) p.324
Digital c-print_60×73cm_2011

Reply 2011 – 평화, 인천, 소통_인터뷰 영상_가변크기_2011

Reply 2011 – 평화, 인천, 소통_인터뷰 영상

인천에 대한 기억을 10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라는 형식을 통해서 개념을 정립해본다. 하나의 인천의 개념적 지형도가 형성되는 과정이 이 영상 작업의 목적이다.

Reply 2011 – 평화, 인천, 소통 _퍼포먼스

불안정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가? 라는 질문이 작업의 출발지점이며 인천에 대한 기억에 초점을 맞추어 기억으로의 여행을 제안한다. 이 기억 속으로의 여행은 작가와 참여자들의 소통에서 시작되고 기록되며 인천에 대한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유지환 | YOO Jiwhan

학력

홍익대학교 회화과 졸업

수상

2010 홍대앞 문화예술상 – 한국실험예술제상 수상

기타(작품 소장 및 레지던시 등)

– 레지던시
인천아트플랫폼

주요 개인전

2010 KASF "white color" 4회 개인전 – SETEC
2009 New Discourse 우수작가 3회 개인전 – 사이아트갤러리
2009 KASF "HER FACE" 2회 개인전 – SETEC
2009 "Pay Attention to the Picture" 1회 개인전 – 갤러리 온
외 다수

주요 단체전

2011 제1회 인천평화프로젝트 "분쟁의바다 화해의바다" – 인천아트플랫폼
2011 STREET PERFORMANCE PROJECT 'reply2011' – 인천아트플랫폼2011 인천아트플랫폼 입주작가 프리뷰展 "인천상륙作展"
2010 'another unit'–판아시아 2010 Tour Program, 인천아트플랫폼
행위 프로젝트 –2th White Mob(sub: where a u going?),
한국실험예술제
외 다수

Reply 2011 – 평화, 인천, 소통_퍼포먼스_2011

지난 5개월간 100여명의 인천시민, 작가들, 타 지역 사람들을 인터뷰했다. 짧게는 5분에서 길게는 1시간 분량의 인터뷰는 사람들과의 소통에 집중하는 시간이었고 사람들 속에 존재하는 인천의 이미지를 끄집어내는 시간이었다. 인천은 참으로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근대문명이 유입된 개항지이기도 하고 공업중심의 도시이기도 하면서 주변에 보전되어야 할 역사적인 건축물들과 자연이 도처에 있고, 200개가 넘는 섬이 인천에 속해 있으며 난개발로 인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최첨단의 송도 신도시가 존재한다. 인천을 인천국제공항으로만 기억하는 사람들과 인천의 역사성을 아끼며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인천의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이 있다.
영상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 인터뷰 자료를 계속 들추게 되고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인천이라는 형상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느낌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형상은 매우 입체적이며 시간, 공간, 역사, 기억 등을 아우르는 그림이었다.
이 그림은 어떤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그림이 아니며 이 그림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인천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또는 인천을 보다 멀리서 크게 보기위한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2011년 7월 23일 거리 퍼포먼스(STREET PERFORMANCE PROJECT) 'Reply2011'은 인터뷰에 참여한 사람들 중 43명이 퍼포먼스에 참여해서 6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인천에서 출발해서 홍대 앞까지 새로운 루트를 개척하는 여행이었고 월미도에서 더위와 체력 때문에 6명이 낙오되었다. 끝까지 함께해서 오늘의 무용담을 나누길 원했지만 의지만으로 될 일이 아니었다. 코스를 무리하게 잡은 탓도 있었다. 영종도에서 버스에 빼곡히 타고 공항까지가는 40분은 평생 갈 추억의 한 장면이 되었고 공항에서 보안담당들과 실랑이를 벌인 것도 즐거운 추억이 되지 않을까. 행위자들은 홍대로 가는 전철 안에서 긴 여정의 끝자락을 실감하고 있었다.

어시장 II (Fish Market II)

이 작품 “어시장”은 실제로 새벽 어시장을 자주 가고 있는 본인의 경험에 의한 것이다. 나는 새벽 어시장의 경매 장면을 보는 것만으로도 매번 감동과 흥분을 느낀다.
비록 모든 경매 참가자가 거의 대부분 남성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섭섭하기는 해도 그 생생한 힘을 느낄 수 있어서 그 시간은 내게 참으로 귀중하다.
경매가 끝나자마자 비로소 여성 상인들의 차례가 온다. 나는 잘 알아들을 수 없는 은어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서야 그 여성 상인들로부터 사고 싶은 것들을 구매할 수 있다.
거칠고 큰 목소리가 처음에는 나에게 매우 큰 ‘겁’으로 다가 왔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들의 질기고도 거의 거룩하게까지 느껴지는 생명력은 나에게 살아있다는 충일감을 준다.
그들에 대한 이상한 애정 같은 것이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하고 번번히 스스로에게 질문하지만 정확한 답을 나는 아직 갖고 있지 못한다.
나는 그래서 가능하면 새벽 어시장을 자주 가는 편이다. 이즈음은 뜸 했지만?

윤석남 | YUN Suknam

학력

플랫 인스티튜트 그래픽센터 졸업
성균관대학교 영문학과 졸업

수상

2007 제 4회 고정희상 ((사)또하나의문화)
1997 국무총리상
1996 제 8회 이중섭 미술상(조선일보사 주최)

기타(작품 소장 및 레지던시 등)

- 작품 소장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 퀸즈랜드 아트 갤러리, 브리스번, 호주 / 후쿠오카미술관 후쿠오카, 일본 / 벨란 미술협회, 토리노, 이탈리아 /미에 현립미술관, 미에, 일본 / 타이페이 미술관, 타이페이, 타이완 / 88올림픽공원, 서울 / 나눔의 집, 경기도 광주 / 일민미술관, 서울 / 쌈지아트스페이스,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서울 / 여성사박물관, 서울 / 대전시립미술관, 대전 / 금호미술관, 서울 / 가마쿠라 갤러리, 가마쿠라, 일본 / 도치기 현립미술관, 도치기, 일본 / 도쿠지마 현립미술관, 도쿠지마, 일본 / 통영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미술관, 서울 / 경기도미술관, 안산

- 레지던시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프로그램, 인천

주요 개인전

2009 윤석남 108, 부산아트센터(김재선 갤러리), 부산
윤석남 108, 학고재, 서울
2008 윤석남, 1025: 사람과 사람 없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미술관
외 다수

주요 단체전

2011 코리안 랩소디-역사와 기억의 몽타주, 삼성미술관 리움, 서울
인천상륙作展-인천아트플랫폼 2기 입주작가 프리뷰전시, 아트플랫폼, 인천
2010 워킹 맘마미아: 그녀들에게는 모든 곳이 현장이다', 여성사전시관, 서울
한국드로잉30년:1970-2000, 소마미술관, 서울
춘추(春秋), 갤러리 학고재, 서울
2009 거울아 거울아 - 그림 속 사람들 이야기, 국립현대미술관
어린이 미술관, 과천
루씨와 오렌지미술관, 헬로우뮤지움, 서울
현대미술의 응시_부산대학교 아트센터 개관전, 부산대학교, 부산
2009 평화미술제 - 대지의 꽃을 바다가…, 제주현대미술관, 제주
새로운 예술의 시작 - 신호탄, 국립현대미술관 기무사, 서울
85호 크레인 - 어느 망루의 역사,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평화공간, space+peace, 서울
장수의 비결, 문화연대 10주년 기금 마련전, 북촌미술관, 서울
외 다수

어시장 II Fish Market II_혼합매체_ 가변크기_ 2003

두 남자_캔버스 위에 아크릴_100×72.7cm_2ea_2011

이명복 | LEE Myoungbok

학력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회화학과 졸

수상

2007 제 4회 고정희상 ((사)또하나의문화)
1997 국무총리상
1996 제 8회 이중섭 미술상(조선일보사 주최)

기타(작품 소장 및 레지던시 등)

– 작품 소장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부산 민주공원, 제주현대미술관, iMBC, MBC미술센터

주요 개인전

2009 갤러리 마음 초대전 – 서울
석류원 갤러리 초대전 – 부산
갤러리 반디 초대전 – 서울
2008 '굿바이 부시' 전 – SPACE PEACE
외 다수

주요 단체전

2011 말 전 (갤러리노리)
2010 갤러리노리 개관전 (제주 갤러리노리)
강진 Celadon Art Project 2010 (강진청자박물관)
Wow~! Funny Pop (경남도립미술관)
웃음이 난다 (대전시립미술관)
제주세계문화유산 해외특별전 (일본 동경한국문화원)
2009 제주 세계문화유산특별전 (제주현대미술관)
국제 사막 아트 프로젝트 (몽골 고비사막)
한국만화 100주년 전 (국립현대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외 다수

현빈 이병과 김정은 대장

최정철(인천지식재산센터장)

연평도 포격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로 접어드는 최근에 연평도를 방문하였더니, 아직도 포격으로 파괴된 집이 방치돼 있었고, 산에는 포격과 산불 흔적이 군데군데 널려 있었다. 한편 연평도 최북단 전망대에 오르니 연평도와 북한 사이의 수역은 중국어선 100여척이 닻을 내리고 조업을 하고 있었다. 남북이 대립과 갈등하는 틈에서 중국 어부만이 어부지리를 얻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남한과 북한의 위정자들의 이성적 수준에 대한 강한 회의가 밀려왔다. 이런 착잡한 상황에 현빈 이병은 백령도 해병대에 배치되었다. 김정은 대장은 북한 김정일 후계자로 지명되었다. 둘의 공통점은 20대 후반이며, 군인이며, 한반도 갈등의 한복판에 서 있으며, 한 시대의 정상에 있으며, 충성스런 팬 또는 추종자를 갖고 있다.

차이점은 무력의 최말단인 이병과 무력의 최정점인 대장이라는 것이며, 예술적 노력에 의해 정상에 오른 것과 혈연에 의해 정상에 오른 것이다. 남북한 어른들은 남북갈등을 평화로 전환하는 책무를 당대에 끝내지 못하고, 두 젊은이를 첨예한 남북갈등의 당사자로 밀어 넣는 무책임성을 자랑스럽게 펼치고 있다.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이후 서해5도는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해5도를 무력균형으로 갈등을 상존시킬 것인가, 평화적 방법으로 갈등을 해소할 것인가는 이 시대의 숙명적 과제이다. 비록 현빈 이병과 김정은 대장이 모두 군인이라고 하더라도, 현빈 이병은 평화의 이미지이며, 김정은 대장은 무력의 이미지이다.
현빈 이병이 평화롭게 군복무를 마치고 2013년 1월 TV드라마와 영화에서 다시 보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현빈의 팬이 노력해 주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한다. 특히 중국팬이 현빈지킴이로서 백령도를 교대로 지켜준다면 너무 과한 욕심일까.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는 원래 국제적인 생활공간이었으니 21세기에 다시 국제적인 생활공간으로 거듭나는 것이 이상한 것은 아니다. 최소한 중국팬이 백령도에 거주하면서 '현빈 드라마 전용상영관'을 지키고 있는 한 백령도에서 남북한 무력충돌은 없을 것이라는 소박한 꿈을 꾸어 본다.

그러나 이것은 서해5도의 항구적 평화안은 아니므로 중국, 베트남, 몽골, 동유럽, 북유럽 등 북한과 외교관계가 수립돼 있는 국가의 문화예술인과 국내, 일본, 미국 및 서유럽 문화예술인이 어울리는 창작공간으로 황해 중심 백령도가 거듭나는 깜찍한 꿈을 꾸어 본다. 현빈의 팬과 평화를 희구하는 문화예술인을 위해 백령도–인천간에 3천 톤급 선박이 다니고, 뱃삯은 지구인이면 누구나 3천원이고, 인천–백령도–청도간에 요트가 다니고, 인천–백령도간에 수상 비행기가 넘나들기를 기대해 본다.

지금부터 현빈 이병과 팬은 백령도를 지키고 동아시아, 유럽 및 미국의 문화예술인은 백령도를 창작공간으로 활용해 황해 중심에 문화예술의 섬을 일구기를 제안한다.

– 인천일보 2011년 5월 18일(수) 게재 칼럼 중 일부 발췌

Big Brother_1분_싱글채널 비디오_2011

이부록 & 안지미 | LEE Boorak & AN Jimi

학력

안지미
ISCOM Paris FRANCE Commnication Design 졸업

이부록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졸업

기타(작품 소장 및 레지던시 등)

– 작품 소장
미술은행(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마미술관, 경기도미술관, 핼로우뮤지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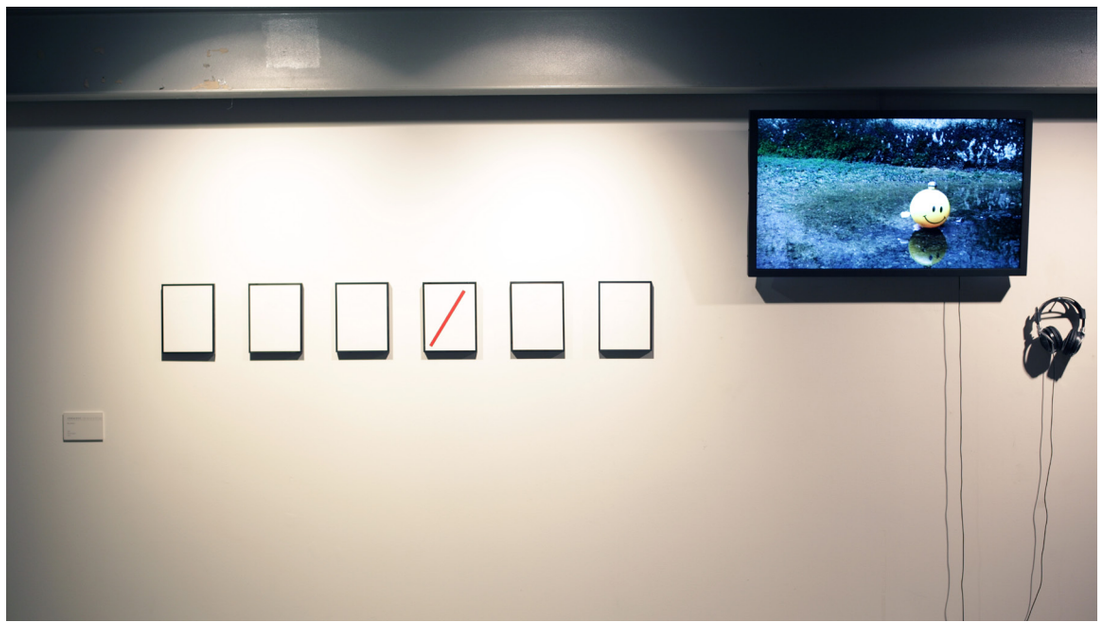
– 레지던시
경기창작센터, 안산
청계창작스튜디오, 서울
아르코 임대 프로젝트, 서울

주요 개인전

2010 파블로프의 사나운 개와 슈뢰딩거의 게으른 고양이 (경기창작센터, 안산)
2008 Newism Movement-Paleface project (청계창작스튜디오 갤러리, 서울)
Upset Newyork (판코갤러리, 서울)
2007 Sticker Project
(www.boorok.com/ 아르코미술관, 서울/ 스페이스 빔, 인천)
외 다수

주요 단체전

2010 경기창작센터 지역협력프로젝트 '섬' (경기창작센터, 안산)
Inter_view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이코노텍스트: 미술과 언어 사이 (제주도립미술관)
2009 신호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기무사부지, 서울)
City-ray (스페이스빔, 인천)
Air Pasteque Verbatim (Vital Art Business Center, 파리)
2008 봄나들이전 / 서울시립미술관
2007 경기도미술관 신소장품전 작품의 재구성 (경기도 미술관, 안산)
1번국도 (경기도미술관, 안산)
외 다수



Big Brother_석고_25×20cm_6piece_2011

붉은 밤풍경을 그린 <Between Red>

한국을 대표하는 영아티스트(Young Artist)로 국내보다는 해외에 더 많이 알려진 이세현 작가는 한국의 전통 산수화를 연상시키는 기법으로 남한과 북한 사이에 위치한 DMZ의 산악지대나 바다 등 한국의 실재풍경을 꼴라쥬한 초현실적인 풍경을 보여준다. DMZ 지역에서 군복무를 했던 작가는 야간투시경을 쓰고 바라본 붉은 밤풍경을 그린 <Between Red> 시리즈 작업을 계속해가고 있다. 그림 속의 온통 붉은 색으로 물든 숲과 나무들은 환상적이고 아름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긴장과 두려움, 공포를 야기한다.

이세현 | LEE Seshyun

학력

영국 첼시 미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홍익대학교 졸업

기타(작품 소장 및 레지던시 등)

-작품 소장
Uli Sigg Collection(취리히), Burger Collection(취리히) All Visual Arts(런던), Collection of Coralie Etroy(런던), Collection of Lorraine, Brrick(시애틀), Collection of James Li(베이징), 하나은행(서울), Collection of Coralie Etory(런던), Collection of Lorraine, Barrick(시애틀), Fideloty Investment(보스톤), Bank of America(미국), 서울시립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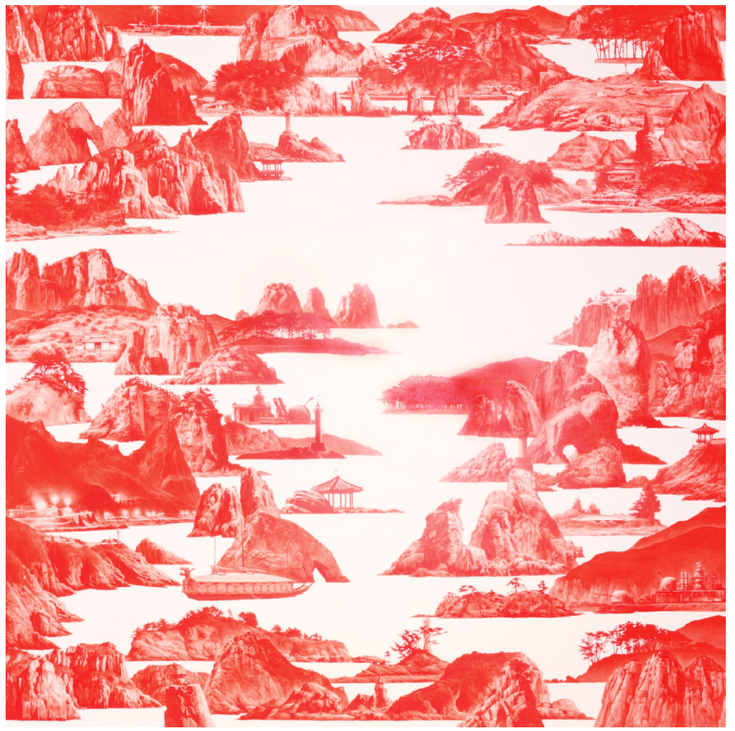
주요 개인전

2011 Nicholas Robinson Gallery, 뉴욕, 미국
2009 Zonca & Zonca Gallery, 밀라노, 이탈리아
Harewood House, 리즈, 영국
ASPEX Contemporary Art Gallery, 포츠마우스, 영국
외 다수

주요 단체전

2011 The Future Pass, International Art Exhibition
"ILLUMIna tions Biennale of Venazia, 베니스, 이탈리아
Bed Exhibition, Pin Gallery, 베이징, 중국
2010 분단미술 : 눈 위에 핀 꽃, 대전시립미술관, 대전, 한국
Korea Tomorrow 2010, Setec, 서울, 한국
Enormous Eyes, 길드 갤러리, 봄베이, 인도
외 다수

Between Red -134_린넨 위에 유채_200×200cm_2011



Between Red -135_린넨 위에 유채_200×200cm_2011

<천사-군인(Angel-Soldier)>은 군사문화의 소산인 한국 사회가 낳은 작품이다. 1966년생인 작가 자신이 유년기와 청년기를 거치는 동안 늘 접했던 군인에 대한 이미지가 이 작품의 저변을 관류하고 있다. 그는 천사라는 말이 의미하듯이,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상정한다. 그는 "온 세상이 꽃이라면"이란 가설 하에서 이 작품이 출발한다고 말한다. '천사'와 '군인'이라는 서로 어울리지 않을 법한 이 두 단어의 대위법적 관계는 그래서 의미의 전복을 그 중요한 전략적 목표로 삼는다.

2005년도에 발표한 이 <천사-군인>은 싱글 채널 비디오를 중심으로 디지털사진, 오브제, 퍼포먼스 등 다양한 매체가 동원된 역작이자 이용백의 존재를 화단에 부각시키는 계기가 된 작품이다.

먼저 퍼포먼스를 보자. 수영장의 대형 풀에서 수중 촬영한 이 작품의 배경은 각종 꽃으로 장식돼 있다. 벽면을 온통 뒤덮은 화려한 꽃 더미를 배경으로 꽃무늬 위장복을 입고 꽃으로 위장한 군인들이 천천히 움직이며 걸어 나온다. 화면에 하나 둘 나타난 군인들은 차례로 정렬하며 전방을 응시한 채 사주경계 자세를 취한다. 군인들이 손에 쥐고 있는 총도 역시 꽃으로 뒤덮여 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컴퓨터에 출중한 실력을 갖춘 젊은 해커들이 기업에 들어가 회사 컴퓨터의 방호벽을 치는 직업을 갖기도 하는데, 이러한 직업을 일러 '엔젤'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친구로부터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미술평론가 이안과의 인터뷰). 강하고 남성적이며 공격적인 군인의 이미지를 꽃무늬를 통해 친화적이며 여성적인 이미지로 바꿔놓고자 시도한 이 작품은 그런 의미에서 중의적이다. 그것은 60년대 이후 우리나라를 점유해 온 군사문화의 폐해를 에둘러 비판하는 동시에 1990년대 이후 정보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의 생활세계를 하나의 은유를 통해 성찰하고자 한 노력의 결과물이다.

이 작품은 오브제로도 제시되었는데 군복에 중장 계급장을 붙이고 명찰에 레오나르도 다 빈치, 파블로 피카소, 마르셀 뒤샹, 존 케이지, 요셉 보이스, 백남준 등의 이름을 써놓은 작품들이 그것이다. 꽃무늬 전투복에 세계 예술계 거장들의 이름을 새긴 것은 일종의 유머러스한 상황의 설정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고정된 이미지의 전복을 통해 예술사를 풍자한 것으로 새길 수도 있다. 예술가가 거장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곧 수많은 전투적 상황을 거쳤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는가.

– 윤진섭의 '문화를 바라보는 깊은 시선' 中에서 발췌 : 「오늘의 미술가를 말하다3」(학고재刊) 수록

이용백 | LEE Yongbaek

학력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학과 졸업
슈투트가르트 국립조형 예술대학 회화과 졸업.
슈투트가르트 국립조형 예술대학 연구심화 과정 조각과 졸업. 독일

주요 개인전

2011 제54회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베니스, 이탈리아
2008 플라스틱, 아라리오갤러리, 천안
2007 뉴폴더, 아라리오베이징, 베이징, 중국
외 다수

주요 단체전

2010 이너머스 아이즈(Enormous Eyes), 길드갤러리, 봄베이, 인도
춘추(春秋), 학고재, 서울
한국현대미술_플라스틱가든, 민생현대미술관, 상하이, 중국
다른 유사함, 쿤스트페어라인 보훔, 보훔, 독일
2009 가상선, 갤러리현대, 서울
이미지 공화국, 살롱드에이치, 서울
분덕스, 국제미술프로젝트, 하노버파우스트미술관, 하노버, 독일
외 다수

2011 Angel-Soldier_17분_HD영상_2011

작품설명을 해야겠습니까? 보고서도 모르시겠어요? 잠수함이 들판에 방치된 겁니다. 녹이 슨거죠. 너덜너덜 해진 겁니다. 무기가 고철이 된거죠. 무기가 필요 없어진 겁니다. 왜 잠수함이 쓸모가 없어지고 저 모양이 됐는지는 물어보지 마시죠. 왜냐면 전 잠수함 같은 것이 왜 물속에 물고기들이랑 같이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니까요.

이윤엽 | LEE Yunyop

학력

수원대 서양화과 졸

기타(작품 소장 및 레지던시 등)

- 작품 소장
  국립현대미술관, 경기도 미술관, 수원미술관, 사키마 미술관
  후쿠오카 아시아 미술관

주요 개인전

2011 사람이 있다 (오키나와 사키마 미술관)
2007 일전 (인천해시 안성시민회관)
2006 이윤엽 목판화전 (수원 갤러리 눈)
2004 사람 윤엽 전 (수원미술전시관)

주요 단체전

2011 5.18기념 1991년 청춘의 기억전 (전남대학교)
Art Road 77 아트페어 (헤이리 갤러리 한길)
2010 2010 아시아 그리고 쌀 ASIA and RICE –
쌀과 인간+ 쌀과 정치 (전북예술회관)
황해미술제<인정투쟁:당신의No.1> (인천종합예술회관)
낙원의 이방인(낯선도시로의 시간여행) (수원미술전시관)
2009 용산참사 게릴라 기획 " 망루전亡淚戰 " (평화박물관)
생명.평화를 그리며–류연복,김억,이윤엽 3인 판화전 (평택 베아트센터)
新 능화판–고판화, 현대디자인과 만나다展 (김내현화랑)
2008 수원민중미술 20년 전 (수원미술관)
민중의 고동 (국립현대미술관)

버려진 무기_목판화_149×212cm_2011

경계를 넘어_빔 프로젝트_1820×1080 해상도_2011

경계를 넘어

분단 50년의 한반도 서해에서는 바라보지만 갈 수 없는 땅이 있다. 늘 바라만 볼 수 밖에 없는 현실의 슬픔을 갈매기와 잉어 때에 마음을 담아 대신 경계를 넘어 가고자 하는 소망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역사에 대한 기억

서해는 우리에게 특별한 기억을 안겨준다. 분단의 아픔 속에 말 못한 이야기들과 역사가 담겨있다. 작품은 쏟아지는 폭포를 통해 역사의 흐름을 표현하며 그 위를 타고 내려오는 사건들이 물속을 뛰어드는 파장으로 우리가 느끼는 아픔과 감정들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이남 | LEE Leenam

학력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조소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영상대학원 영상예술학 박사과정 수료

수상

2010 선 미술상 수상
2009 대한민국청년미술상 수상
2005 올해의 미술가 대상수상, 올해의 청년작가상 수상
광주 미술상, 하정웅 청년작가상, 신세계 미술상대상

기타(작품 소장 및 레지던시 등)

- 작품 소장
청와대, 리움미술관, 삼성그룹창조관, 주미대사관, 주독대사관, 예일대학교, 서울시립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경기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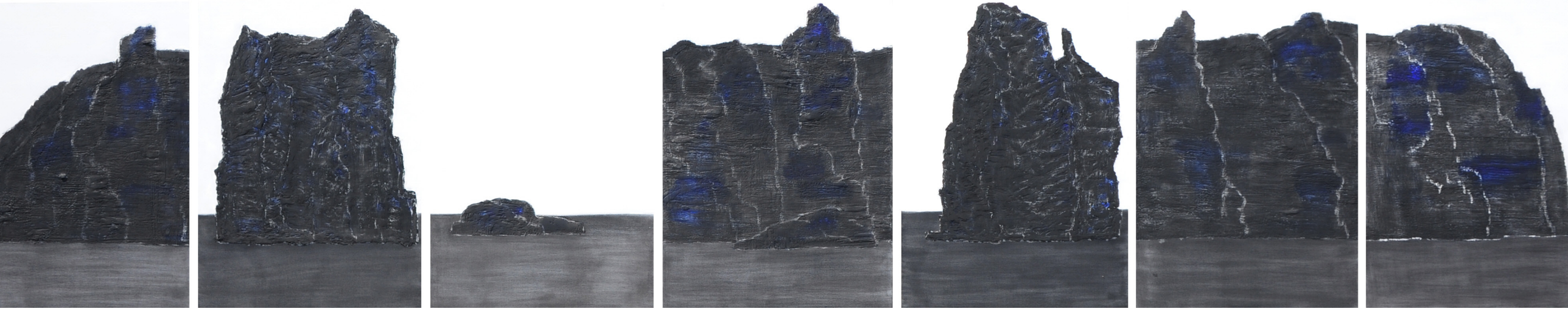
주요 개인전

2011 주시드니한국문화원 전시
홍콩아트센터 - 홍콩
미국 미시건 대학교 내 데노스 뮤지엄 전시
G20 시청작품 특별전 - 광주
2010 선 갤러리, 서울
신세계 갤러리, 광주
외 다수

주요 단체전

2011 고베 비엔날레
2011 청도비엔날레
2011 북경아트페어
2010 G20 서울정상회의 미디어아트작품전시
예일대학 동양의 문화 전
한,러 수교 20주년 전시, 볼쇼이 극장
외 다수

역사에 대한 기억_LED TV 55inch_1058×8815mm_2011



Mind-Space 두무진_캔버스에 혼합재료_53×431cm(72.5×53cm 7ea)_2011

서해

최인훈의 소설 광장의 첫구절은 아마 이렇게 시작했을 것이다. “바다는 크레파스보다 진한, 푸르고 육중한 비늘을 무겁게 뒤채면서 숨을 쉰다.” 좌우 이념의 깃발을 버리고 중립국 인도를 선택한 이명준은 그 바다 어디 쯤 미지의 공간에 자신의 몸을 던짐으로서 자신의 존재를 지워 버린다. 오늘 난 서해바다의 끄트머리 섬 백령도 가는 배편에 서서 1953년 어느날의 이명준을 생각했다. 흩뿌리는 빗줄기 속에서 검은 한 무더기의 돌섬 두무진은 침묵한다.

이인 | LEE In

학력

동국대학교 졸업

기타(작품 소장 및 레지던시 등)

– 작품 소장
국립현대미술관, 국토개발연구원, 금호미술관, 파라다이스문화재단, 국가경영정보원, 포항공대학술문화관, 외교통상부, 아트뱅크, 태평양법무법인, 경기도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거제문예회관

– 레지던시
몽골고비박물관(한국문화예술위원회기획)
제주현대미술관

주요 개인전

2005 가람화랑
2002 문예진흥원 미술회관
1996 금호미술관
외 다수

주요 단체전

2011 시화일률(가나아트센터)
2010 경기도의 힘(경기도 미술관)
강진 Celadon Art Project (강진 청자박물관)
외 다수

짙푸른 수평선과 넘실거리는 파도, 가슴으로 다가오는 장쾌한 풍경의 동해와 달리 서해는 무너진 해안의 절벽과 낮은 산자락으로 이어진 갯벌과 누런 바다로 인해 낭만의 풍경이 아닌 가난한 삶과 노동에 찌든 바다로 떠오른다. 그러므로 즉흥의 감동보다 오랜 세월 염분에 찌든 삶을 서해에서 보아온 시인은 이를 인생이라 정의했다. 그러나 인생이란 아무나 함부로 언급할 수 없는 거룩하고 숭고한 세계라 할진대 시인은 예술조차 사치한 것으로 치부하여 저 아름다운 동해를 예술로 일갈하고 서해를 인간적인 바다로 감싸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서해는 인생의 바다이고, 삶의 바다인 것이다. 더불어 내 인생의 일부도 서해에서 성장했거니와 나로서도 벗어날 수 없는 애증의 바다가 서해이다. 나를 비롯하여 한반도의 서쪽에 사는 모든 백성들의 삶터로서 존귀한 인생의 바다인 것이다. 그러나 서해는 근래 들어 한반도 서쪽 사람들의 삶과 인생을 감싼 바다에서 변질하여 이념과 패권을 다투는 강대국의 각축장이자 냉전의 현장이 되었다. 온갖 살상의 군함과 무기들이 떠도는 바다인 것이다.
이번 작업을 하면서 아마도 내가 서해와 태생적으로 맺은 인연이 없었다면 어쩌면 아름다운 한 폭의 풍경화로서 섬과 바다의 풍경을 거침없이 그렸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마냥 아름답고 서정적인 풍경화로서 서해를 그릴 수가 없었다. 서해를 떠돌며 평화를 위협하는 강대국과 남북의 무기들이 힘껏 가슴을 누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서 냉전의 철조망을 걷어내고 평화와 풍요로운 삶을 담보하는 인생의 바다로 회복되길 염원해 본다.

'동해는
예술이요
서해는
인생이다'

– 고은

이종구 | LEE Jonggu

학력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회화과 졸업

수상

2010 우현예술상, 인천문화재단
1994 가나미술상, 가나아트

기타(작품 소장 및 레지던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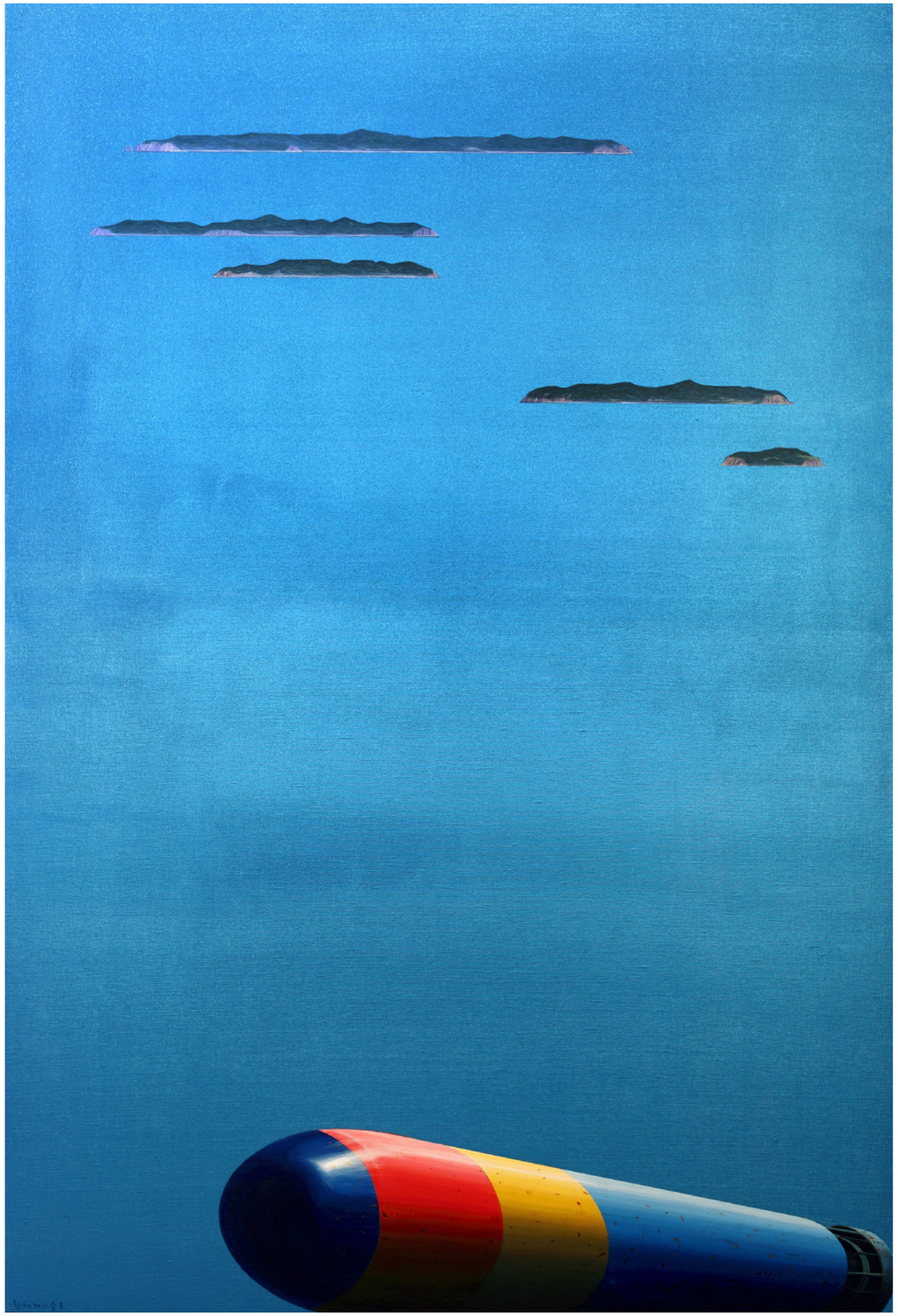
– 작품 소장
국립현대미술관, 대전시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전북도립미술관, 성곡미술관 OCI미술관

주요 개인전

2009 국토: 세개의 풍경 (학고재, 서울)
2005 올해의 작가 2005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외 다수

주요 단체전

2011 올해의 작가 1995-2011 (국립현대미술관)
코리안 랩소디 (삼성미술관 리움관, 서울)
서울미술대전-눈을 속이다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상생과 공존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2010 아시아 리얼리즘 (싱가포르국립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현대미술로 해석된 리얼리즘 (경남도립미술관, 마산)
외 다수



황해 The Yellow Sea_디캔버스에 아크릴릭_193×130cm_2011

돌 깨는 사람들 (The Stone Breakers)

만약 인간에게 오래된 욕망이 남아 있다면 그것은 전쟁이다. 그래서 인간은 필요에 의해 전쟁을 소비한다. 하지만 전쟁은 인간을 이해하지 못 하듯 날아든 포탄은 전쟁을 해야 할 최초의 목적까지 파괴시켜 버린다. 그럼으로 내가 슬픔에 대해 느껴야 한다면 전쟁이 남긴 학살과 파괴의 흔적이 아닌 인간의 역사에 남겨진 비정상적인 욕망이다.

이탈 | LEE Tal

학력

경기대학교 예술대학 서양화학과 졸업
경기대학교 조형대학원 미술학과 졸업

경력

2010 공공미술프로젝트 아름다운 교문 만들기 기획(인천문화재단)
공공미술연구소 문화수리공 디렉터

수상

2010 우현예술상, 인천문화재단
1994 가나미술상, 가나아트

기타(작품 소장 및 레지던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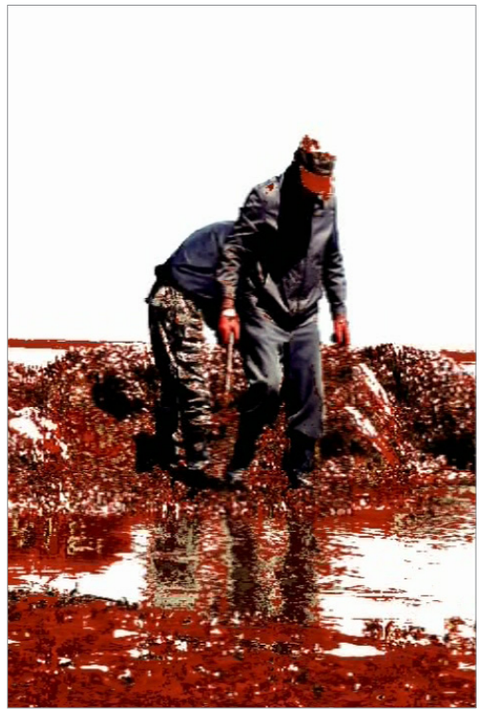
- 레지던시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프로그램 1기 입주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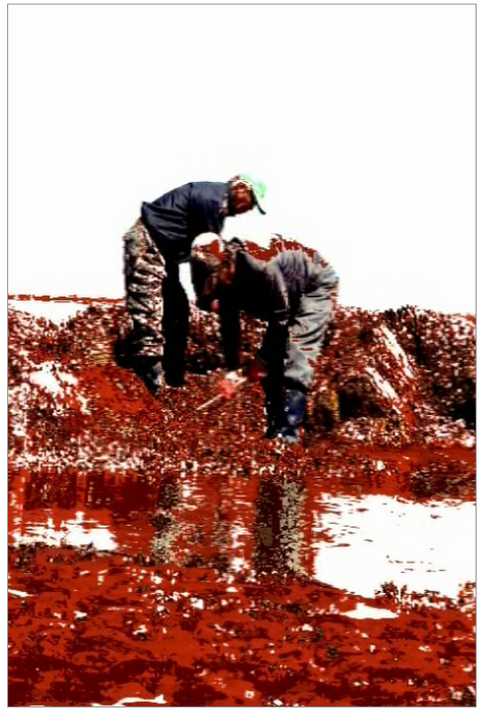
주요 개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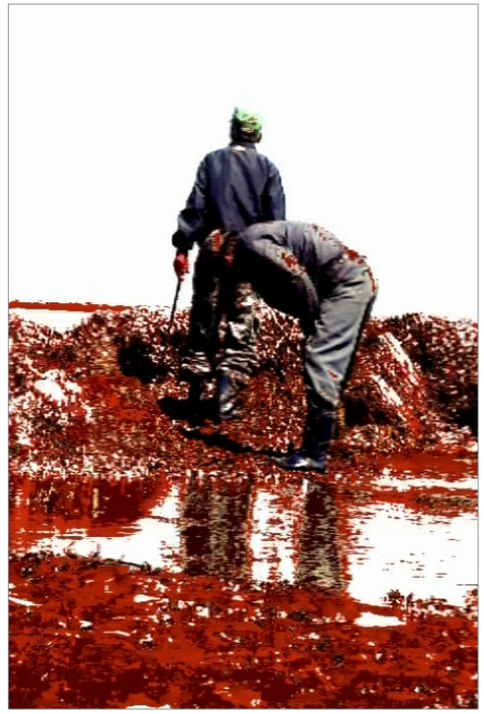
2009 I look like that(나는 그렇게 보인다)(문화공간 해시, 인천)
2008 To Stand in the Desert(사막에 서서)
(invited by jun cheong gallery, Shanghai, 중국)
2007 Fat Pigeons살찐비둘기 (PI ARTWORKS Gallery초대개인전,
이스탄불)
외 다수

주요 단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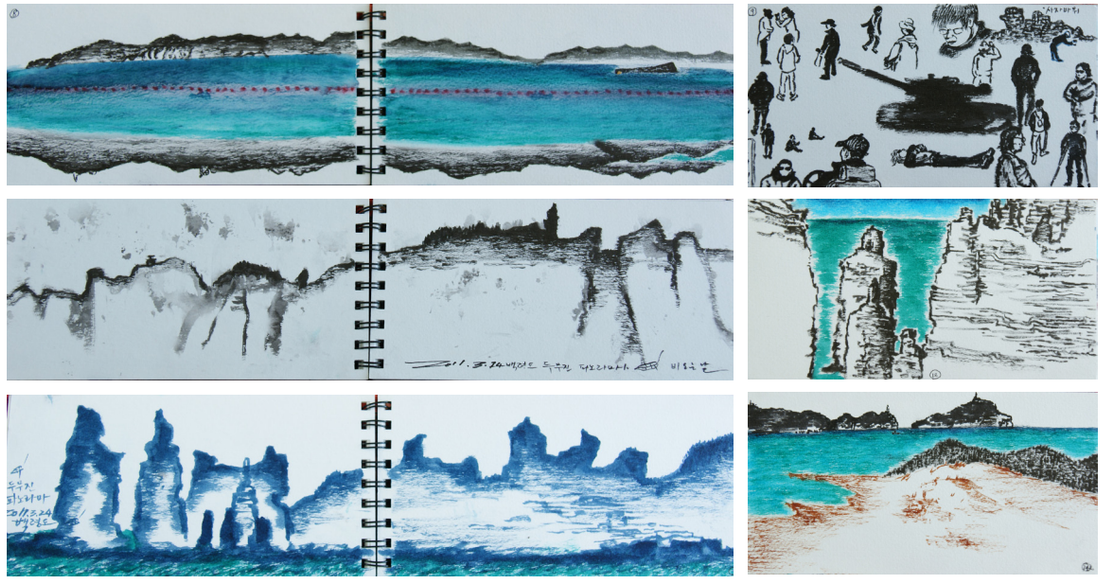
2010 Pan Asia-crazy Wisdom
(인천아트플랫폼,광주시립미술관,광주비엔날레전시관)
미술과 과학의 만남전(가온갤러리, 인천)
인터뷰전(인천아트플랫폼, 인천)
숭의전에서 고려를 만나다(숭의전, 경기도 연천군)
인천아트플랫폼 기획전_접속
(인천아트플랫폼 B동 전시장 및 야외공간)
외 다수







돌 깨는 사람들 The Stone Breakers_3분 30초_싱글 채널, ntsc_2011



백령도와 대청도의 푸른 바다, 붉은 땅과 푸른 바다

정정엽 | JUNG Jungyeob

학력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졸업

수상

2010 우현예술상, 인천문화재단
1994 가나미술상, 가나아트

기타(작품 소장 및 레지던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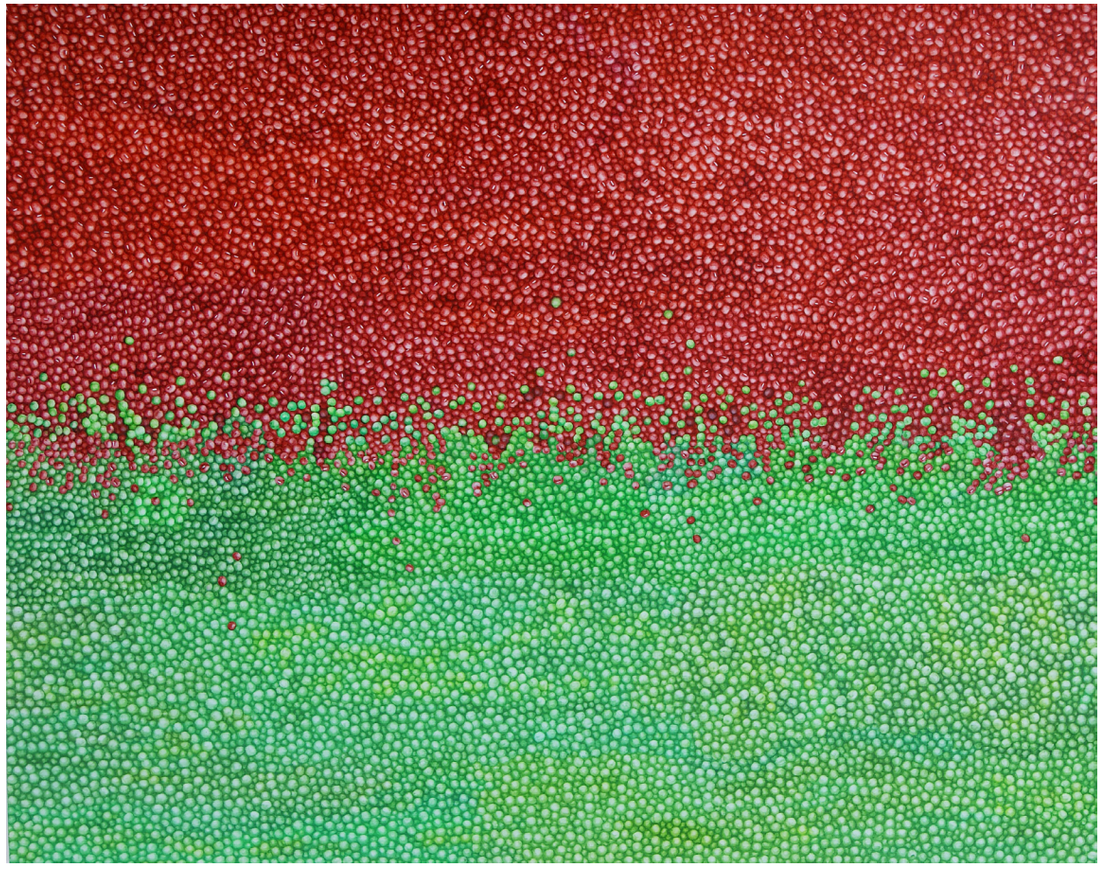
- 작품 소장
  경기도 미술관, 아르코 미술관, 국립 현대미술관, 국립 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인천문화재단 미술은행, 경기지방공사, 달링 문화재단, 아하! 청소년 성 문화센타

주요 개인전

2009 제8회 개인전 "얼굴 풍경" (대안공간 아트포럼 리)
2009 제7회 개인전 "red bean" (스케이프 갤러리)
2006 제6회 개인전 "지워지다"(아르코 미술관) "멸종" (비나리 산골미술관)
외 다수

주요 단체전

2009-2011 OFF THE BEATEN PATH:
VIOLENCE, WOMEN AND ART:
An International Contemporary Art Exhibition
(산티아고,오슬로,멕시코,시카고)
2011 암스텔담 아트페어(암스텔담)
외 다수



팥과 완두 Red bean and Green bean_캔버스에 유채_91×116cm_2011

아름다운 하늘에 비행기다.
폭격.
분쟁의 폭탄이 아니라 사방 터지는 꽃무리.
화폭(花爆)이다.
그런 폭탄이면 정말
한(恨) 없겠다.

정평한 | CHUNG Pyunghan

학력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회화학과 졸

경력

2000~2004 전교조 인천지부 '인천교사신문' 만평연재
2005~2007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신문 '교육희망' 만평연재

인천민족미술인협회 회원
인천공항고등학교 미술교사

기타(작품 소장 및 레지던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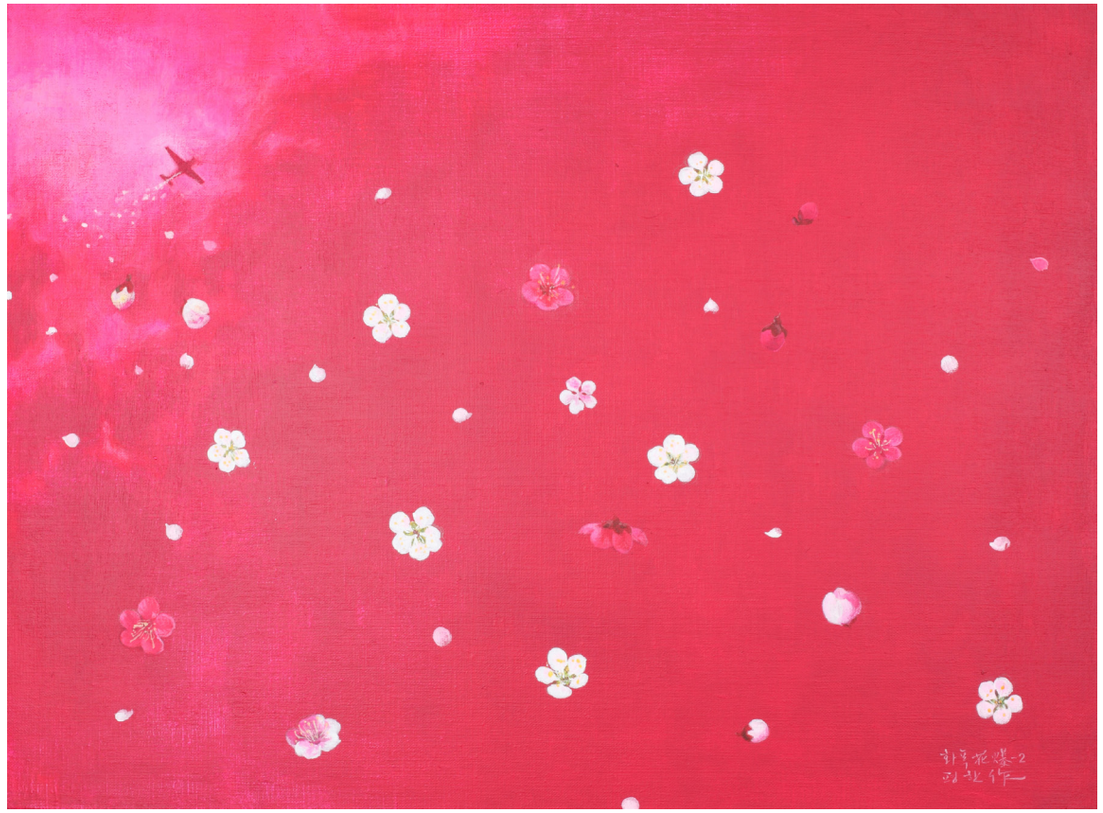
- 작품 소장
  한길사 '이병주전집' 표지화, 한길사 소장

주요 개인전

2011 개인전 '책-그림'(미추홀도서관, 인천)
2005 개인전 '숲선생의 초상' (신세계갤러리, 인천)
외 다수

주요 단체전

2011 5월 너를 관조하다 (미추홀도서관, 인천)
'1991 청춘의 기억!' (전남대학교, 광주)
2010 황해미술제 '인정투쟁-당신의 No.1'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인천)
인천의 몸 (부평아트센터, 인천)
2009 진달래전 (호담갤러리, 강화)
교육희망전 (가온갤러리, 인천평생학습관)
외 다수



화폭-2 花爆-2_캔버스 위에 아크릴_72×53cm_2011

[...] 자신의 고통은 크고 중하게 여기면서 상대방의 고통은 작고 가볍게 여길 때 서로의 고통 어루만지기는 불가능해요. 알면서도 나는 당신을 잡아 줄 수가 없었어요. 내 아픔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이기심 때문이죠.
마음을 깊이 바라볼 때 진정한 이해도 생겨나고 소통도 가능해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한껏 사랑하고 충분히 아파하는 사랑을 겁내지 않기 그렇게 열정적으로 솔직하고 용기 있게 행동해야 했는데 전 그러지 못했어요. 어제보다 오늘을 더 새롭게 더 멋있게 살아주세요. 나로 인한 아픔이나 상처들은 걷어내고 그 안에 담긴 긍정적인 의미들을 찾아내서 삶의 새로운 자양분으로 삼는다면 스스로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을거라 생각해요. 마음이 더 단단해 질 수 있어요. 지금 전부 떨치고 일어나세요. [...]

조습 | JO Seub

학력

경원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경원대학교 대학원 회화과 졸업

수상

2005 제13회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수상 – 문화관광체육부

기타(작품 소장 및 레지던시 등)

– 작품 소장
후쿠오카 아시아 미술관 ,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경기도 미술관,
인천문화재단 미술은행, 평화박물관

– 레지던시
인천아트플렛폼, 인천

주요 개인전

2010 컨테이너, 카즈, 오사카, 일본
2008 누가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가, 갤러리 2, 서울
2007 악몽, 스페이스 빔, 인천
2005 몬지마, 대안공간 풀, 서울
외 다수

주요 단체전

2011 발굴의 금지, 아트스페이스 풀, 서울
코리안 랩소디 – 역사의 횡단, 삼성미술관 리움, 서울
바늘 하나 들어갈 틈, 스페이스99, 서울
2010 통기타 치는 미스 홍, 일현미술관, 양양
대한민국 – 미래모색,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안동
기억의 경계, 아직 쓰여지지 않은.., 포천아트밸리, 포천
외 다수

마지막 편지 Last Letter_편지지 위에 잉크_29.7×21cm_8pieces_2011

평화라는 주제는 매우 보편적인 것이어서, 어떤 내용으로 작품을 할지 몹시 고민하였다. 한국 그것도 인천에서 열리는 전시인 만큼 남북한의 내용을 작품에 담고 싶었다. 홍수가 나면 소가 북에서 남으로 떠내려 오기도 한다는 이야기, 북한을 돕기 위해 남한에서 북으로 소를 보낸 적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떠올랐다. 그리고 백령도를 방문해 보니 북한땅(장산곶매)이 보이는 곳에 심청각이 있었다. 장산곶매의 끝자락에 인당수가 있다고 한다. 전설의 장소가 지척에 있는데, 닿지 못하다니, 중국인인 나로서도 안타까웠다. 단정히 치마저고리를 입은 심청이를 그리며 남북한의 화해를 기다려본다.

—

평화를 위한 이번 전시에 이렇게 다 같이 모일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과학기술은 북경, 서울, 인천, 유럽, 미국에서의 생활을 보다 가깝게 연결해 주었기에 좋은 점도 있지만 양날의 검처럼 위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보다 서로를 더 이해하고 함께 평화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 분쟁의 바다 화해의 바다展 개막식 인사말 중

조우치 | ZHOU Qi

학력

중앙미술학원

주요 개인전 및 단체전

2009 Round Inspiration China, 샹위안수 갤러리, 베이징
한중 현대미술 교류전, 798 렌 갤러리, 베이징
한중 현대미술 교류전, 시종 갤러리, 서울
60-70-80 중국현대미술展, 캐슬 갤러리, 투르
The Game-Fantasia in China, 39 Art Space, 베이징
The Spirit of Heights, PBOUD Gallery, 베이징

2008 조우치 2007-2008, Lee C Gallery, 서울
송장 현대미술 2008, 송장 오리지널 아트 전시 센터, 베이징
중국 현대미술-15인전, 오리지널 아트 전시 센터, 베이징
Chinese Red, 다멩 스페이스 갤러리, 베이징
Extraordinary 08.cn-Contemporary Art Exhibition,
88 Art Literature , Storehouse, 베이징
동방의 빛, 서울아트갤러리, 한국
중국현대회화展, 광주, 한국
한중현대미술 교류전-바다 고양이와 붉은 고양이의 만남,
거제문화예술회관, 한국
2008 현대미술과 문학, 개화 미술관, 베이징
중국 예술가 4인전, 소울 갤러리, 베이징
Inaccuracy in Version, 67 아트 스페이스, 베이징
외 다수

The Oceanic Wind_캔버스 위에 아크릴_100×85cm_2011

The Peaceful Night_캔버스 위에 아크릴_100×85cm_2011

오랜 옛날부터 인간은 무엇인가를 숭상해왔다. 그리고 그 숭배의 대상은 강력한 힘을 갖게 되었다. 인간은 그 대상에게 의지하고, 타인을 고(告)하고, 고해(告解)했으며, 그 대상을 숭배하지 않는 모든 이들을 적대시했다. 긴 시간 속에서 신앙은 종교가 되었고, 공동의 약속은 이데올로기가 되었다.
믿음의 양식들이 집단화되고 체계화되면서 '우리'와 '그들'의 구분은 더욱 엄격해졌고, 그 구분은 서로 충돌했다. 가장 최초의 전쟁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종교와 이데올로기는 그 안에서 서로의 우열을 다투면서, 우등한 것이 모든 다양한 믿음과 사고를 전복하기를 계획해왔다.
이번 작품에서 실연(實演)하고자 했던 바는, 그 불안한 힘의 불균형과 그 갈등 속에서 서로를 소거(消去)하려는 기도(企圖)의 허무함이다. 구조물에 채운 물은 경계를 알지 못하고 '사이'를 넘나들며 하나로 존재하는 개체(個體)이자 전체(全體)이다. 물은 모든 유물적인 것과 관념적인 것을 우열없이 그대로 수용한다. 이러한 절대적 화(和)의 공간은 또한 우주를 상징한다. 그 안에는 인간이 만들어 냈고, 그로 인해 수많은 생명들을 무의미한 싸움의 희생양으로 만들었던 사유양식, 즉 이데올로기와 종교를 상징하는 인물상들을 오브제로 담는다. 구조물 안에 담긴 인물상들은 현실세계의 적대적 구도에서 벗어나, 범우주적 균형을 이루면서, 인간 삶의 새로운 자장(磁場)을 제시한다.

차기율 | CHA Kiyoul

학력

인천대학교 미술학과, 동 교육대학원 졸

수상

2010 부산비엔날레 한국대표작가, 4인의 세계대표작가 선정
2001-2002 Vermont Studio Center Freeman Fellowship (winner)
2000 중앙미술대전 우수상 (중앙일보사 주최,호암갤러리, 서울)

기타(작품 소장 및 레지던시 등)

- 작품 소장
  광주 시립미술관 하정웅 컬렉션 (광주 시립 미술관, 광주)/서울 문화재단
  남산 창작센터(서울)/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소마 드로잉센터 (소마미술관, 서울)/ 인천 문화재단 (인천)/쿠베르탱 재단 (파리)/도자기엑스포 조각공원 (경기도 광주)/ 경기문화재단 (수원)/ 중앙일보사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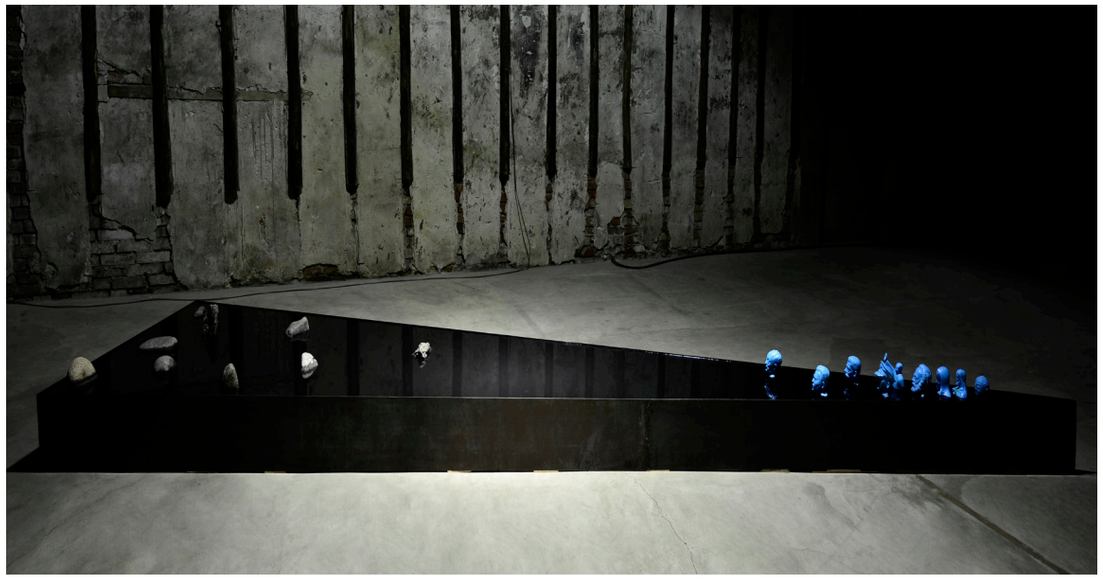
- 레지던시
  Nomadic Arts Residency program-2010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외교통상부, 제주도)
  Nomadic Arts Residency program-200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gobi, Mongolia)
  외 다수

주요 개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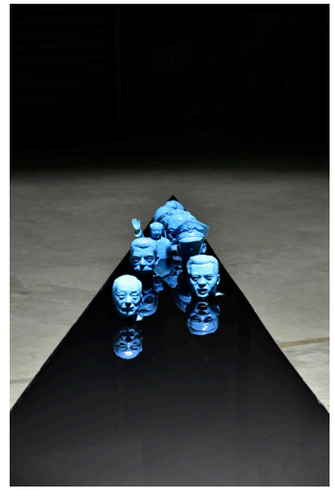
2011 순환의 여행 / 방주와 강목사이 (LA ART CORE, Losangeles)
2010 순환의 여행 / 방주와 강목사이 (갤러리 쿤스트 독, 서울)
2009 세개의 장소 (공간 화랑, 서울)
2008 순환의 여행 / 방주와 강목사이 (벨벳 인큐베이터, 서울)
외 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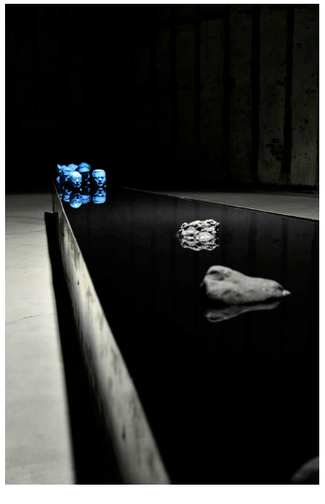
주요 단체전

2011 메이크샵 아트 스페이스 개관기념 '아니마투스' (파주 출판도시)
2010 부산비엔날레 '진화속의 삶' (부산 시립미술관, 부산)
2009 노마딕 프로젝트"Time & Space"
(남고비사막, 달란자드가드 씨티뮤지움, 몽골리아)
2008 차기율 / 데미세 히사오 2인전 (이와사키 뮤지엄, 요코하마)
외 다수



순환의 여행-화해和諧_철, 물, 자연석, 인물 미니어처 500×132×(h)54cm_2011





경계; 선 긋기
경계; 나누기
경계; 풀어내기
경계; 없애기– 무화
경계; 여백

최병국 | CHOI Byungkuk

학력

제물포 고등학교를 졸업
서울대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동 대학원 동양화과 졸업

경력

한국교원대, 청주대, 중앙대, 경원대, 대진대, 수원대, 경희대 등 출강
한국미협 기획정책위원, 남동문화원 부원장, 인천미협 부회장 역임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과 인천광역시 미술대전 심사 및 운영 위원 역임
인천 –상해 국제교류전을 결성하여 4회까지 운영위원장 역임
인천아트페어 기획, 초대 운영위원장 역임
한·러 수교 20주년 기념– 제1회 한·러 국제미술교류전 커미셔너
현재 인하대 출강, 국제미술진흥협회 회장, 인천미술협회 회장

주요 개인전

인천, 서울, 뉴욕 등에서 18회 개최

주요 단체전

화이낸셜 뉴스아트페스티벌, G20월드아티스트페스티벌 등 아트페어를 비롯한 단체 그룹전 250여회 참가

경계_화선지에 수묵_73×120cm_2011

백령도는 아버지의 삶 전부였다. 6.25사변 후 피난민과 섬 주민들의 정착을 위해 당시 면장이신 아버지는 부족한 농토를 만들기 위해 간척사업을 구상하셨다. 정부의 인가를 받기 위해 수도 없이 머나먼 뱃길로 서울을 오가셨단다. 그 험난했을 바다! 그리고 아버지의 고난과 사랑을 쏟아낸 고향 섬! 백령도!
지난해 천안함 사건으로 젊은 영혼들이 잠긴 슬픈 바다! 그 섬을 찾아갔다. 북녘을 가까이 한 두무진의 비경을 바라보며 이제는 한의 바다, 슬픔의 바다가 아닌 아름다운 평화가 머무르는 바다를 꿈꾼다. 그 바램을 작품에 담아본다.

아버지의 바다-백령도_캔버스 위에 유채, 사진_22×29cm_12 pieces_2011

최정숙 | CHOI Jungsook

학력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졸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서양화과 수료

주요 개인전

2010 개인전 (인사아트센타)
2007 개인전 (혜원갤러리 초대)
2006 개인전 (중국칭다오시박물관 초대)
외 다수

- 부스개인전
2007 2회
2004 1회

주요 단체전

2011 홍익여성화가협회30주년 기념전 (서울 예술의 전당)
2010 서울 2010 아시아 탑 갤러리 호텔 아트페어 (신라호텔)
2010 아트 에디션 (부산 벡스코)
외 다수

아버지의 바다-백령도_캔버스 위에 유채_97×130cm_2011

벙커 옵스쿠라(어두운 대피소)와 벙커 루시다(밝은 대피소)는 연평도에 소재한 대피소의 내부를 찍은 한 쌍의 이미지이다. 벙커 옵스쿠라는 출입문의 작은 구멍을 통해 빛이 들어와, 외부의 상(像)이 대피소 내벽에 상하가 바뀌어 투사되는 모습이다. 벙커 루시다는 태양빛이 대피소 바닥의 일부를 강하게 비추고 있는 장면이다.

연평도에는 주민들을 위한 대피소가 19개가 있으며 내가 촬영한 이 대피소는 주거지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었다. 연평도가 평화와 분쟁의 가능성을 항시 내포하고 있는 만큼, 희망하건대 언젠가 필요 없어질 연평도의 랜드마크로서 대피소에 주목하였다.

—

이번 전시를 위해 저는 연평도를 방문하고 섬에서 제작한 작품을 출품하였습니다. 저는 연평도에 있는 19개의 대피소 중 한 곳의 내부를 촬영하였고, 그 중 사진 작품 한 쌍의 이미지를 이번 전시에서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연평도의 전망대 두 곳에서 촬영을 한, 북한쪽으로 해가 지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섬에 가서 느낀 것은 섬 전체에 군대의 존재감이 점점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저의 희망은 우리가 이 섬에서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가 제 작품을 먼 과거의 역사적 기록으로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 분쟁의 바다 화해의 바다展 개막식 인사말 중

타케시 모로 | Takeshi Moro

학력

시카고 인스티튜트 오브 아트, 사진 전공, 미국
런던 왕립 미술원 교환학생
브라운 대학교, 경제학 및 시각 예술 전공
로드 아일랜드 디자인학교, 브라운 대학교 교환학생, 사진 과정 수료

기타(작품 소장 및 레지던시 등)

– 작품 소장
Museum of Contemporary Photography, 시카고, 일리노이주, 미국
Mary Jane Jacob Curatorial Collection, 시카고, 일리노이주, 미국
Wang Collection, 뉴욕, 미국
외 다수

– 레지던시
Artist in Residence, Skaftfell, Center for Visual Art, Seydisfirdi, 아이슬랜드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프로그램, 인천
Artist in Residence, Partial funding by Finnish Cultural Foundation, Arteles, Haukijarvi, 핀란드
외 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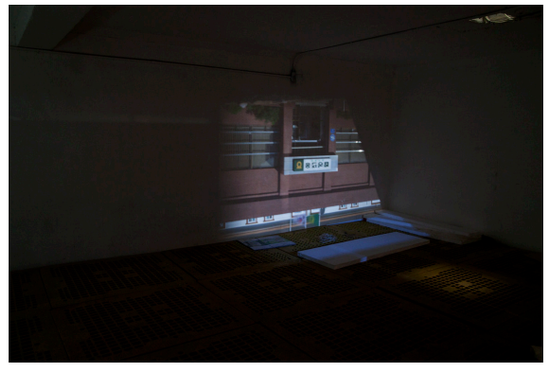
주요 개인전

2011 UBS 12x12, 현대미술관, 시카고, 미국
Untitled Men, Arteles Gallery, Haukijarvi, 핀란드
Reconciliation, Dayton Visual Arts Center, Dayton, 미국
외 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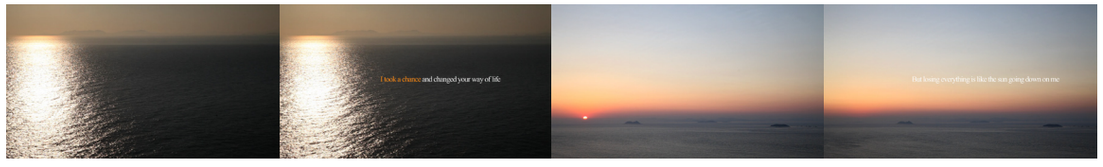
주요 단체전

2011 ART CHICAGO, Museum of Contemporary Art Chicago
Exhibition, 시카고, 미국
Times, Interludes, and Action, Collage Art Association, 뉴욕, 미국
Rajaportin Gallery, Tampere, 핀란드
2010 Residency Presentation, Alkovi Gallery, 헬싱키, 핀란드
Snow, XL Projects, 뉴욕 시라큐스, 미국
Art Loop Open, 시카고, 미국
외 다수

Bunker Lucida_피그먼트 프린트_40×60cm_2011



Bunker Obscura_피그먼트 프린트_40×60cm_2011



Untitled Sunset_HD 비디오_6분_2011

생전 처음 말로만 듣던 백령도, 대청도 등 서해안 북단의 섬들을 가 보았다. 우리나라 전체에서 지리적으로 보면 거의 중심부에 위치한 천혜의 비경과 풍광, 그리고 역사를 지닌 섬이다. 그러나 지금은 살벌한 분단의 최전방이다. 인걸은 유구해도 산천은 의구한 것. 그 아름다움을 하나하나 담고 싶었다.

하성흡 | HA Sungheub

학력

전남대학교 미술교육과

주요 단체전

2011 내외지간전 (광주 시립미술관)
2010 5.18 민중항쟁 30주년기념전(U 스퀘어)
2008 한중 수묵화 교류전
2007 도시와 자연 (의재미술관,중국관산월미술관)
2006 개인전 (오픈스튜디오) "섬"전 (광주신세계갤러리)
외 다수

인당수_한지에 수묵담채_각 89.5×130cm_2011

커다란 혼처럼 작품 안에서 퍼져 나오는 소리는 방향을 잃고 떠돌다가, 마치 바다에서 뱃고동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방향을 가늠할 수 없는 먼 치에서 돌아온다.
하지만 작품 앞에 마주서면 스피커로 뒤덮인 깜깜한 방일 뿐이다. 스피커 저 끝에서 들리는 소리는 저 멀리서 작품에 다가가기까지 의도치 않게 소리를 들으며 상상했던 바다의 내음을 한 번에 무너뜨린다.
나는 그들에게 화해를 시도한다. 그 동안 보이지 않는 무수한 것들을, 들리는 것들에만 의지해 왜곡하고 편협적으로 받아들인 그들에게 명확하지 않았던 나의 모습에 대한 사과이자, 본질을 보았으니 다시 한 번 새롭게 시작하자 내미는 손이다.
관음(觀音), 소리를 본다.
작품에서 다시 한 번 소통을 하게 되길 바란다.
들리는 소리를 통해 보이지 않는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한원석 | HAN Wonsuk

학력

PhD. Architecture, Dpt. of Architecture, Univ. of Tokyo, Japan
Researcher at Tsinghwa University,
School of Architecture, China
Saints Martin Research Student, UK
Dutch Environmental Architecture Research
Program, The Netherlands
Awarded Master Degree with Research Project
'Rubbish Museum'
Chelsea College of Art & Design, UK

기타(작품 소장 및 레지던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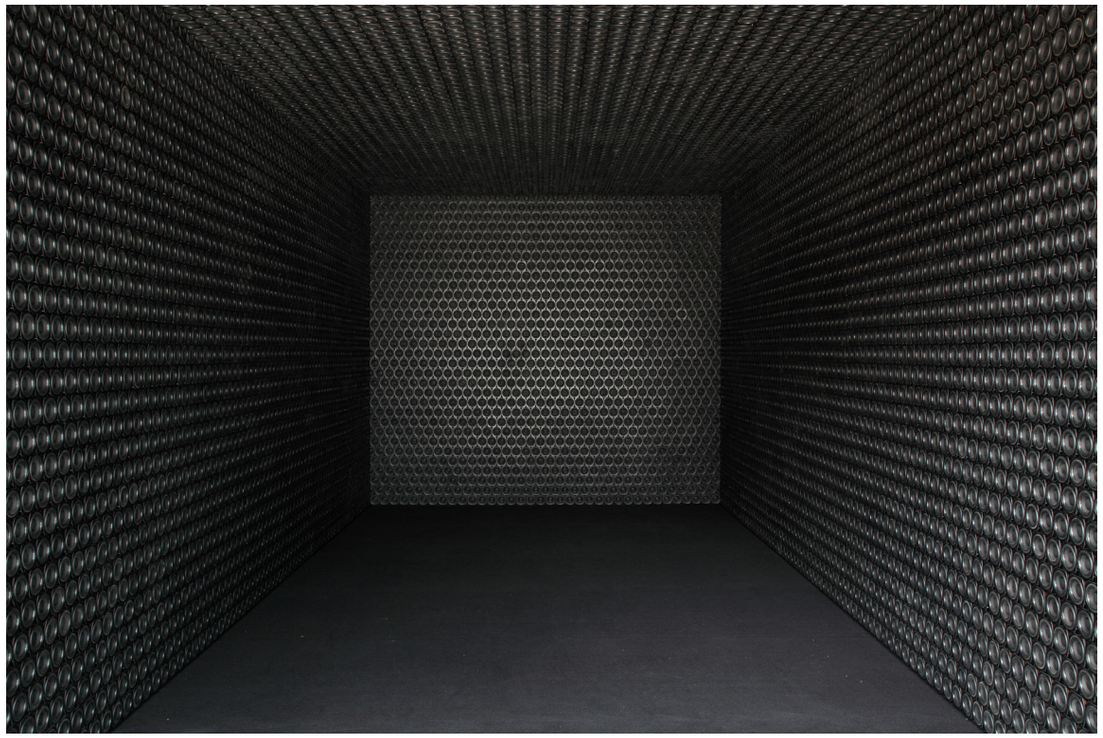
- 작품 소장
  대한교과서 'snow'
  하나은행 '환생'
  신 국립과학관 '나래쇠북'
  부산비엔날레 '형연'
  LIGNEX1 '엄마의 품'

주요 개인전

2011 제 4회 개인전 '화해', 갤러리 압생트, 한국
2008 제 3회 개인전 '형연' , 따산즈 798, 베이징, 중국
2006 제 2회 개인전 '환생' (청계천 복원 1주년 기념 일환 서울시 주최),
청계천 광통교, 한국
외 다수

주요 단체전

2011 <지구 The Earth> 그룹전, 'Sound Forest' , 성북구립미술관, 서울
2010 <Korea tomorrow> 'Sound Forest' , 'Trace' , SETEC, Korea
2010 <세라믹아트 앤 테크놀로지> 초대전 'Sound Forest',
양재동 AT센터, 한국
외 다수



화해II 花解II, ReconciledII_스피커, 전선, 오디오, 사운드_690×245×(h)275cm_2011

비나이다, 비나이다
황해바다 용왕전에 비나이다
일찍이 여러 나라 너나없이 드나들던
동아시아 황금바다 용왕전에 비나이다

사람들이 미욱하여 서로 간에 등 돌리고
용왕님 바다 위에 제멋대로 선 그으니
왕래는 고사하고 죽일 듯 쳐다보며
짐승 마음으로 살아 온 세월, 어언 한평생입니다

하나 어찌 바다에 붉은 선, 푸른 선이 있을 것입니까
우리 마음에 없으면 그 선은 있지만 없을 것이요
우리 마음에 있으면 그 선은 없지만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 소성주, 인천 막걸리 힘껏 가져 왔으니
저기 저 친구 들쭉술 가져와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대동여지전도처럼 선 없는 황해바다
교류와 상생의 이 바다에서
꽃게 잡고 밴댕이 잡아 함께 나누는
그런 대동세상 꿈꾸게 하여 주소서

늙으신 어머님 정화수 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비나이다

허용철 | HEO Yongcheul

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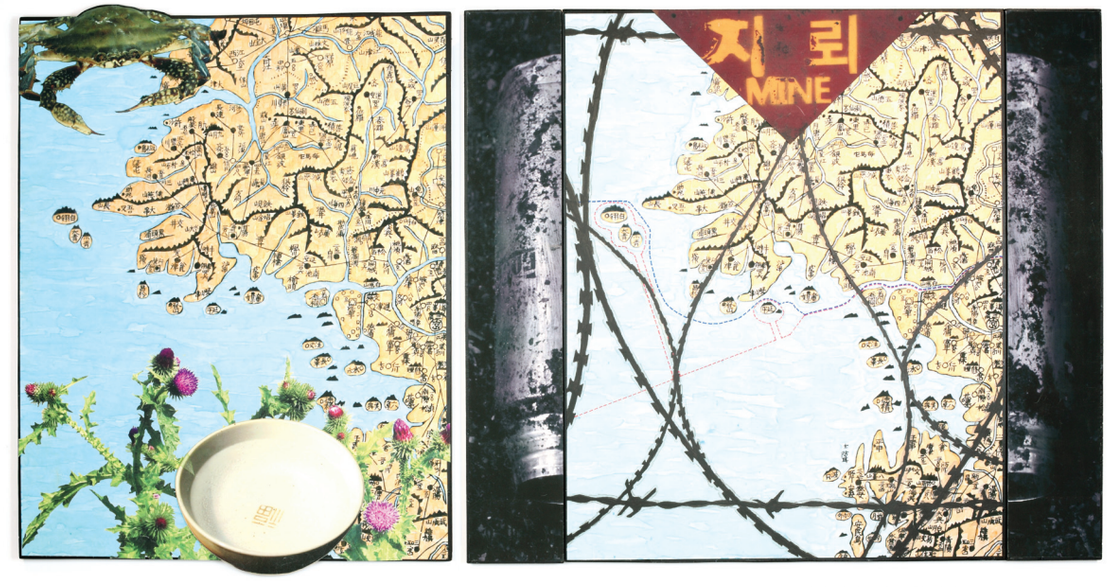
경희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졸

주요 개인전

2009 생명-상생 전(관훈미술관, 복합문화공간 해시)
2001 진경산수-강화도(대안공간풀, 인천종합문예회관)
1998 학교, 절망과 희망(관훈미술관, 다다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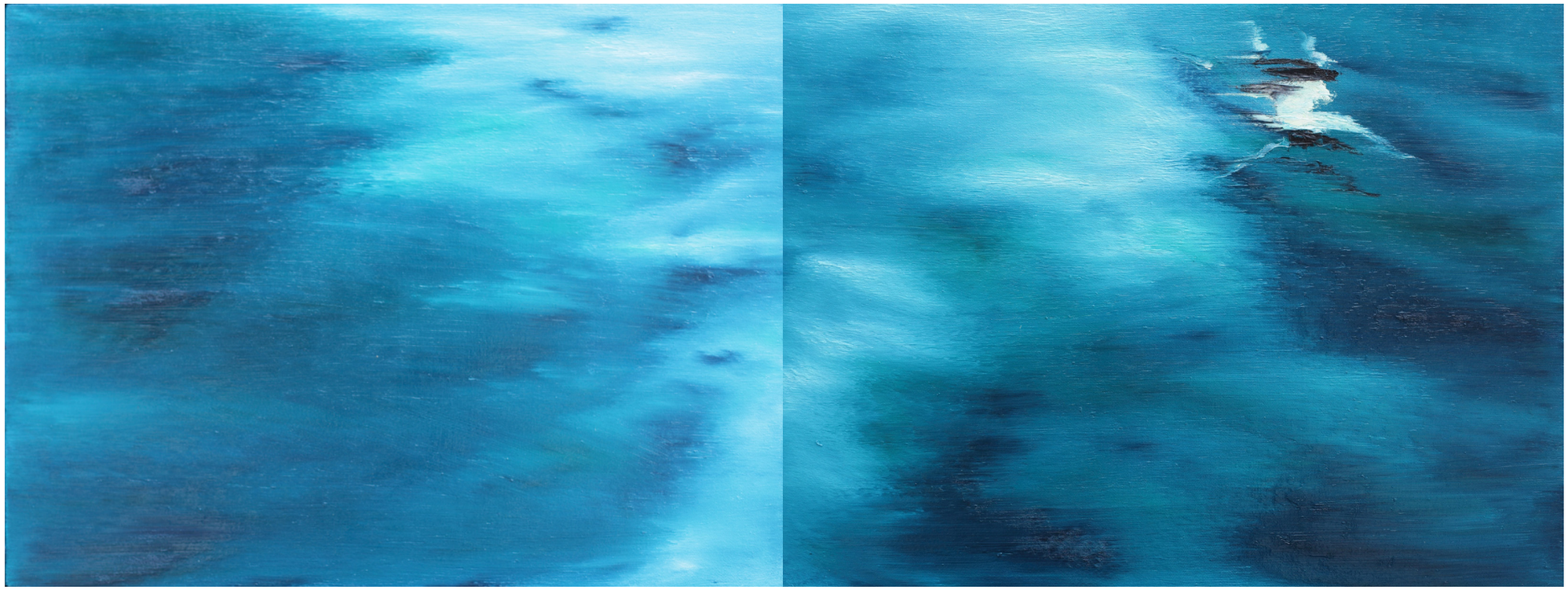
주요 단체전

황해미술제 외 다수



바다 바라보기_복합 매체_102×200cm_2011

인천 평화 미술 프로젝트 INCHEON PEACE ART PROJECT



허원주에 | HE Wenjue

학력

지린 미술학교 회화과 석사 취득
중앙미술학교 회화 전공
심천대학교 근대미술 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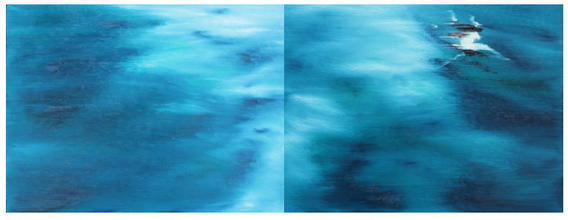
기타(작품 소장 및 레지던시 등)

- 작품 소장
중국국립미술관(베이징), 중국해외미술관(심천, 중국), Liu Haishu Art Museum(상하이, 중국), Zhejiang Museum(황주, 중국), Siemens Ltd.(베를린, 독일), Madrid National Swimming Center(마드리드, 스페인), Vanhaerents Art Museum(브뤼셀, 벨기에), Thomas Olbricht Museum(베를린, 독일), Yu Deyao Art Museum(자카르타, 인도네시아), 주미중국대사관(워싱턴, 미국), Swiss POLEDNA BOSS KURER (취리히, 스위스), 캐나다 왕립은행 홍콩점(홍콩) 외 다수

주요 개인전 및 단체전

2011 Supper in Great Times, Michael Schultz Gallery, 베이징, 중국
Crossover Report,Personal exhibition CROSSOVER CENTER, 베이징, 중국
2009 중국현대미술그룹전 The Second Reality,
Meridian International Center, 워싱턴, 미국
Beyond Globalization, Beyond Art Space, 베이징, 중국
중국현대미술전Metropolis Now, Meridian International Center, 워싱턴, 미국
2008 개인전, Frank Schlag Gallery, 에센, 독일
개인전 Watch Movie 2008, Beyond Art Space, 베이징, 중국
ShContemporary 2008, 상하이 중국
제7회 상하이 국제비엔날레, Shanghai Art Museum, 상하이, 중국
스위스 현대미술전, 스위스
헤이차오 현대미술전, 베이징, 중국
China Sound, Power Contemporary Art Exhibition, Ausa Art Space, 홍콩
Olympic Fine Arts 2008 China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베이징, 중국
From Ancient Olympia to Beijing Hellenic House, 베이징, 중국
Graft-Post-Modernism in Chinese Contemporary Art,
Shenzhen HUA Art Museum, 심천, 중국
외 다수

활발한 국제적 활동으로 이미 중국과 아시아는 물론 유럽에까지 명성이 높은 중국작가 허원주에는 드넓은 바다 속에서 유유히 유영하는 인물상을 그린다. 잔잔한 바다의 포용력과 넉넉함에 대비되는 자연 속의 작은 인간 존재를 표현한다.



Water_캔버스 위에 유채_60×80cm_2ea_2011

2010년 11월 23일에 있었던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을 내용으로 한 목판화이다.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3대 원칙을 기본으로 한 91년 남북기본합의서가 발표된 이후 김대중 정부는 대북포용정책의 결실로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을 낳았고, 이어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은 2007년 10.4선언을 가져오면서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이 이어져 왔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는 북한의 인권개선 요구와 함께 한미합동군사훈련이 강화되면서 정치적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식량원조가 중단되고 금강산 여행과 문화교류까지 전면 중지되었다. 급기야 2010년에는 백령도 근해에서 남한의 천안함이 피격되었고, 북한에 의해 연평도가 포격되었다.
판화의 전체 내용은 연평도 포격 당시의 상황을 그려내고 있지만, 하루 빨리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분쟁을 넘어 평화와 공동번영 시대로 발전하기만을 바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일 것이다. 남북을 상징하는 붉고 푸른 천을 휘날리며 한바탕 살풀이라도 해야 답답한 마음이 펑 뚫리려나 보다.

홍선웅 | HONG Seonwung

학력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회화학과 졸업

기타(작품 소장 및 레지던시 등)

- 작품 소장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전북도립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 인천아트플랫폼, 일민미술관, 진천생거판화미술관, 가나아트센터, 퀼른 안파리나화랑, 서울시교육청

주요 개인전

2008 개인전 '차와 매화'(인천 신세계갤러리)
2001 개인전 '홍선웅의 판각기행'
(서울 인사아트센터, 인천 신세계갤러리)
외 다수

주요 단체전

2011 분쟁의 바다, 화해의 바다(인천아트플랫폼)
2009 2009 부산국제 멀아트 쇼(부산문화회관)
2008 한국 현대판화의 흐름(전북도립미술관)
복제시대의 판화(경남도립미술관)
외 다수

연평도-2010년 11월 23일_다색목판화, 한지에 유성과 수성_84×121.5cm_2011

I.

사전을 찾아보니 고대소설 '심청전'에서 심청의 이름은 '沈淸'으로 표기된다. 어려서 읽은 심청전의 심청이는 '청이'가 아니라 심봉사로부터 물려받은 '심'이라는 성씨와 이름이 하나로 인식된 심청이었다. 한자표기를 알고 나서도 내 의식 속에 심청이는 그냥 '심청이'였다. 그리고 나에게 그녀의 이름은 맑을'청(淸)'이 아니라 푸를 '청(靑)'이었다.
백령도를 찾아가는 길은 생각보다 거칠었다. 좋은 날씨를 골라야 했고 출발부터 심하게 흔들리는 배 안에서 도착할 때까지 난생처음으로 기나긴 멀미를 할 만큼 고된 여정이었다. 그러는 내내 잠깐 잠깐 배의 작은 창문 밖으로 파랗기만 한 바다를 원망스런 눈으로 내다보면서 이 거친 바다를 잠재워 풍요와 평화를 누리기 위해 재물이 되어 바다에 뛰어들었을 그녀를 생각하니 측은하고 속이 상했다. 예술가의 낭만과 고된 여정이 주는 환각이 현실과 소설을 혼동하게 하였다. 마침내 도착한 백령도. 백령도는 거친 섬이었다. 무어랄까, 육지에서는 보기 어려운 비현실적으로 커다란 갈매기의 산란지라든가 그들이 낮은 자세로 논밭을 날아다니는 모습하며,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바닷가 풍경, 그리고 무엇보다 총과 칼의 비릿한 냄새 같은 것들이 극도의 평화와 극도의 긴장을 동시에 자아내고 있었다. 그러한 긴장감은 군사경계선을 의식하게 하였고 신경줄을 곤두서게 하였다.
그런 와중에 바다를 향한 낭떠러지가 있는 '심청각' 한 켠에서 '인당수'를 바라보았다. 어두운 구름이 드문드문 드리운 그곳 저 너머에 북한이 있었다. '심청이'와 '군사경계선'이라니... 그것은 나에게 존재의 가벼움과 무거움, 현실과 허구의 상징적인 언어의 결합으로 여겨졌다. 나는 효녀 '심청이'가 아니라 '그녀, 심청'을 떠올리게 되었다. 무능한 장애자인 아버지 슬하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지 못하고 자라온 그녀가 무엇을 위하여 어리고 꽃다운 그녀의 몸을 팔아 바다에 몸을 던지게 되었으며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다시 살아나 아버지를 찾게 했나. 그녀는 무엇 때문에 살았나.

II.

'흰 날개 섬'이라는 이름을 가진 서해의 가장 북쪽 작은 섬, 백령도(白翎島). 그 섬의 한편에서 한참 동안 '인당수(印塘水)'를 한동안 바라보았다. '심청(沈淸)'은 여전히 지금 우리 곁에서 살아가고 있다. 꽃다운 나이에 그녀 자신이 아닌 그녀의 가족, 또는 다른 어떤 것을 위해 살아가야만 하는 그녀, 이 거친 세상과의 끝이 나지 않는 조율이 힘에 겨운 푸르른 영혼의 꽃다운 그녀. 그런 그녀들에게 나의 시와 나의 그림을 보낸다.

홍지윤 | HONG Jiyoon

학력

홍익대학교 동양화과
홍익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졸업

수상

2001, 2003 Firenze Biennale The "Lorenzo il Magnifico" 2회 수상

기타(작품 소장 및 레지던시 등)

– 레지던시
국립현대미술관 고양 창작 스튜디오1기 (고양/한국)
Villa Waldberta residence (독일뮌헨문화부 초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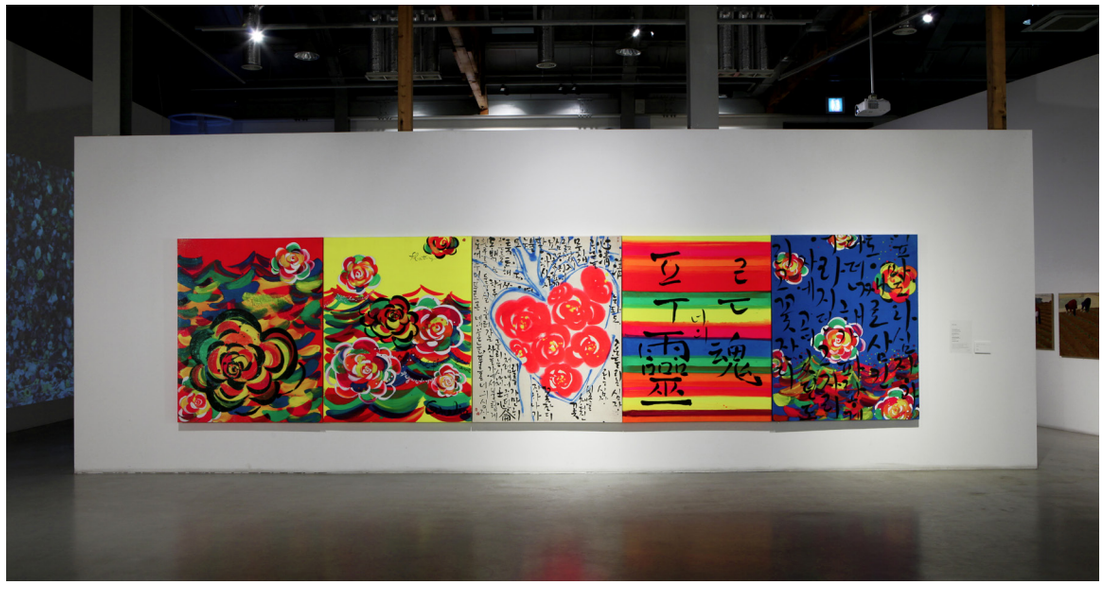
– 기금선정
서울문화재단기금/문예진흥기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뮌헨문화부/ Villa Waldberta 초청 / 기금
문예진흥기금(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요 개인전

개인전 14회 (한국 표 갤러리 / 독일Kunst-Direkt gallery / 중국TN gallery 등)
2010 Life is colorful (표갤러리 / 서울)
2009 활보 with big stride (gallery TN / 북경 따산즈 / 중국)
외 다수

주요 단체전

2011 테크놀로지의 명상-Media의 정원(포항시립미술관/포항)
2010 세계미술의 진주, 동아시아 미술 (예술의 전당/서울)
조우 Close encounter (제주도립미술관 / 제주도)
2009 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 본전시 (인천아트플랫폼/인천)
외 다수



푸른 심장 Blue Heart_혼합매체_160×130cm_5ea_2011

푸른 심장 _ 그녀에게
Blue heart _ dedicate to her

흔들리는 파도, 흔들리는 심장
무지개 빛 파도는 사실은 하늘 빛을 닮았지
진 붉은 꽃 동백으로 가득 채워진 푸른 심장

휘영 휘영 바다 위를 유영하는 꽃잎, 꽃잎, 꽃잎

파도와 심장과 하늘을 통째로 삼킨
불타던 해가 파랗게 고꾸라지던 그 자리
눈동자에 고여있던 연꽃, 그리고 꽃 잔디

모두 '풍덩'!

바다는 푸른 심장 하나만 '툭' 토해냈지.
유연한 등허리를 가만히 흔들어 깨우면
천천히 음악처럼 내어주던 동백꽃 한 두 덩이

흔들리는 '심청(沈淸)', '心靑'

흰구름 두둥실 흘러가는 하늘가에서
부드럽게 웃어주던 푸르른 네 영혼

문학 4인

이세기 LEE Seki
강제윤 KANG Jeyoon
김창수 KIM Changsu
오시은 OH Sieun

서해

이세기

서쪽은 애비가 죽은 나라
살아서는 갈 수 없는
내 형제가 바다에 묻힌 땅
내 아기의 탯줄이 잠든
차가운 해와 달 시꺼먼 갯뻘이 나를 반겨주는
서쪽은 죽음의 바다

한낮에 이글거리는 땀내와
타는 돌담길
바닷가 오랜 철선에선
시뻘건 녹물이 흘러나오고
눈부신 햇살조차 무겁게 내려앉은
들끓는 바다에는
함포소리 군함엔진소리 끝없고

서쪽은 죽음의 바다
뱃사장에는 뜨겁게 모래가 타고
손조차 댈 수없는 흙길을 따라가면
텅 빈 마을과 버려진 폐가
깨진 항아리와 불탄 고목
조각난 세간이 널브러져 있고
바닷바람에 쪼그라진 그을린 얼굴들이
부둣가로 마중 나오는

서쪽은 죽음의 바다
뱃사람을 산 채로 삼켜버린 바다
벼랑에 떨어져 목숨을 버린 내 형제의 나라
굴밭은 검게 말라가고
바작바작 타들어가는 갯바위에 갱조차 없어라
한낮의 태양만이 숨죽인 채
뜨겁게 나를 반겨주는
피 묻은 내 형제가 죽어
바닷가 붉디붉은 해당화로 피어나는
서쪽은 애비가 죽은 나라

부두

이세기

누군가 울고 있다
부두에서
어두운 수협공판장 뒷골목에서

웅치만 날카롭게
하늘을 찌르는 바닷가

얼어붙은 갯벌에서
누군가 울고 있다

바닷가 철조망에 매달려
누군가 숨죽여 울고 있다

군함들은 일제히
북방한계선을 향해 내달리고

검은 밤바다에서
두 눈을 가린 채 누군가 울고 있다

파도에 씻긴 백골처럼
살점이 씻긴 내 몰골을 보는 것처럼

배 한척 없는 부두에서
어두운 밤바다에서
누군가 두 눈을 가린 채 울고 있다

진촌에서

이세기

너는 어디에서 왔는가
이른 여름
뒤란께 작약은 오고

떠나온 곳을 알지 못하는
작약은
소리 없이 오고

문간방에서 졸고 있는
고양이에게도
너의 아버지며 어머니며
형과 누이며
살았던 집이며

모두 버리고 떠난 집의 내력을
묻는 동안
너는 오지 않고 오지 않고

물살 너머
갯내에 묻어오는 바람마냥
너는 어디에서 왔는가

제가 왔어요 제가 왔어요
여기에 왔어요
귀속엔 환청이 들리고

사람 하나 보이지 않는 대낮엔
흰 구름 뿐

누구인가 어둠처럼 나를 보는 것은
두 손으로 감싼
내 얼굴을 보는 것은

그 여름

이세기

내가 나를 본다
한 줌으로 살아 있는
내가 나를 본다

그 여름 이후 내가 나를 본다

내 안의 울음소리
내 안의 울음소리

이파리 속에 내가 있다
바람 속에 내가 있다

무엇인가 흔들리고
무엇인가 어른거리고
무엇인가 씻겨나가고

내 몸이 환해질 때 까지

빈 방안에서 내가 나를 본다
어둠 속에서 내가 나를 본다

또 무엇인가 보이고
또 무엇인가가 나를 본다

밤이 와도 내가 나를 본다
어둠 속에서 내가 나를 본다

빈 방안에서 내가 나를 본다
그 여름 이후

우리가 여기에 왔습니다

이세기

우리가 여기에 왔습니다 임경업장군의 조기 신화가 서려있는 섬에
은가시나무로 조기를 잡던 안목어장이 있는 연평바다에
당신을 모시기 위해 우리가 여기에 왔습니다

뱃길로 네 시간 반 험난한 파도를 넘어 우리가 왔습니다
조기가 사라지면서 당신도 사라진 땅에는
어부들의 뱃노래 들리지 않고 뻘밭에는 사람의 흔적도 없습니다

봄파시를 나가 온 동네가 떠나갈 듯
꽹과리 북소리 장구소리 드높았던
풍어제 올리던 마을은 이제 어디에 있나요

연평바다 칠산바다에 널린 조기 잡으러 가기 위해
에야디야 에야디야 어기여차 에야디야
화장 뱃동사 목소리 높이며 출어를 나가던 마을에
당신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여기에 왔습니다
만선의 오색기를 휘날리며 들어오던 당신은 어디에 있나요

부둣가에 갈매기 한 마리 날지 않고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해무로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마을은 쫓기듯 비어 있고
집들은 불에 타 무너지고 유치창은 깨졌습니다
산등성과 마을에 파놓은 방공호에서
촛불로 밤을 지새운 당신의 젖은 눈을
지하갱도에서 당신을 겨누는 포대도 보았습니다

포탄에 쓰러진 당신을 증언하기 위해 우리가 여기에 왔습니다
당신의 신음을 듣기 위해 우리 여기에 왔습니다
바다에는 파도의 울음소리뿐
쓰러진 당신을 만나기 위해 서로의 증오를 버리기 위해

우리가 여기에 왔습니다 당신의 절규를 듣기 위해 우리 여기에 왔습니다
숨이 막혀 죽은 당신을 기억하기 위해
포격에 죽은 당신을 보기 위해 우리가 여기에 왔습니다
목 놓아 울부짖는 당신의 아우성을 듣기 위해
이 땅에 살기 원하는 당신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여기에 왔습니다

이 땅의 가장 절실한 종교는 평화다!

연평도 기행

강제윤

눈물의 연평도

오늘 연평도 행 여객선은 두 개의 바다를 건넌다. 물의 바다와 안개의 바다. 물의 바다를 건너 왔으나 연평도는 여전히 안개속이다. 연평도의 사람도, 삶도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폭격 이후 섬을 떠났던 주민들이 돌아왔지만 섬은 여전히 군사작전 지역처럼 긴장이 팽팽하다. 전쟁과 평화, 그 경계에서 연평도는 끊임없이 흔들린다. 연평도 사람들의 삶 또한 그렇게 흔들리며 부유한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전쟁을 해야 한다는 모순, 그것은 삶의 모순이고, 생애의 모순이고, 감히 형용할 수 없는 모순이다.

2010년 11월 23일 오후, 북한의 폭격으로 무고한 생명이 살상당하고 삶의 터전이 파괴된 그날 이후 연평도 주민들은 한동안 피란민이 되어 떠돌아야 했다. 주민들 중에는 한국 전쟁 때 연평도로 피란 와서 정착한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살아생전 다시 피란민이 될 줄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평화롭던 시절 나그네는 몇 번인가 연평도를 여행한 적이 있다. 섬을 걸어서 일주하기도 했었다. 또 연평도 조기 파시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기 위해 한동안 연평도에 머물기도 했었다. 낯선 나그네에게 술과 밥을 내주시던 주민들을 기억한다. 그때 연평도는 더할 데 없이 평화롭고 고요한 섬이었다. 그 따뜻한 환대와 평화.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때의 기억이 꿈처럼 아득하다.

나그네가 처음 연평도란 이름을 들은 것은 '눈물의 연평도'란 노래를 통해서 였다. '눈물의 연평도'를 만든 것은 1959년의 태풍 '사라'였다. 그때 연평도 어장으로 조기잡이를 갔던 많은 어부들은 끝내 바다에서 살아 돌아오지 못했다. 지금은 퇴락했지만 연평도는 역사의 한 시절을 풍미했던 섬이다. 오랜 세월 연평도는 조기의 섬이었다. 영광의 칠산 바다와 함께 연평도 근해는 황해 최대의 조기 어장이었다. 해마다 5월이면 연평도는 조기떼 우는 소리에 잠을 설쳤다. 수백억 조기 군단이 몰려오면 '조기 한 바가지, 물 한 바가지'일 정도로 황금어장이었다. 조기 철이면 연평도에는 파시가 섰다. 파시 때 연평도에는 수천 척의 어선과 상선들이 몰려들었다. "한 배를 타면 천배를 건너다녔다." 연평도는 주민과 선원, 상인들 수만명이 북적거리는 하나의 해상도시였다.

남북으로 갈린 연평도

오랜 세월 동안 연평도는 해주 문화권이었다. 연평도에서 해주는 30km 거리에 불과하다. 1953년 7월27일, 한국전쟁 휴전협정 이후 해주가 북한 땅이 되면서 연평도는 인천 문화권으로 편입됐다. 그때 연평도와 같은 면을 이루고 있던 대수압도, 소수압도 등은 이제 북한의 영토다. 연평도에서 1.6km 거리에 북방한계선(NLL)이 지난다. 보이지 않는 선 하나로 인해 손 내밀면 잡힐 듯 가깝던 이웃 섬마을이 갈 수 없는 먼 나라가 돼버렸다. 연평도는 옛날부터 군사적요충지이기도 했다. 조선 중종 25년(1530년)에는 봉수대가 설치되어 왜구와 해적들을 감시했다.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 인천에서 뱃길 122km의 먼 거리지만 연평도는 이제 생활권도 행정구역도 인천

이다. 연평도는 대연평도와 소연평도 두 개의 유인도를 함께 이르는 명칭이다. 크다는 수식어가 붙었지만 연평면의 본섬인 대연평도 또한 가로 3.7km, 세로 2.7km에 지나지 않는 작은 섬이다. 섬은 동북쪽의 낭까리봉뿌리, 남서쪽의 가래칠기뿌리, 서북쪽의 개모가지낭뿌리, 세 개의 뿌리를 축으로 삼각형 모양의 해안선을 이룬다.

연평바다에 돈 실러 가세

조기의 섬, 연평도의 조기잡이가 역사에 처음 기록으로 나타난 것은 조선의 세종실록 지리지다. "토산(土産)은 조기[石首魚]가 주의 남쪽 연평평(延平坪)에서 난다." (세종실록지리지 황해도 해주목)
해마다 봄이면 연평도는 조기떼 우는 소리에 잠을 설쳤다. 1960년대 후반까지 연평 바다는 수천 척의 배들로 성황을 이루었다. 어선들이 몰려오면 연평도에는 파시가 섰다. 조기떼의 이동을 따라 임시로 형성되는 바다의 시장이 파시(波市)다. 파시 때면 선구와 생필품을 파는 상점들이 들어서고 어선을 좇아온 '물새떼'가 어부들을 유혹했다. 한창 때는 색주가만 100여 곳이 생겼고 '물새'라 부르는 작부들이 500명도 넘었다. 파시동안 작은 섬 연평도는 수 만 명의 사람들로 밤낮 없이 흥청거렸다. 10톤 남짓 되는 중선(안강망 어선) 한 척이 한 번 조업에 참조기를 100동(10만 마리)씩 잡는 것도 예사였다.

1800년대 중반 김정호가 편찬한 대동지지(大東地志)에 조기잡이 선단이 연평도로 몰려든다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연평도 조기파시의 역사는 조선시대에 이미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다. 1910년에는 황해, 경기, 평안도 등지에서 300여척 이상의 중선 배들이 몰렸다. 1934년에는 어선이 600~1000여척, 1936년에는 조기 안강망 어선 1000척과 운반선 300척, 봉선 700척 등 2000여척의 선박이 몰려들었다. <매일신보>는 파시가 절정에 달한 1943년 4월 말, 연평도에 무려 5000여척의 배들이 몰려왔다고 기록하고 있다. 1944년에도 연평도의 조기 어획량은 97억 마리였다. 1947년 파시 때 연평도 어장에 동원된 어부들은 연인원 9만 명에 달했다.

사흘 벌어 일 년 먹는 작사판

당시 연평도에서는 파시보다 작사(作詐)란 말을 주로 썼다. 연평파시가 아니라 연평작사(作詐)라 했다. 지금도 연평도 노인들은 "작사 때..."로 칭한다. 작사(作詐)란 '거짓을 만든다'는 뜻이다. 없던 일이 생긴다는 의미에서 그런 용어가 쓰였을 것이다. '거짓과 사기가 판치는 무대', 이전투구, 연평 작사에서는 물건을 거래하며 속고 속이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사흘 벌어 일 년 먹는" 장사판이었느니 오죽했으랴.
연평도의 조기잡이는 임경업 장군과 인연이 깊다. 1634년 5월, 의주부윤 임경업 장군은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간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을 구출하기 위해 황해를 건너던 중 잠시 연평도에 정박한다. 간조 때 임 장군이 가시나무를 찍어 안목바다에 꽂게 하였는데 물이 빠지자 가시나무의 가시마다 수많은 조기가 걸렸다고 전한다. 이것을 계기로 임경업 장군은 연평도 조기잡이의 시조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 후 임경업 장군은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 바다의 어업의 신으로 등극했고 연평도에는 임경업 장군의 신당까지 생겼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설일 뿐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연평도의 조기잡이는 임경업 장군의 연평도 방문 이전부터 있어왔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연평도 특산물로 조기가 기록되어 있고 중종실록에도 이미 연평도의 어전을 둘러싼 다툼이 등장한다.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더라도 전설은 전설 나름의 생명력을 지닌다. 그래서 전설의 사실 여부를 따지는 일은 부질없다.

파시 철이면 술집 100개 작부만 500명, 일본 게이샤까지

조기잡이 배들이 들어오면 연평도의 여자들도 바빠졌다. 연평도에 정박한 배들은 물과 식량, 장작 등을 보급 받았다. 여자들은 이때를 틈타 물을 팔기 위해 물동이를 이고 갯가에 늘어섰다. 파시 때 연평도에는 요정이나 요리 집 같은 색주가만 100여 집 이상이 생겼다. 한집에 작부가 5명씩은 됐으니 줄잡아 5백 명이었다. 이때가 되면 마을의 가장 앞줄, '갱변' 쪽 집들은 장사꾼들에게 한철 세를 놓고 자신들은 마을 안 쪽 집에 방 한 칸을 얻어서 이사를 갔다. 그때부터 가정집이 색주가로 바뀌었다. 해변인 '갱변'에는 판자로 지은 가건물도 생기고 그곳에도 색주가가 들어섰다. 색주가는 주인의 고향에 따라 인천옥, 목포옥, 해주옥, 군산옥, 비금옥, 위도집, 흑산집 등의 간판을 달았다. 일제 때는 일본 유곽도 있었고 일본 기생들도 많았다. 1930년대 연평파시에는 상점 중에서 요리 집과 음식점이 가장 많았다. 어느 해에는 요리 집에 일본 기생만도 50명이 넘었다. 카페도 있었으며 여관, 대서소를 비롯해 이발관이 9개 목욕탕도 3개나 있었다. 파시 때면 술 담글 줄 아는 주민들은 막걸리와 청주를 담가서 내다 팔거나 색주가에 댔다. 쌀밥은 못 먹어도 술은 쌀로 빚어다 팔았다. 바람이 불어서 피항해 온 배들이 많을 때가 색주가들에게는 큰 대목이었다. 색주가를 비롯한 장사치들은 봄철 조기잡이가 끝나면 미련 없이 섬을 떠났다.

"다들 똑 같은 꿈을 꿔요. 전쟁이 나고 포가 떨어지고 도망가는 꿈."

조기가 떠나면서 연평도의 황금기도 끝이 났다. 이제 연평도는 군사적 긴장이 흐르는 작은 섬이다. 북한의 폭격을 받은 뒤에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섬이 돼버렸다. 폭격을 당한 집들 대부분은 철거됐으나 몇 채는 '안보 관광'용으로 허물지 않고 '전시중'이다. 부서진 집들은 처참하다. 군인과 군부대 공사를 하던 인부 몇 명이 사망했다. 하지만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집이 허물어졌는데 주민들의 인명사고는 없었다. 참으로 기적같은 일이 아닌가. 폭격당한 집 앞에서 궁금해 하고 있는데 근처를 지나던 주민 한분이 그 의문을 풀어준다. 그는 식당을 운영한다고 했다. "마침 여객선이 들어오는 시간이라 동네에 사람들이 없었어요. 천운이었지요."

여객선 시간에 맞춰 주민들은 대부분 선창가로 나갔다. 인천에 다녀오는 가족들을 마중하거나 인천에서 보내오는 물건들을 찾으러 갔던 것이다. 여객선 시간이 아닌 때 폭탄이 떨어졌다면 수십,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다. 그랬다면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끔찍한 재앙이 피해갔다. 그도 물건을 받으러 선창가에 나가 있었다. 처음 폭탄 소리를 들었을 때는 놀라지 않았다. 부대에서 늘 하는 사격 훈련이려니 했다. 하지만 5분 쯤 후 싸이렌이 울리고 방송이 나오면서 실제 상황이란 걸 알았다. 불안이 밀려 왔다. "이제 다 끝났구나 싶었다." 주민들은 해경 배를 타고 밤새 인천으로 피난을 떠났다. 피난을 나갔을 때는 찜질방에 잠을 자면서도 다시 연평도에 돌아갈 생각이 없었다. "천금을 준다 해도 들어가기 싫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연평도가 차츰 안정을 되찾아가자 주민들 대부분이 다시 돌아왔다. "생활 터전이 여기니 해먹고 살게 없는데 어쩌겠어요." 도리가 없었다. 어디 가서 무얼 해먹고 살 수 있겠는가. 먹고사는 일 또한 전쟁이 아닌가. 전쟁을 치를 바에야 살던 터전에서 치러야지. 다행히 그의 집은 폭격을 피했다. 그는 다시 식당 문을 열었다. 하지만 포 소리만 나면 가슴이 철렁한다. 폭격 전에는 50년 넘게 포 소리를 듣고 살아왔지만 불안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포 소리 들릴 때마다 불안해서 잠을 이룰 수 없다. 연평도 주민들은 대부분 악몽에 시달린다. "다들 똑 같은 꿈을 꿔요. 전쟁이 나고 포가 떨어지고 도망가는 꿈." 그러면서도 주민들은 설마 하는 기대감으로 살아간다. "한 번 쐈는데 설마 또 쏘겠는가 하는 생각이지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복수가 아니라 평화

지금 연평도 주민들은 별로 큰 욕심이 없다. 폭격을 계기로 무슨 큰 지원 같은 거 바라지도 않는다. "큰 욕심 없어요. 옛날처럼 평화롭게 살수만 있게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보복하자고 들어와 목청 높이는 사람들이 안 반갑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복수가 아니라 평화다. "여기가 없는 사람들 살기 좋아요. 자기만 노력하면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어요. 남북이 서로 대화도 많이 하고 포 떨어지기 전처럼 평화롭게 살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어요." 하지만 여전히 평화는 안개 속이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니 의욕이 안 생긴다. 그도 집수리를 하려고 자재를 사다 놨지만 일손을 놓고 있다. 평생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니 어떻게 집을 고칠 엄두가 나겠는가. 주민들이 예전에는 뉴스 같은 거 잘 안 봤다. 하지만 이제는 늘 뉴스에 귀를 기울인다. 요즈음은 자꾸 연평도에 더 큰 무기를 들여온다는 소식이 들린다. 그때마다 불안하다. "무기 많이 들어오면 들어온 만큼 더 위험해 질 수 있어요. 여기서 대응 사격 많이 하면 저쪽에서도 포를 더 많이 쏠 거 아네요. 그럼 죽어나는 것은 주민들이지." 주민들은 정부에서 공짜 돈 주는 거 바라지 않는다. "내가 노력해서 먹고 살 수 있는데 뭘 바래. 그저 평화롭게 살게만 해주면 돼지."

주민들이 돌아오면서 다시 연평도를 찾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아직은 정부에서 동원하는 '안보관광객'들이 다수다. 하지만 이들의 방문이 주민들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들은 연평도에서 자고 가지 않는다. 하루쯤 먹고 자고 놀다 가야 그나마 주민들에게 경제적 이득을 남길 텐데 몇 시간 돌아보다 그냥 떠나 버린다. "선박 회사만 좋은 일 시키고 있다." 관광객들이 그날 돌아보고 나가기 좋게 배시간도 조정됐다. 그게 주민들은 오히려 불편하고 손해다. 전에는 아침에 들어온 배가 바로 인천으로 되돌아갔다가 오후에 돌아왔다. 주민들은 당일로 인천에서 일을 보고 들어올 수 있었다. 지금은 아침에 들어온 배가 관광객들을 기다렸다가 그들을 싣고 오후에 나간다. 주민들은 인천에 나가면 어쩔 수없이 하루를 묵어야만 일을 보고 들어올 수 있다. 시간과 비용이 더 든다. 이것은 주민들을 위한 관광이 아니다. '안보'의 와중에 주민들은 없다.

식당주인은 또 하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준다. 연평도에 폭탄이 떨어지고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고 주민들이 피난을 떠날 때 섬에 갑자기 유인물이 뿌려졌다. 북에서 날아온 삐라였을까. 아니다. 육지에서 들어온 부동산 투기꾼이 뿌린 전단지였다. 섬에 남은 주민들은 집이나 부동산 팔 사람 연락 달라는 전단지를 보고 기가 막혔다. 심지어 주민들을 통해 땅을 팔 생각이 없는지 직접 의사를 타진해 오기도 했다. 그 와중에도 부동산을 사들이려는 투기꾼들. 남의 불행을 내 이익의 기회로 삼으려는 자들이 전쟁터라고 왜 없겠는가마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이 인간계가 참으로 그악스런 세상이구나 싶다.

인천 아트플랫폼의 주선으로 들어온 우리 또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관광객'이 되고 말았다. 하루 묵지도 않고 몇 시간 둘러보고 훌쩍 떠나는 일정이다. 그래도 식당에서 꽃게탕으로 점심을 먹었으니 조금은 보탬을 준 것인가. 선착장에는 인천으로 떠날 여객선이 벌써 시동을 걸어놓고 우릴 기다린다. 선착장 주변에는 호전적인 프랑카드들이 어지럽게 걸려 있다. 다들 주민들과는 무관한 외부인들이 걸어놓은 현수막들이다. "무자비한 응징..." 따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인 것을. 참으로 안타까운 풍경이다. 분노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가장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인 연평도 주민이라고 어찌 분노가 없겠는가. 어찌 응징의 마음이 없겠는가. 하지만 주민들은 참고 견딘다. 분노로는 해결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이 섬을 떠나서는 살 수 없으니 참는 것이다. 이 섬에 살기위해서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가 절실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견디는 것이다.

분노는 장작불 같아 남을 태우기 전에 나를 먼저 태운다!

우리가 이 불안한 전시상황을 끝내지 않는 한 연평도에 떨어진 폭탄이 내일은 내 머리위에 떨어질 수도 있다. 생각하기도 끔찍한 일이다. 그런데도 언제까지 보복과 응징만 주장할 셈인가. 우리는 늘 늦게 깨닫는다. 평화가 깨진 다음에야 새삼 평화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평화는 공기와 같아서 그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까닭이다. 오랫동안 평화가 지속되다보니 우리는 그 소중함을 잊고 살았다. 평화가 없다면 우리의 생명, 가족, 재산, 무엇 하나 온전할 수 없다. 한반도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남과 북 모두가 공멸하리란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연평도와 이 땅과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보다 이성적이 되어야 한다. 절대 분노로 싸워서는 안 된다. 차가운 철이 달군 철을 자른다 했다. 분노는 장작불 같아 남을 태우기 전에 자신을 먼저 태우고 만다. 그러므로 진정 평화를 원한다면 우리 자신이 먼저 평화가 돼야 한다. 평화는 평화로운 방법으로만 지켜질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는 모두 평화운동가가 돼야 한다. 평화 운동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평화를 염원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평화운동가다. 하루 한 번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평화운동을 하는 것이다. 종교인은 자신의 신에게, 종교가 없는 이들은 그저 간절한 마음으로 평화라는 신에게 기도하자. 이 시대, 이 땅의 가장 절실한 종교는 평화다.

백령도 잔점박이 물범 이야기

김창수

백령도 잔점박이 물범 이야기가 인천과 북한과 중국에서, 그리고 아시아의 화제 거리로 되었으면 좋겠다. 백령도 물범은 1982년 한국의 천연 기념물(331호)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다. 물범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은 2005년 멸종위기야생동물로 지정되면서부터인데, 이후 물범의 생태는 본격적인 학술 연구와 언론 보도의 대상으로 떠올랐고 여러 편의 기록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물범이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의 마스코트로 선정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백령도 잔점박이 물범은 여러모로 흥미로운 해수(海獸)이다. 이들은 서해안에 정착해서 서식하는 유일한 해양 포유류이다. 유전자 검사 결과 이들은 북태평양 점박이 물범과 동일한 개체이지만 고유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오랜 세월동안 황해의 해역 생태계에 적응하여 진화한 집단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이 황해에 정착한 과정도 의미 있는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잔점박이 물범이 눈을 호동그랗게 뜨고 코를 벌름거리는 모습은 천진난만한 아이를 연상케한다. 바다에서 자맥질할 때면 사뭇 날렵하지만 바위섬에 올라 풍선 같은 몸통으로 기어 다니는 모습은 우스꽝스럽다. 물범의 독특한 '몸매'는 육상에서 진화한 포유류가 다시 바다로 되돌아가 긴 세월동안 적응한 결과이다.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체온을 유지하고 물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유선형의 둥근 몸으로 바뀌었으며, 오래 잠수하기 위해서 귀와 콧구멍은 여닫을 수 있는 구조로 진화하였다 한다.

백령도 물범은 국적이 없다. 어쩌면 이주노동자들처럼 다국적(多國籍)이라 해야 옳겠다. 국적이 없는 이들의 생활에 국경이 있을 리 없다. 이들의 이동경로는 한국과 북한, 중국 해역에 걸쳐 있다.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물범들은 3월부터 12월까지 백령도 근해에서 보낸 다음 북한 해안을 따라 북상하여 중국 뽀하이 만까지 이동하여 하구의 얼음바다 위에서 새끼를 낳고 겨울을 보낸 다음 이듬해 3월경이면 다시 북한 해역을 따라 내려와 한해를 보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물범들을 '백령도 물범'이라 부르는 것은 한해의 대부분을 백령도 일대에서 보내기 때문이다.

걱정스러운 일은 한때 8천마리를 헤아리던 이 점박이 물범의 개체수가 현재 1천마리 이하로 급감하여 백령도에서 확인되는 개체수는 2~3백 마리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후변화와 산업화에 따른 서식환경의 파괴가 주된 요인이다. 특히 중국 측의 불법 포획과 백령도 물범바위 근해의 어로 활동도 개체수 감소의 중요한 원인이다. 최근 중국도 이 물범을 국가중점보호동물로 지정하고 우리도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지정하였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집단 서식지가 한국과 중국 어민들의 주된 조업 구역이기 때문이다. 물범의 서식지 보호는 어민들의 어로활동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큰 과제이다. 외국의 사례처럼 생태관광으로 얻은 수입으로 어민들의 어획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이 하나의 대안일 수 있겠다.

지금 잔점박이 물범이 우리에게 긴급 조난신호를 보내고 있다. 불법 포획과 서식지 환경 악화로 멸종의 위기에 몰린 물범들은 그냥 두고 마스코트만 보고 즐거워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인천아시안 게임 개최 이전에 물범을 보호를 위한 남북한과 중국 측의 지혜와 경험을 모으는 행사가 개최되면 좋겠다.

잔점박이 물범들이 동아지중해의 바다를 마음껏 오가며, 두려움 없이 푸른 바다 속을 자맥질하다가 지치면 물범바위에 올라 한가로이 쉴 수 있도록 하는 일은 환경보호 차원을 넘어서는 일이다. 동아지중해의 귀염둥이 잔점박이 물범을 보호하기 위해 황해 연안 국가는 물론 아시아 여러 국가들이 협력하는 일은,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 이래 '동아시아의 화약고'로 변한 서해가 평화의 해역으로 되바뀌기를 바라는 우리의 간절한 염원과 무관치 않기 때문이다.

◇ 이 글은 필자의 '경인칼럼'(7월 13일자)를 바탕으로 한 것임.

옛이야기 될 때까지

오시은

세상에 심봉사는 왜 그리 많은지
해마다 인당수에 몸 던지는 심청이가 수백은 된다지

연변 심청이
베트남 심청이
필리핀 심청이
캄보디아 심청이
몽골 심청이

더러는 황주골 심청이마냥
좋은 신랑 만나 봉사 아비 살리고
자손 낳고 집안 일으켜
오순도순 재미나게 산다지만

어떤 심청이는 매를 맞고
어떤 심청이는 벙어리 냉가슴에
어떤 심청이는 구박덩이로
그러다 아예 서천강도 건넌다는데

심청이가 하도 많아 옥황상제도 바쁘신가
모두 황주골 심청인듯 살뜰히 살펴주면 좋으련만
근심 없이 한세상 살아가면 좋으련만
어쩌다 인당수 보다 깊은 바닥에서 울고들 있는지

이제 그만 울라고
그만 외로우라고
그만 맞으라고
행여나 몹쓸 생각은 하지도 말라고
열두거리 푸닥거리
오만 신을 모셔다
손이 발이 되게 빌어야겠다
인당수 물이 마를 때까지
마른 물이 비가 될 때까지
내린 비가 굿판을 씻길 때까지
씻긴 허물이 옛이야기 될 때까지

작가대표 인사말

이종구

안녕하십니까? 전시회 참여작가 이종구입니다. 인천평화미술프로젝트<분쟁의 바다, 평화의 바다>展은 두 가지의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오늘날 현대미술 또는 미술의 담론은 주로 사회적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예컨대 비엔날레나 주요 현대미술전시회를 보면 작가들은 대개 현대사회가 가진 고민과 상처를 통해 예술적 상상력을 통해 창작을 하고 소통을 하려는 것입니다. 지구 온난화를 비롯한 생태, 자연, 환경의 문제나 페미니즘, 서구중심의 경제정치에 대한 비판, FTA, 신자유주의와 제3세계의 빈곤 등은 오늘날 작가들이 고민하는 주요한 주제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반전과 반핵, 평화의 주제는 오늘날 예술가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념과 당파를 넘어선 인류의 화해와 공존을 위한 보편적인 예술가들의 주장이며 담론이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전시회가 평화를 주제로 했다는 것은 아주 시의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둘째로 인천시는 도시적 정체성이 평화를 지향해야 하는 필연적인 지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전쟁의 한 복판으로 월미도와 자유공원 등에서 인천시민들은 큰 피해와 상처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연평도포격사건, 백령도 인근의 천안함사건 등 분단시대의 첨예한 긴장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지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최근 인천시민사회에서는 '인천 평화도시 만들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지역에서 예술가들이 평화를 주제로 전시를 열고 문학으로 창작을 하였다는 것은 각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의 여느 전시회와 달리 지역의 삶과 정체성에 기반한 평화예술운동을 지향하는 예술축제이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과거 평화에 대한 주제의 작품들을 보면 대개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흔히 보았습니다만 이번 전시회에 출품된 작품들을 보면 백령도와 대청도, 연평도 등을 작가들이 직접 답사를 하고 최근의 상처를 목격한 후에 창작하였기 때문에 상당한 현장성과 리얼리티를 갖고 있는 수준 높은 작품들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인천에서 열리는 이번 '평화 미술 프로젝트'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인천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미술행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지역사회의 여러분과 작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인천문화재단과 행사를 계획하고 진행하신 인천아트플랫폼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령도 고향찾기 프로젝트

1개월 거주 작업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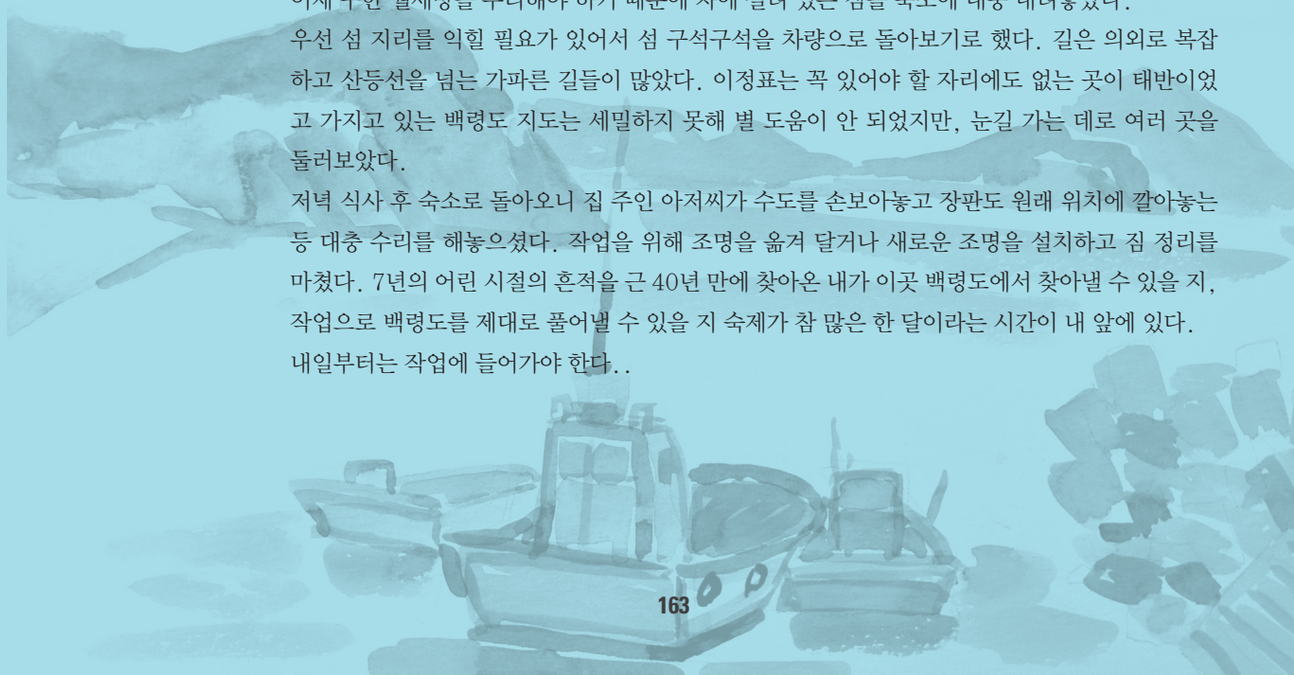
박충의

6월 7일(화)

인천아트플랫폼 전시 기획의 일환으로 42년 만에 1개월 일정으로 귀향을 하게 되었다. 화물배에 차를 실어 먼저 보내고 4시간 30분동안 쾌속선을 타고 오후 5시 10분경에 도착했다. 택시기사 변충렬씨가 소개해준 월세방은 수리하던 중이어서인지 주방과 입구 쪽 공간은 어수선했지만 사는데 문제 될 것은 없어 보였다. 방이 두 개였는데 안방이 비교적 깨끗한 편이어서 안방에서 생활하면 될 듯 싶었다. 보일러가 작동이 되지 않아서 마침 창고에 치워놓은 장롱 속 이불을 깔고 밤 12시 넘어서 잠을 청할 수 있었다. 너무 추워서 쉽게 잠이 들지 않았다. 백령도 오기 전부터 가장 걱정했던 문제가 숙소 문제였는데, 운좋게 도착하자마자 방을 얻을 수 있어서 첫날부터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6월 8일(수)

백령도에서의 첫날이다.
새벽 6시 쯤 잠에서 깨어나 밖을 나와 보니 안개가 자욱하다. 지붕 위 하늘로 갈매기가 끼룩대며 날고 있고 해변가 쪽에서 파도소리가 들려온다. 강화도 작업실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섬의 숨결이다.
함께 하룻밤을 보낸 전형석이란 친구는 다음에 강화에서 한 번 보자고 작별인사를 하고 짐을 챙겨서 6시 50분 쯤 택시를 하고 떠났다.
차량을 실은 화물배는 12시간 걸려 백령도에 도착하기 때문에 섬에 먼저 와서 하룻밤을 지낸 내가 인수받기 위해 택시를 타고 장촌포구로 향했다. 백령도는 6월인데도 주민들은 모두 긴팔 차림이고 아침 저녁은 한기가 느껴져서 손끝이 맵게 추위가 느껴진다. 한참을 추위에 떨며 기다리니 거대한 화물선이 안개 속에서 나타나 대형트럭들과 승용차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차량을 인수 받은 후 어제 구한 월세방을 수리해야 하기 때문에 차에 실려 있는 짐을 숙소에 대충 내려놓았다.
우선 섬 지리를 익힐 필요가 있어서 섬 구석구석을 차량으로 돌아보기로 했다. 길은 의외로 복잡하고 산등선을 넘는 가파른 길들이 많았다. 이정표는 꼭 있어야 할 자리에도 없는 곳이 태반이었고 가지고 있는 백령도 지도는 세밀하지 못해 별 도움이 안 되었지만, 눈길 가는 데로 여러 곳을 둘러보았다.
저녁 식사 후 숙소로 돌아오니 집 주인 아저씨가 수도를 손보아놓고 장판도 원래 위치에 깔아놓는 등 대충 수리를 해놓으셨다. 작업을 위해 조명을 옮겨 달거나 새로운 조명을 설치하고 짐 정리를 마쳤다. 7년의 어린 시절의 흔적을 근 40년 만에 찾아온 내가 이곳 백령도에서 찾아낼 수 있을 지, 작업으로 백령도를 제대로 풀어낼 수 있을 지 숙제가 참 많은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내 앞에 있다.
내일부터는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6월 9일(목)

밤새 천둥치고 비바람 불더니 아침은 조용하게 안개와 함께 밝아왔다.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차를 타고 시내로 나가야했다. 식당을 바꿔가며 식사를 할 생각으로 시내 초입 궁전식당에 들어갔다. 황태해장국을 먹다가 식당주인이 북포리 초등하교 동창인 것을 알게 되었다. 입학연도를 따져서 동창이라는 것을 짐작할 뿐 서로에 대한 기억은 없는 상태. 식사는 이 친구 집에서 하기로 마음먹고 저녁때도 들렀다. 동창인 사장은 김준철, 아들은 김효은, 부인과도 이야기를 나눴다.
오전에 작업실 앞에서 한 집 건너 옆집 아저씨와 인사를 나누었는데 내 얼굴을 보더니 아버지에 대한 질문을 하신다. 형제들 중 돌아가신 아버지와 가장 많이 닮은 내 얼굴에서 아버지 모습을 보셨나보다. 성함이 장태신씨인 그 아저씨와 대화를 하는 장면들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해가 떴는데도 안개가 걷히지 않아 실내 작업을 하기로 했다. 낯선 곳에서 오랜만에 붓을 잡고 첫 작품을 완성했다.

6월 10일(금)

안개가 낀 날씨. 백령도의 안개는 섬 사면에서 생겨나서 전체를 감싸 안는 것처럼 시야를 가려 버린다. 오늘은 옆집 장태신 아저씨와 야외스케치를 가기로 했는데 다음으로 미루기로 했다. 아저씨는 술을 워낙 좋아하셔서 매 끼니마다 술을 드신다. 아주머니께서 인천에 사는 딸 산후조리 하러 가셔서 집에 오지 않으니 적적함을 술과 친구하며 달래시는 것 같다.
저녁 무렵 초등 동창 김준철과 술 한 잔 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섬 사람들이 배타적이고 경계심이 많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사실을 이 친구가 깨줄 수 있을 지 궁금하기도 했다. 사는 곳이 달라지고 시간은 흘렀지만 사람 사는 모습이나 고민은 어딜 가나 마찬가지인 것 같다. 여전한 것 같다.

6월 11일(토)

백령도에 와서 처음으로 맞은 괘청 발랄한 날씨다.
식당에서 아침식사 중 김준철과 호형호재하는 곽명수라는 친구를 알게 되었다. 백령도 지리에 훤한 그 친구의 도움으로 곳곳을 촬영할 수 있었다. 기상대 전망대에 올라 해변가와 두무진 일대를 촬영하고 중화동 포구 일대의 모습도 사진에 담을 수 있었다.
콩돌해안에서 점심 식사 후 오후에는 혼자 용기도 등대에 오를 계획으로 옹기포 주민들에게 길을 물어 등대가 있는 산을 올랐다. 등대로 오르는 길은 문이 잠겨 있어서 올라갈 수 없었다. 옆에 있는 돌계단을 따라 내려가니 병풍처럼 둘러쳐진 기암절벽이 한 눈에 들어왔다. 마음을 가다듬고 바라볼 만큼 자연이 만들어놓은 풍광은 감동이었다.
목요일 아침에 갔던 하늬바다에 다시 찾아가 영상촬영과 사진촬영을 마쳤다.
저녁에는 작업에 몰두했다.

6월 12일(월)

야외작업을 해도 될 만큼 화창한 날씨다.
중화동포구에서 작업을 하기로 하고 그림도구를 차에 싣고 출발했는데 막상 작업할 위치를 찾으려니 한눈에 마음에 드는 마땅한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포구가 한눈에 들어오는 곳을 찾아

자리를 잡고 어느 한 곳을 그리기보다 포구 전체를 한 화폭에 담아내기로 하고 작업을 시작했다. 백령도 오기 전에 미리 캔버스를 준비하면서 천을 뒤집어 부착하였는데, 천의 성질에 따라서 느낌을 맞춰갔다.
완성된 작품은 썩 마음에 차지는 않았지만 그런대로 정리가 되었다.
나중에 건조된 후 마무리를 해야겠다.
그림도구를 싣는 순간 먼 바다에서 안개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더니 금세 포구 전체를 하얗게 덮어버렸다. 천둥소리가 들리고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고요했던 포구가 스산해지면서 어두워졌다. 백령도에서는 꾸밈없는 날것 그대로의 날씨 변화를 눈앞에서 생생하게 볼 수 있다. 사람들의 생업과 관련되어서인지 모두 날씨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
저녁에는 다음 작업을 위한 스케치를 했다. 단조로운 시간이 반복되면서 인천가족들과 친구들, 작업실 생각이 간절해진다.

6월 13일(월)

실내 작업을 하기로 했다.
어젯밤 스케치한 장군바위를 채색하기 시작했다. 작업하는 중에는 느낌이 좋았으나 완성 하고나면 불만족스러운 경우가 있다. 이번 작품이 그런 경우인데 계속 수정작업을 하면 애먹일 것이 뻔해서 일단 차후에 재작업할 생각으로 다음 작업을 진행했다.
바깥 날씨가 화창해서 실외작업을 할까 고민하다가 오후를 모두 보냈다. 강화 작업실에서는 인근 부대의 포격소리가 들리곤 했었는데 강화에 비해 이곳은 참 조용하다. 군인이 주민의 반 정도가 될 만큼 주둔 군인들이 많다는데 이곳에 와서 포격소리를 들은 기억이 없다. 사방은 고요하고 아무도 만나지 않으면서 작업을 하는 하루가 생경하다. 저녁 식사 후 막걸리를 사와서 한잔했다.

6월 14일(화)

날이 흐리거나 비오는 날이 많아 오늘같이 햇볕 내리쬐는 맑은 날씨에는 답사나 촬영이 제격이다.
옆집 아저씨와 함께 갈매기 서식지에 갔다. 철책선이 쳐 있는 그곳은 사람 손길이 많이 닿지 않은 곳이라 그런지 수많은 갈매기들이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고 있었다. 갈매기들이 낳아놓은 알과, 싸우고 있거나 서툰 날개 짓을 하는 새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백령도에는 포구가 여러 곳 있는데 한결 같이 주변 암벽과 절묘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아늑한 어머니 품 속 같다. 사항포구와 연화리 해변, 천안함 46용사 추모비, 장촌포구, 콩돌해안 등 여러 군데 포구를 돌며 촬영을 했다.
답사하면서 만났던 분들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버지를 기억하고 계신 아주머니도 있었다. 아버지 고향 마을에 가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야할 것 같다.
화동교회 목사님과 인터뷰를 했는데 화동의 지명 유래를 말씀해 주셨다. 예전에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아서 화동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인터뷰와 촬영을 마치고 작업실로 돌아왔다.
혼자 다니면 가기 어려웠던 곳을 아저씨 덕분에 다녀올 수 있었다.

6월 15일(수)

백령도에 들어온 지 8일째이다. 이곳에 오기 전에 작업 목표로 정한 것이 하루에 작품 1.5점 완성이었는데 막상 작업하다보니 하루에 한 점 끝내기도 버겁다.
작품 내용이 점점 밀도가 더해가면서 고민이 늘어간다. 질적인 면에서는 좋은 현상이지만 양도 질적인 부분과 함께 따라줘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바빠진다.
오늘 강화에서 보낸 택배가 도착했다. 계속 매식을 하다 보니 조미료로 맛을 낸 음식점 밥에 질려서 가끔은 집에서 직접 밥을 해먹기로 했다. 김치와 김과 멸치를 반찬으로 한 소박한 밥상을 위해 강화 집에서 택배로 간단한 음식들을 공수해왔다. 시간도 벌고, 건강도 챙기겠다는 생각인데, 잘 될지 모르겠다.
초등 동창 아들과 딸이 작업실을 방문하고 싶다고 하는데 마무리해야 할 작품이 있어서 다음으로 미루고 보니 마음이 편치 않다.

6월 16일(목)

작업 9일째
오늘부터 밥을 지어먹었다. 반찬은 딱 세 가지지만 사먹는 것보다 질리지 않는다.
하루 종일 작업하다보면 다리에 쥐가 나고 이대로 가다가는 인천 가기 전에 몸이 성치 않을 것 같아 식사 후에는 해변가를 산책하기로 했다. 이곳에 온 이래 처음 갖는 여유로움이다. 이젠 시간이 나면 매일 식사 후에 약 100미터 바깥에 있는 바닷가로 산책하기로 하고 길을 나섰다. 점심 식사 후 해변가로 갔더니 해변 모래사장 위에 헬리콥터 2대가 착륙해 있었다. 카메라를 준비해서 촬영하고 조종사의 모습도 동영상에 담았다. 그림에 관심을 보여서 조종사들에게 작업실을 구경시켜 주었다.
하루 종일 흐려 있다가 저녁 해가 질 무렵에는 하늘이 청명해져서 용기포 부두를 촬영했다. 다음에 노을빛을 따라 가보기로 하고 저녁에는 작업을 계속했다.

6월 17일(금)

아직도 가보지 못한 곳이 많아 답사를 해보고 싶었지만 날씨가 좋지 못해 완성하지 못한 작품을 계속하기로 했다.
저녁 식사 전까지 미완성 세 점 중에 두 점을 마무리하고 5명의 인물이 있는 작품에 밤늦게까지 매달렸지만 10시가 넘어가도록 끝내지 못해 다음날로 미루기로 했다. 헬리콥터가 배경으로 삽입된 그림으로 지금까지 작품 중에서 가장 강한 인상을 주는 작품이다.
화동 염전 그림은 오전에 완성했으나 어딘가 손을 봐야할 것 같고 두무진 장군바위 그림도 너무 허전해서 조만간 수정해야 한다.
완전히 끝낸 작품은 몇 점 되지 않았다.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작품을 초반에 제작하게 되면서 조금은 힘들지만, 후반에 풍경 쪽으로 가닥을 잡게 되면 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생각된다. 일반적인 풍경은 탈피한다는 이미 정해놓은 목표가 있어서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6월 18일(토)

한달 중 3/1이 지났다. 욕심내지 않고 이제까지 작업한 만큼만 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잘 될지 모르겠다.
백령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냉면이다. 인천에 계시는 어머니는 어떤 특별한 날에도 냉면 한 그릇이면 충분히 만족해하신다. 담백한 육수에 담긴 메밀냉면은 백령도 사람들만큼 투박하면서도 소박한 맛이다. 백령도 어디에서나 냉면집이 많고 맛은 다르긴 하지만 시원하고 깔끔하다. 점심 때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사곶냉면을 먹었다. 일전에 만났던 곽명수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고3된 딸이 미대 지망생으로 주말마다 홍대 앞 미술학원에서 입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점심 식사 후 까다로운 작품 두 점을 끝내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곽명수와 김준철을 만나 저녁 술자리를 같이했다.
내일부터는 인물을 그릴 것이다. 표정에 백령도의 분위기를 담아 낼 수 있을까? 몰두하면 가능할 것도 같다.

6월 19일(일)

새로운 작업 스케치에 들어갔다.
이번 작품의 주인공은 김준철의 아들 효근이다. 효근이 머리 위에 날개짓하는 갈매기를 같이 담았다. 효근이는 호기심이 많고 성격이 무던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효근이가 자전거를 타고 작업실로 찾아왔다. 이번에는 학교 친구들과 함께였는데 아마도 학교 친구들에게 나에 대한 이야기를 했나 보다. 백령도에 나타난 화가 아저씨를 확인하기 위해 친구들이 효근이를 따라왔고 효근이는 “거봐, 맞지?”하고 의기양양 소리친다. 효근이는 그림을 좋아하고 무뚝뚝한 아버지가 다정하게 대하지 않아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많을텐데도 표정이 밝고 너그럽다. 엄한 아버지의 그늘을 잘 참아내고 성장해서 언젠가는 자신이 원하는 꿈을 찾아 창공을 향해 날아갈 효근이를 마음속으로 그려본다. 그림 속에서 효근이는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다. 날아오르려는 갈매기는 어쩌면 효근이일지도 모른다.

6월 20일(월)

어제 작업하던 효근이 그림을 완성하고 나니 오전이 금세 지나가 버렸다. 완성된 그림 중 운동화 부분이 한쪽 크기가 작아서 수정해야 한다.
아직까지 가보지 못한 곳을 찾아가봐야 하는데 작업이 점점 까다로운 인물 쪽으로 가다보니 완성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작업에만 매달리게 된다. 작업 방향을 이곳에 왔던 초기에는 풍경 중심으로 가볍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아미지 결합 쪽으로 시선을 두면서 고민이 깊어졌다. 백령도의 자연풍광과 대비되는 접경지역 상징물을 한 화면에 배치하는 작업 쪽으로 자연스럽게 생각과 붓이 움직인다.
오후에 구상이 끝나고 스케치를 시작한 인물 작품도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 내일 중에 끝내고 모레는 야외로 나가 새로운 백령도의 모습과 이야기를 찾아볼 생각이다.

6월 21일(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안개가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짙게 드리워 있다. 시야 확보가 안되어 야외활동을 할 수 없으니 하루 종일 실내작업을 하기로 했다.
작업을 하다 바닷가에 산책을 나갔더니 모래사장에 군인들이 잔뜩 모여 있었다. 150여명의 군인들 중 3분의 1정도가 여군들이었는데 닭싸움을 하고 있었다. 여러 부대 소속 군인들이 야유회를 왔나보다. 대한민국 서쪽 끝 백령도 모래사장에서 남녀 구분 없이 서로 어우러져서 닭싸움을 하는 군인들이라니, 낯설면서도 저절로 웃음이 나오게 하는 장면이었다.
오후에는 택시기사 변충렬씨가 찾아왔다. 그 분한테 용기원산과 얼굴바위, 북한의 월래도(달래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용기완산은 아직까지 가보지 못한 곳이라 맑은 날 옆집 아저씨와 함께 꼭 가봐야겠다. 백령도의 유일한 천연기념물 소나무도 그림으로 남기고 싶다. 바닷가 해변에 설치된 배 접근을 막는 구조물이 용체가 아니라 용치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변충렬씨 형제와 우리 형제 3명의 이름이 같은데, 백령도에는 유난히 충(忠)자를 이름에 쓰는 집안이 많다.
밤늦게 한 작품을 마무리했다. 사곶에 사는 백령초등학교 1학년 여자 아이를 그렸다. 이름을 몰라서 내일 학교버스 기다리는 곳에 가서 물어봐야겠다. 막걸리 한 잔하고 잠들었다.

6월 22일(수)

오늘도 안개는 여전하다. 온 세상이 하얗다.
오늘로 백령도 체류 예정일 중 반이 지나갔다. 처음에는 단조로운 생활에 갑갑함이 느껴지기도 했지만 벌써 2주가 지나고 나니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에 나머지 시간을 귀하게 활용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된다.
안개가 걷혀야 용기완산에 올라 일출과 석양을 볼 수 있을텐데 오늘 날씨에 아쉬움이 크다.
날씨가 좋아지면 북포리에 있는 어렸을 적 살던 집과 동네부터 가보고 싶다. 백령도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가 볼 곳으로 북포리를 생각했었는데 OBS방송국에서 촬영 차 들어오면 같이 방문하기로 약조한 상태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방송국 촬영은 인천아트플랫폼 관장님 생각을 존중하기에 계획에 따를 뿐이지만 마음 같아서는 지금이라고 취소시키고 싶다. 촬영할 소재거리도 마땅치 않은 것 같고 카메라 앞에서 친척들을 만나는 것이 왠지 부담스럽기도 하고 작업시간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2주 동안 작업한 작품들을 보면 마음에 드는 작품이 몇 작품이 있긴 하지만 몇 점 작품들은 다시 손을 봐야한다. 앞으로의 작품에 더 몰입하고 욕심을 부리기로 했다. 인물 표현이 쉽지 않은 작업이면서 시간 소요가 많아서 더 열의를 갖고 작업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6월 23일(목)

비가 쏟아진다. 처마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요란도 하다. 백령도에 와서 비답게 오는 빗줄기를 처음 본다. 주말까지 비와 바람이 계속된다고 하니 꼼짝없이 실내에 갇혀 작업해야할 모양이다. 비가 오니 비오는 풍경을 그려볼까 생각해 보았는데 딱히 떠오르는 이미지가 없다. 사곶해변을 순찰하는 군인들 모습을 그릴까...이런 저런 생각에 잠겨 있다 내다본 거리에는 차량 몇 대가 지나갈 뿐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적막한 모습이다.
주말에 태풍이 북상한다는 예보가 있어 OBS촬영팀이 오기는 힘들 것 같아서 날이 개면 바로 북

포리를 갈 계획을 세워보았다. 가볼 곳은 많고 그려야할 그림도 많고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 마음만 급해진다.
완성된 작품들을 찬찬히 들여다본다. 백령도 아이들, 밭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를 그린 작품들이 가장 눈에 들어온다. 역시나 인물이 등장하는 작품들에 애착이 간다.
내일은 풍경작업을 할 생각이다.
비는 내리고, 내내 생각 속에, 작업 속에 빠졌던 하루였다.

6월 24일(금)

비는 뜸한데 연무가 계속이다. 며칠째 답사와 촬영은 포기한 채 실내작업에만 몰두하고 있다. 주말에 태풍소식이 있어서 먼 곳에 갈 수가 없다.

오전에 사향포구 풍경 초벌 작업을 진행했다. 초벌 작업 후 건조된 후에야 붓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쪽에 치워놓고 북포리 아주머니를 모델로 작업에 들어갔다. 며칠 전 찍은 사진 이미지를 보고 캔버스에 그리기 시작했다. 표면 질감을 다루는데 아직 익숙해지지 않아서 조심스럽게 물감을 칠해나갔다. 표면 재료의 특성을 파악하고 나면 적응하는 것은 어렵지 않기에 처음에만 어색하고 시간이 갈수록 표면의 성질을 파악하게 된다.

이번 북포리 아주머니를 그린 작업도 작업 중에 물감의 습착 정도와 착색의 변화를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었다. 초배지 표면에 작업하는 것보다 오히려 시간도 적게 들고 채색했을 때 물감의 색채 변화가 적어서 비교적 수월하게 작품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연꽃을 배치해서 아주머니의 고운 모습과 어우러지게 했다. 오랫동안 고생하신 모습이 몸 곳곳에 배어있지만 연꽃처럼 고우신 아주머니. 점심식사 후에 주변을 산책할 때도 해변에서 우연히 만나 인사를 드렸는데, 아주머니 눈매가 돌아가신 아버지와 많이 닮았다.

6월 25일(토)

아침에 사곶해변으로 산책을 가면서 여느 날과 다른 대기상태를 느낄 수 있었다. 날은 흐리지만 안개가 거의 없어 촬영하기에는 적당한 날이다.
아침 산책 중 아주머니가 밭 자락에 있는 큰 나뭇가지를 잘라내는 장면을 보게 되었다. 밭에 그늘을 드리우는 나뭇가지라 잘라내긴 해야 하는데 이빠진 도끼로 그 큰 나뭇가지를 잘라내려니 힘겨우셨는지 도무지 작업에 진척이 없어 보였다. 작업실에서 톱을 가져다 잘라내고 내친 김에 주변 아카시나무 굵은 가지들까지 모두 다 잘라 드렸다. 목재 다루는 것은 내겐 너무 익숙한 일이고 오랜만에 운동 삼아 힘 좀 쓴 건데 아주머니한테서 오이와 배추를 보답으로 받게 되었다. 일용한 양식으로 유용하게 먹어야겠다.
옆집 아저씨와 용기완산을 올라갔다. 산중턱에서 바라보니 소청도와 대청도, 용기포부두 옆의 아직은 공사 중인 새 선착장과 사곶마을 해변이 한 눈에 들어왔다. 카메라로 촬영을 했지만 카메라에는 이미지만 잡힐 뿐 대기의 느낌은 잡아낼 수 없다. 그래서 작품을 하게 될 경우는 실제 장면을 연상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풍경이 갖는 색채의 기억을 끄집어내서 작업을 하고 촬영한 카메라 이미지에서는 형태와 기초적인 색채만을 참고로 할 뿐이다.
용기완산 정상에는 십자가철탑과 초소가 있다. 심청각 방향으로 장산곶과 월래도(달래섬)가 보

여서 촬영을 했다. 이전에 심청각에 두 번이나 왔지만 장산곶을 볼 수 없었다. 장산곶은 강화도에서 바라본 북녘땅과 별반 다르지 않지만 산 앞에 뚝하니 불거져 있는 작은 암석이 두드러져 보인다. 월래도(달래섬)는 달래가 많아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용기완산을 내려와 장산곶이 잘 보이는 곳에서 촬영을 더 한 다음 북포리를 지나 작업실로 왔다. 백령도 주변은 거의 다 다녀온 셈이다. 이젠 백령도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살펴보고 작업하는 일을 할 때이다.

6월 26일(일)

새벽 내내 바람소리, 빗소리가 천지를 뒤흔들고 결국 잠을 설쳤다. 오래된 집이라 단열과 방음이 안돼서 그런지 웬만한 소리는 여과 없이 집안으로 들어온다. 태풍 '메아리'가 백령도에 상륙했다고 한다. 하루 종일 가로수가 흔들리고 바람소리에 지붕 함석이 떠는 소리가 요란하다. 시끄러워 작업에 집중이 잘 되지 않는다. 오늘 같은 날은 촬영이나 산책은 엄두도 못 내고 그저 하루를 작업하면서 견뎌 내야만 한다.
FM과 YTN, 인터넷 신문기사를 보면서 하루 종일 작업을 계속했다. 저녁 10시가 넘어서 작품 한 점을 완성했다. 내일 잠깐 손보면 최종 완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백령도 체류기간이 10여일 남아있다. 일주일 정도는 작업할 시간이 남아있지만 3-4일은 작업보다는 방문이나 촬영, 마무리하는데 필요한 시간이다. 작업하는 시간 동안 최소한 대여섯 점은 완성해야 하는데 제대로 된 작품을 끌어내기 위해 많이 고민해야한다.
빗소리가 거세지고 바람이 섬 전체를 휘감는 오늘 밤도 편한 잠을 청하긴 힘들 것 같다.

6월 27일(월)

구름은 낮게 가라앉아 있지만 태풍이 잦아들면서 오늘은 아침 산책을 할 수 있었다. 아침 일찍 이전에 나뭇가지를 잘라드렸던 동네 아주머니가 배추 한포기와 양파 3개를 갖다 주셨다. 답례로 작업용 반코팅 장갑 5켤레를 드렸더니 무척 좋아하셨다. 서로 부족한 부분을 알아내고 나누는 단순한 행위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쉽게 풀어내는 열쇠가 된다.
오후 늦게까지 작업을 했다. 밤 10시 쯤 초등 동창 김준철과 곽명수와 시내에서 술자리를 같이 했다. 며칠째 태풍 때문에 갑갑한 마음을 풀 수 있는 자리였다.

6월 28일(화)

새벽까지 이어진 술자리 뒤라서 늦잠을 자게 되었다. 노는 것은 즐거운데 너무 심하게 놀면 다음 일정에 무리가 오고 몸도 지치게 된다.
아침 산책을 해변으로 나갔는데, 사람들이 해변가에서 조개와 소라를 줍고 있었다. 보통 갯벌이나 모래를 호미 같은 도구를 사용해 조개를 잡는데 이곳에서는 별다른 도구 없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조개를 줍고 있었다.
어제 시작했던 윤하석 아저씨 그림을 마무리하는 작업이 남아있어서 저녁 늦게까지 마무리 작업을 하고 완성했다. 인천으로 돌아갈 날이 며칠 남지 않아서 제대로 된 작품을 더 제작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손에 잡히는 건 없고 마음만 급해진다.

6월 29일(수)

오후부터 햇볕이 드는 듯 하더니 저녁에는 안개가 몰려왔다.
사곶 해변에는 태풍이 지나간 후 조개 줍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모여든다. 산책길에 풍경만이 아닌 사람들 모습을 볼 수 있어 좋다.
산책하고 돌아오는 길에 전에 톱질해 드렸던 아주머니가 무를 길가에 내놓고 계셔서 물어보았더니 기다란 무 5-6개에 2000원에 파는 것이라고 하셨다. 인천 갈 때 두 단에 5000원에 사 갈테니 그 때 뽑아달라고 부탁드렸다. 일 끝내고 가시다가 배추와 오이를 주셨다.
백령도 온 이래 처음으로 백령목욕탕에 갔다. 월, 수, 토요일에 문을 연다기에 기회를 보다가 드디어 오늘 가게 된 것이다.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갔다.
집주인이 운영하는 슈퍼에 가서 방문해야 할 친척집과 작업실 이웃들에게 줄 선물로 휴지와 두유를 샀다. 장태신 아저씨 옆집 사시는 아버지 친구 분께 휴지를 드리고, 농부 아주머니에게 두유를 갖다 드렸다. 인사가 늦었다.

6월 30일(목)

저녁까지 안개가 걷히질 않고 이슬비가 내렸다. 해가 지면서 비는 그치고 마음이 쓸쓸해졌다. 고향을 떠날 시간이 점점 다가오면서 가족들 볼 즐거움과 함께 백령도와의 이별이 아쉬운 것이다.
장태신 아저씨와 용기포 부두를 소재로 작업을 했다. 지금까지 완성한 작품 중에 가장 짧은 시간에 마무리가 되었다. 기법을 달리하기도 했고 한 번에 끝을 내자고 작정해서 이기도 했다. 의외로 가볍게 붓칠을 하니 표정과 부두의 분위기가 좋은 작업으로 이어졌다.

7월 1일(금)

오전부터 서명하지 못한 작품들을 골라내서 마무리 짓고 사항포구 우럭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전과는 다른 기법으로 하기로 하고 덧칠기법이 아닌 한 번에 마무리 짓는 방법으로 하고 배경부분은 간략하게 처리하면서 작업해서 짧은 시간에 끝을 낼 수 있었다. 내일이 OBS촬영팀이 들어오기로 한 날인데 하루 종일 연락이 없다. 아마도 계획이 취소된 듯하다. 내일 아침까지 연락이 없으면 바로 북포리 답사에 나설 생각이다. 태어나 살았던 집과 동네, 친척분들 방문 등의 일을 서둘러 마무리해야 하고 촬영도 진행해야 한다. 가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되 큰 욕심내지 않고 두세 점 더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작업을 할 생각이다. 여유를 갖지 않고 쉼 없이 작업하는 일이 엄청나게 지겨운 일이 될 수 도 있다는 것을 요즘 작업하면서 많이 느낀다.

7월 2일(토)

해무가 집안까지 스며든다. 옷을 슬며시 적실 정도로 바다에서 밀려드는 강력한 해무다. OBS촬영팀은 결국 연락도 없이 오지 않았고 그만큼 시간은 벌게 되었지만 전화조차 없었던 것은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떤 관계이든지 시작을 소중히 여기면 끝도 정확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당연지사인데, 백령도에 오면서 벌써 두 차례나 비슷한 경험을 하니 마음이 참 씁쓸했다.
작업 때문에 미뤄 놓았던 사촌형수와 조카를 방문하는 일을 하기로 했다.
먼저 중간 역할을 하는 9촌 친척인 정치원 형을 찾아 여러 이야기를 듣고 바로 진촌에 있는 딸네

집에 가 계시는 사촌형수를 찾아갔다. 올해 68세인 형수님은 살이 많이 찌셨고 무릎이 좋지 않으신 상태이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셨다. 일반적으로 4촌간이면 왕래가 없는 먼 친척이라고 여기지만, 백령도에서는 형제만큼 가까운 사이다. 사촌 형수님은 안양에서 몇 년 간 한 동네에서 같이 살면서 정이 두터웠던 사이라 친 형수보다 가까운 큰 누님 같은 분이다. 초등학교 시절 형수님은 아이들을 낳은 아줌마였고, 나를 대할 때마다 '충의야'하고 호칭하는 그런 관계였다.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옛 이야기를 나누다가 형수님을 북포리에 있는 댁으로 모셔다 드렸다. 백령도 들어와서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분을 만나니 가슴이 뭉클하고 내가 다시 어려진 듯한 마음도 들면서 바랬던 기억의 한부분이 채워지는 기분이다.
내일은 종일 비가 온다고 했으니 작업을 계속해야겠다. 밖에서 비오는 소리가 끝없이 들리는 밤이다.

7월 3일(일)

어제 밤새도록 내린 비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해무가 사라졌다 나타났다를 반복하고 있으니 이런 날은 작업실에 콕 박혀서 그림만 그려야 될 날이다.
도마에 동백나무를 그렸다. 얼마 전 대청도 동백나무 군락지에 갔을 때 동백나무숲을 관리하는 분들이 어린 동백나무를 주셨다. 코팅된 목장갑에 흑을 담아 동백을 심고 지금껏 기르고 있다. 이 동백은 인천으로 입양될 것이다. 사람들은 고향을 그리워하다 나처럼 고향을 찾기도 하는데, 동백은 한 자리에 서서 그저 그리워만 할 운명이다.
오후에 OBS방송국에서 전화가 왔다. 백령도에서 나갈 날이 4일 남은 상태에서 오는 것은 큰 의미도 없고, 애초에 촬영할 의지가 없이 부탁에 의한 형식적 촬영이라는 생각에 거부의사를 밝혔다. 몸이 피곤해서 오늘만큼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7월 4일(월)

지리한 장마비가 걷히고 해무도 오지 않는 날이 왔다. 바로 오늘이 그날이다. 아침 일찍 수채화 도구를 챙겨 콩돌 해안 끝자락에 있는 오군포구부터 연꽃바위, 얼굴바위, 유대훈련장 앞바다, 장촌 포구, 중화동 포구까지 돌면서 작은 종이에 포구 풍경을 담았다. 수채화 작업을 해본지가 2,30년은 되는 것 같아 작업하면서도 마냥 낯설기만 했는데 작업실로 돌아와 살펴보니 그래도 봐줄만 했다. 8점의 수채화를 끝내고 점심으로 냉면을 먹고 바로 북포리로 향했다.
내가 태어나고 어린 시절을 보낸 집을 찾아 나섰다. 마을 사람들에게 묻고 또 물어서 결국 옛 집을 찾았다. 과거의 기억을 더듬어 지금의 집과 비교해 보니 어렸을 적 집과 마당은 굉장히 컸던 것 같은데 지금 집은 보잘 것 없이 낡고 마당도 조그마했다. 맞은 편 할머니에게 아버지 성함을 대고 확인했더니 내가 살던 그 집이 확실했다. 맞은 편 집 할머니는 알고 보니 5촌 어머니였다. 또 대학시절 인천 집에 놀러왔던 먼 친척 형도 만나게 되었다.
작업실에 와서 작업을 조금 하다가 저녁에는 조카 가족들을 만나 식사를 같이 했다. 요 근래 일주일 정도 친척들과 만나면서 예상외의 지출이 많아져서 씀씀이를 줄이는 방법을 생각 중이다.

7월 5일(화)

햇볕 쨍한 날이다. 어제 조카 선자네 식구들과 한잔을 과하게 해서인지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가 없었다. 잠이 깰 무렵 사촌형수가 전화를 해서 해변 입구로 나갔더니 미역을 두 봉지 주셨다. 백령도 미역은 모양새는 거무튀튀하고 물에 불려도 많이 퍼지지 않지만 찰랑찰랑 부드러워서 입에서 바로 위장으로 직행하는 느낌이 아주 그만이다. 어머니도, 형제들도 백령도 미역을 무척이나 좋아하신다.
아침을 대충 챙겨먹고 북쪽 방향으로 스케치 작업을 하러 떠났다. 사항포구부터 두무진 포구까지 옮겨가면서 총 9점을 그렸다.
저녁에는 먼 친척뻘 되는 이들과 술자리를 했다. 족보관계나 종친관계가 주 대화 내용이었는데 들어보니 작은 동 네에서 박씨, 장씨 등이 지나친 결속력으로 서로 간의 힘을 과시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다. 작은 곳에서부터 경계를 허물고 서로를 보듬는 자세가 필요한데, 참 아쉬웠다.

7월 6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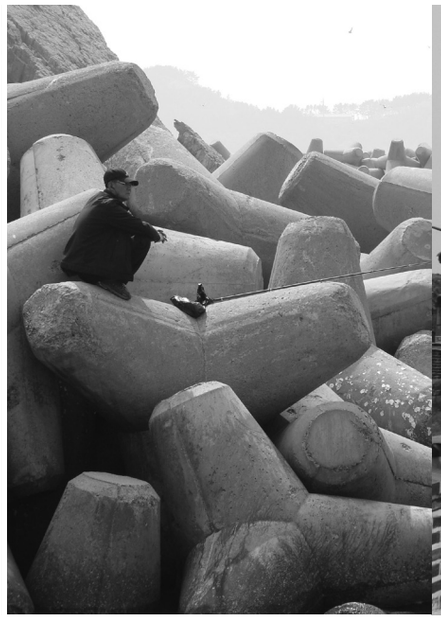
백령도에서의 마지막 날이다. 이젠 시작되었던 만남들을 정리하고, 짐 싸서 차에 실어야 한다.
점심 때 어머니 쪽 먼 친척인 정치원형을 만나 냉면을 안주로 술 한 잔 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오후에는 한 달 동안의 살림살이를 정리하고 포장해서 차에 실어놓고 사곶해변을 어슬렁거리다 저녁을 맞이했다. 식사하러 식당에 갔더니 친척 형이 동네 후배들과 한 잔하고 있었다. 그렇지 않아도 전화로 작별인사를 드릴까 했는데 만나서 참 다행이었다. 이 곳은 술잔 하나를 계속 돌리면서 마시는 술 문화가 남아있다. 술자리에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작별을 고했다.
많은 풍경을 접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 길고도 짧은 1개월이었다.
떠나면서 짤막한 작별 글을 출입문에 붙이고 용기포부두로 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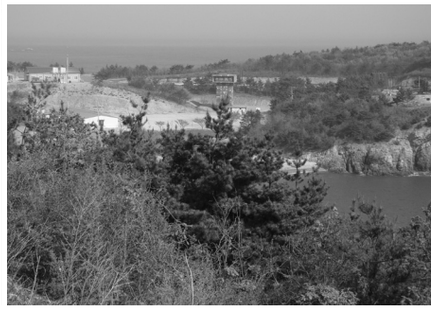
강화도에서 42년 만에 고향땅을 찾아 한 달간 살다 7월 7일날 돌아갑니다.
한 달간 백령도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아름다운 풍경과 사람들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이 그림들은 전국에서 초대된 5~60명의 작가들의 작품과 함께 7월 22일부터 8월 28일까지 인천아트플랫폼에서 전시하게 됩니다.
제가 그린 그림들을 통해 백령도의 평화로운 모습과 주민들의 순박한 삶이 도시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길 바랍니다.
제 고향은 북포리인데 이제 강화도로 떠나면 한 달간 머물렀던 사곶이 그리워질 겁니다.
일일이 찾아뵈어 인사도 못 드리고 떠납니다.
부디 이해해주시고 기회가 되면 또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히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어마이, 아바이, 아주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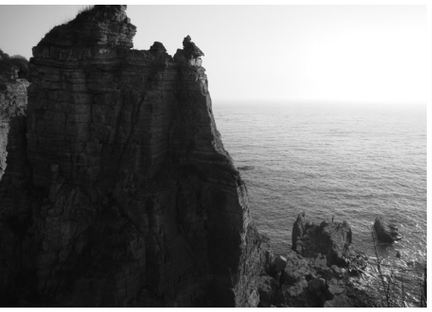
- 박충의 올림 2011. 7.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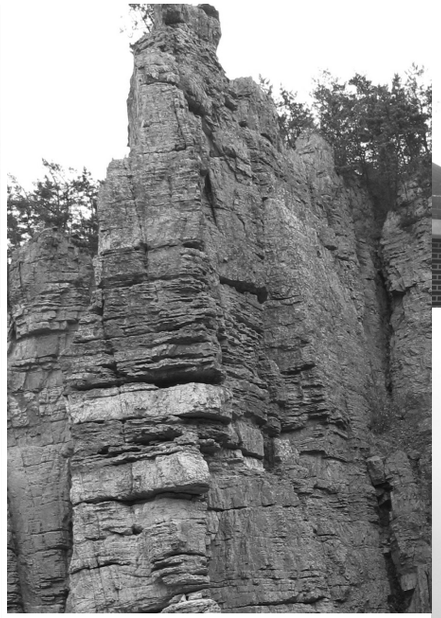
대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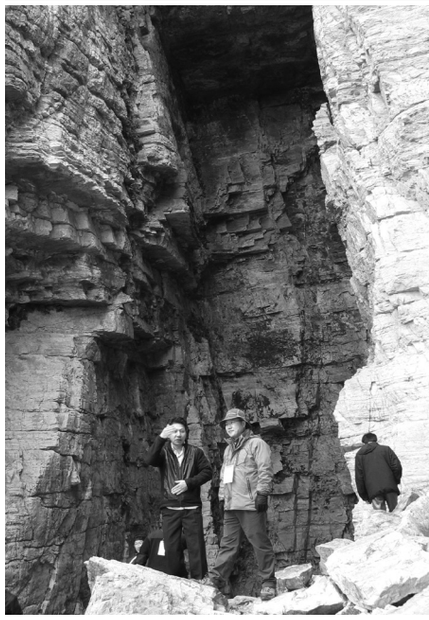
백령도











[존하동 교회의 창립 ①]

연평도

望鄉碑

주관 | 인천문화재단 INCHEON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주최 | 인천아트플랫폼 INCHEON ART PLATFORM 후원 | 인천관광공사 자연의 고장 옹진군 CAMF 주안영상미디어센터